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야고보 알베리오네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바오로가족의 카리스마 역사

바오로가족

안젤로 콜라크라이Angelo Colacrai와
엘리세오 스가르보사Eliseo Sgarbossa 엮음

협력해 주신 분들: 안드레아 다미노Andrea Damino, 안토니오 다 실바Antonio da Silva, 귀도 간돌포Guido Gandolfo, 루이지 조반니니Luigi Giovannini, 안토니에타 마르티니Antonietta Martini, 페델레 파스퀘로Fedele Pasquero, 프랑코 피에리니Franco Pierini, 마우리치오 티라펠레Maurizio Tirapelle.

작품 머리글자Sigla dell'opera: AD

출판 허락, 감수
1998년 4월 4일, 로마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장 실비오 피뇨티Silvio Pignotti 신부

교회인가: 1985. 10. 10
Albano Laziale
단테 베르니니Dante Bernini 주교

ⓒ성바오로수도회, 총본부, 1998
비매품

여는 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는 초창기 회원들에게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성소, 바오로가족의 사명에 관한 몇 가지 양상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1953년 말, 이 책에 수록된 메모를 자필로 써주었다.

원고 첫 페이지 상단에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富Abundantes divitiæ gratiæ suæ'(에페 2,7 참조)라는 성 바오로의 말씀을 썼는데 후에 작품의 표제가 되었다. 사실 표제는 저자의 의도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 창립자의 의도는, 하느님의 도움 덕분이긴 하나 자신이 행하고 이룬 일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에 유익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무한히 풍요로운 은총'이 '부적당하고 무능력한 사람'인 자신을 사용하고자 한 놀라운 교육학에만 주의를 기울이고자 했다.(AD 350 참조)

따라서 단순하고 빈약한 이 '메모'는 활기를 띠고 지속적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행위가 되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령의 인도로 자기 삶이 성부의 자비에 감싸여 있음을 깨달아 감탄하며 지난 세월을 회고하였다. 성체로부터 온 '빛' 속에서 그는 참으로 주님을 뵈었다. '반半 장님'(AD 202)인 그는 항상 빛을 받아 한걸음 한걸음 인도되어 나아갔다. 끝없는 기적을 되풀이하기 위해 하느님은 부당한 도구(AD 209 참조)를 다시 한 번 사용하신 것이다.

'바오로가족의 카리스마 역사'로도 알려져 있는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Abundantes divitiæ gratiæ suæ*」의 새 출판본을 소개하면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지녔던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응답의 자세와 똑같은 태도를 독자들도 본받도록 초대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의 표양을 본받아 우리가 받은 성소-사명에 온 힘을 다해 충실하도록 점점 커가는 사랑을 가지고 그 성소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실비오 피뇨티 신부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장

차 례

여는 말 5
참고도서 11
소개말 13
1. 원문의 기원과 변천 13
2. 표제 18
3. 해석의 문제 19
ㄱ. 자서전인가? 19
ㄴ. 역사인가? 21
4. 바오로가족의 부 24
ㄱ. 본성과 은총의 부 24
ㄴ. 역사적 전망의 부 26
ㄷ. 영적 주제의 부 29
5. 역사와 현실 사이 30
6. 맺음말과 독서를 위한 제안 34
일러두기 37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1–204**〕

머리말 〔**1–6**〕 41
I. 초창기의 은총. 성소와 특별한 사명 〔**7–35**〕 45
더 큰 은총의 순간들: 사제성소 〔**7–12**〕 45
빛의 밤: *특별한 사명* 〔**13–22**〕 47
창립 계획: *조직에서 수도 공동체 삶으로* 〔**23–26**〕 51
하느님의 활동과 *'이중의 순명'* 〔**27–32**〕 53
첫 평가: *바오로가족 간의 관계* 〔**33–35**〕 55

Ⅱ. 경험과 방향 〔36–100〕 57
청년기: 성소자 〔36–38〕 57
하느님의 총애: 제자인 수사 〔39–42〕 58
하느님의 활동 방법 〔43–47〕 60
'대격변'과 *로마 정신* 〔48–57〕 61
사회정신 〔58–63〕 66
보편성 〔64–70〕 69
전례정신 〔71–74〕 72
세 개의 주요 성당 〔75–77〕 74
교리 〔78–81〕 76
사목정신 〔82–86〕 77
소금, 빛, 도시: 문화에 그리스도교 생기를 불어 넣음 〔87–92〕 79
바오로 정신 〔93–100〕 81
Ⅲ. 창립을 향하여 〔101–110〕 84
준비 〔103–110〕 85
Ⅳ. 성장의 문제와 전망 〔111–150〕 90
세계를 향하여 로마로 〔114–116〕 91
확장 〔117–120〕 92
협력자라는 선물과 부 〔121–123〕 94
노동 〔124–130〕 96
섭리 〔131–135〕 99
복음서 〔136–145〕 101
인성 개발 〔146–150〕 103
Ⅴ. 카리스마의 원천 〔151–184〕 105
더 밝은 빛 … '꿈' 〔151–158〕 105
스승 예수께 대한 통합적 영성 〔159–160〕 108
하느님의 도움 〔161–173〕 110
정신과 실천 〔174–176〕 114

신심 〔**177–184**〕 116
VI. 미래를 바라보면서 〔**185–204**〕 120
실현해야 할 것 〔**185–204**〕 120
I. '최상의 삶' 〔**185–198**〕 120
II. 학문 연구 〔**199–200**〕 125
III. 은총의 중개자,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 〔**201–204**〕 126

부록 〔**215–355**〕
부록 I. 성바오로수도회에 대하여 〔**215–224**〕 131
1. 초창기 바오로인에 대한 증언 〔**215–220**〕 131
2. 수사(Susa)에서 초창기 바오로인에게 보내 편지 〔**221–224**〕 134
부록 II. 성바오로딸수도회의 프리마 마에스트라에 관한 증언 〔**240–246**〕 137
부록 III.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에 대하여 142
1.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창립 이전의 역사 〔**247–250**〕 142
2.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사명 〔**279–291**〕 144
3. 교회가 가르친 전례 〔**292–293**〕 149
4. 세 가지 필요와 세 가지 사도직 〔**304–308**〕 150
부록 IV. 선한목자예수수녀회에 대하여 152
선한목자예수수녀회 〔**309–325**〕 152
부록 V. 사도의모후수녀회에 대하여 〔**326–340**〕 164
1. 회헌 수정과 첨부 〔**326–331**〕 164
2. 모든 성소를 위한 성소사목 수녀회 〔**332–340**〕 167
부록 VI. 바오로 협력자회에 대하여 〔**341–344**〕 173
부록 VII. 선언문 〔**345–349**〕 175
부록 VIII. 작별인사 〔**350–355**〕 177
영적 유언 〔**351–354**〕 178
주님의 강복을… 〔**355**〕 179

색인

성경인용 색인 183
문헌 · 서적 · 신문 색인 184
연대 색인 189
장소 색인 192
인명 색인 193
내용 색인 197

참고도서

Aa.Vv.,「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Mi protendo in avanti*」, Edizioni Paoline, Roma 1954.

Aa.Vv.,「알베리오네 신부의 그리스도적 유산*L'Eredità cristocentrica di Don Alberione*」, a cura di A. da Silva, Edizioni Paoline, Roma 1989.

Aa.Vv.,「알베리오네 신부의 도전*La sfida di Don Alberione*」, Piemme, Casale Monferrato 1989.

Aa.Vv.,「알베리오네 신부님을 알기 위하여*Conoscere Don Alberione(1884-1907)*」, Strumenti per una biografia, Ed. Centro di Spiritualità Paolina, Roma 1994.

Alberione Giacomo,「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Ut perfectus sit homo Dei*」, Volume unico, Edizioni San Paolo, 1998[2] (UPS).

Barbero Giuseppe,「야고보 알베리오네, 이상적인 인간*Il Sacerdote Giacomo Alberione, Un uomo - un'idea*」, Società San Paolo, Roma 1991[2].

Damino Andrea,「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 목록*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 III edizione rifusa ed accresciuta, Ed.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amiglia Paolina, Roma 1994.

Damino Andrea,「알베리오네 신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Don Alberione al Concilio Vaticano II*」, Proposte, interventi e appunti, Ed.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amiglia Paolina, Roma 1994.

Martini Caterina A.,「성바오로딸수도회 역사*Le Figlie di San Paolo*」, Note per una storia 1915–1984, Figlie di San Paolo, Roma 1994.

Rocca Giancarlo,「성바오로수도회 양성*La formazione della Pia Società San Paolo (1914–1927)*」, Appunti e documenti per una storia, Roma 1982 (Estratto da Claretianum xxi–xxii).

Rolfo Luigi,「알베리오네 신부*Don Alberione*」, Appunti per una biografia, Edizioni Paoline, Alba 1974.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Carissimi in San Paolo*」, raccolta di articoli dal bollettino "San Paolo", a cura di R.F. Esposito, Edizioni Paoline, Roma 1971 (CISP).

「바오로인의 봄*La Primavera Paolina*」, raccolta di articoli dal bollettino "Unione Cooperatori Buona Stampa", a cura di R.F. Esposito, Edizioni Paoline, Roma 1983 (PP).

소개말

처음에 부분적으로 출판된 후 거의 반세기가 흐른 지금, 새로이 수정판으로 출간되는 이 책이 '바오로가족의 카리스마 역사'라는 부제로 정의되고 높이 평가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사실 이 책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체험에 대한 가장 생생한 문헌으로, 이 체험은 진정한 카리스마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바로 '바오로가족'으로 알려진 다양한 형태의 수도회 안에 구체화되었다.

이 문헌은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가 시작했고 활성화시킨 활동 하나하나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또 창립자로서 그의 개인적인 모순까지도 조명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성인전과 교회 안의 어느 창립에 관한 교회법적·신학적 보고서의 중간 지점에 있는, 교회의 역사라는 강에 떠오른 '창세기'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이 책은 가장 많은 결실을 거둔 현대 창립자들 가운데 한 분의 삶과 활동을 이끈 동기를 참 빛으로 조명해 준다.

1. 원문의 기원과 변천

원문의 기원에 관해서는 조반니 로아타Giovanni Roatta 신부가

1982년에 한 증언에 잘 나타나 있다.[1]

"우리 창립자는 근간이 되는 당신 영감의 요약인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집필하셨다.

수도회 창립 40주년(1914–1954)이 다가오자 우리 중 몇 사람 (발렌티노 감비Valentino Gambi 신부, 레나토 페리노D. Renato Perino 신부, 조반니 로아타D. Giovanni Roatta 신부)은 우리 바오로 성소와 창립자에 관해 더 깊이 알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는 회원들의 의식 고취를 위해서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어느 날 내(로아타 신부)가 이러한 생각을 창립자께 제시하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고, 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이 우리 사이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 무엇인가를 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을 (아르헨티나에 있는 페티나티 귀도 신부와 다른 이들에게서)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를 실행할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시작했으며, 1954년 초까지 몇 달 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다.

어느 시점에 이르자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나를 불러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오직 성 바오로에 대해서만 말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창립자, 귀감, 아버지, 영감을 불어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작한 일

1. 이 증언은 안토니오 다 실바(Antonio da Silva) 신부가 정리하여 *Conoscere Don Alberione*, I(1982), 35 이하에 게재하였다.

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에 동의했고 우리는 작업을 계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를 부르셨는데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은 작은 필체로, 아주 자세하게 쓰신 조금 많은 분량의 원고뭉치를 내게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쓸 만한지 보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가 된 자필원고였다.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그러나 우리 작업이 너무 많이 진전되어 여러 조항에 대해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못했고, 그분 회고록의 본질적 가치를 곧바로 포착하지도 못했다.

그 자필원고는 우리 작업이 끝나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Mi protendo in avanti*」(1954년 여름)라는 두꺼운 책이 출판되어 나왔을 때까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제서야 그때까지 우리가 사용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진 작업에 잘 협력해 준 마조리노 포베로Maggiorino Povero 신부가 위의 자필원고를 잘 보존할 테니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여 기꺼이 그에게 넘겨주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 (1969년 특별 총회 때) 이 회고록이 다시 중요하게 부각됨을 보게 되었는데, 특히 총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나 너희와 함께 있노라*Io sono con voi*」라는 표제로 처음 출간되었을 때였다.

여러 번에 걸쳐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라는 단순하고 소박한 글을 읽으면서, 나는 우리 역사와 카리스마를 위해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수도가족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신 영적 여정을 위해 이 회고록이 지닌 특별한 중요성을 한층 더 깨닫게 되었다.

1980년 1월 10일, 아리차, 스승 예수의 집에서

조반니 로아타"

원문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그것은 무엇보다 여러 번 수정한 '메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것은 고정된 번호 없이 흩어진 종이로 된 자필원고(ms)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원문과 동일하지 않지만 분명 알베리오네 신부 자신이 쓰고, 수정한 두 번째 편집본임을 나타내는 타자원고(ds)로 되어 있다.

자필원고는 39매枚로 되어 있다. 18매는 18×24 센티미터, 나머지 18매는 11.3×17 센티미터, 2매는 15×17.8 센티미터 그리고 1매는 9.3×14.5 센티미터 크기의 종이에 썼다. 이 종이 중 일부(4매)는 자른 두 매의 종이를 나란히 붙인 것이다. 이 밖에도 39매 중 29매는 한 면에만, 7매는 양면에, 1매는 1952년 11월의 회계소득명세가 기록된 이면지를 사용했으며, 다른 2매는 문장이 지워져 있다.(아마도 초고인 듯함) 이렇게 해서 모두 46매에 이른다.(지워져 있는 2매를 포함) 그뿐 아니라 39매 중 31매는 상단에 번호가 이중으로 매겨져 있고, 8매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논리적인 순서나 역사적 발전을 페이지에 표기하려고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자필원고를 처음 사용한 것은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생각은 내부 소식지 「성 바오로*San Paolo*」[2]에 실린 것처럼, 그 시기에 쓴 또다른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필원고는

2. 「성 바오로*San Paolo*」(1954년 7-8월호). 1954년 8월-9월에 알바(Alba, Cuneo)에서 열린 바오로 전시회를 방문한 이들에게 한 '인사말'을 보라. 여기에는 1914년 8월 20일을 기억하기 위한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설교도 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1954)의 편집에 부분적으로 사용했고, 전체를 손질하여, 「나 너희와 함께 있노라」[3]라는 표제로 1969년에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 특별총회에 참석한 이들이 사용하도록 출간되었다.

1971년, 주세페 바르베로Giuseppe Barbero 신부의 감수로 이 원문은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바오로가족의 카리스마 역사 *Abundantes divitiæ gratiæ suæ: Storia carismatica della Famiglia Paolina*」[머리글자 AD, 이하 AD로 표기함]라는 새로운 표제로 출판되었는데, 바르베로 신부가 해석적 · 역사적 특성을 띤 주석을 곁들여 초판을 발간했다.

이 작품의 재판(로마 1975, pp. 6-7)에서 같은 감수자는 원문의 두 편집본, 곧 자필원고와 타자원고를 대조하여 두 원문의 일치점을 찾거나 통합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AD의 형성과정에 관한 또 다른 정보를 첨부했다.

여러 편의 원문을 부록에 덧붙여 분량이 늘어난 새로운 '비평' 출판본은 1985년에 에제키엘 파소티Ezechiele Pasotti와 루이지 조반니니Luigi Giovannini의 감수로 발간되었다. 이 출판본은 '알베리오네 전집Opera Omnia'의 새로운 시리즈에 삽입되었고, 자필원고를 토대로, 엄격한 본문비평 방법을 적용했다.

이 책을 재판하면서 자필원고가 아니라 알베리오네 신부가 교정 · 수정 · 승인한 타자원고를 채택했는데, 이 원고가 그의 결정적

3. 출판 장소나 날짜 표시도 없는 11.5×17.7 센티미터 크기의 48쪽 분량의 소책자. 성바오로딸수도회에서도 1969년 10월 2일자로 56쪽 분량의 11×15 센티미터 크기로 출간했다.

인 생각에 더 부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주 번호가 아닌 기호 표시들은 원문에서 제외시켜 본문비평을 간결하게 했다. 반면에 1985년 출판본에 실린 해석적·역사적인 각주의 풍부함은 그대로 두고 부록에 첨부한 원문도 그대로 두었으나 몇몇 원문의 상세한 입문 설명만은 배제했다.

2. 표제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라는 표현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2,7)에서 발췌한 것으로, 타자원고의 첫 장 상단에 저자가 직접 쓴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영성의 핵심들 가운데 하나인 요한 14,6에 버금가는,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소중한 '바오로적' 표현이다.

요한과 바오로는 초기부터 바오로가족의 핵심에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두 사도는 AD에 자주 인용되었고, 특히 에페 2,5-7의 구절 전체는 1800년 말부터 1954년까지 있었던 사건과 사상의 흐름에서 생겨난, 새로운 수도회의 부富와 창립자에게 아낌없이 주어진 부富를 나열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AD 4) 이러한 부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급할 것이다. 먼저 AD라는 표제는 저자가 자기 자신과 '하느님의 활동'으로 보고 느껴온 자신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하나의 성경적·바오로적 빛을 비추어주고 있음을 주목하자.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신앙의 여정, 구약의 탈출기를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이는 분명 20세기를 위해 높은 곳에서 원하시어 이루어진 활동의 전개요, 그 활동이 무르익을 때까지 '섭리'(AD 43,45 참

조)로 인도하신 일임을 명확히 밝힌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신의 글에서 수도회가 가난하게 시작했음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인도받은 사람(하느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반 장님이 있다. 그리고 그는 늘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때그때 빛이 주어졌으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AD 202 참조)으로 소개했다. 또 순명하는 '종'인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위한 '스승', 영적 지도자임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 쓸데없이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 자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소개했다.

3. 해석의 문제

AD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나온 저서임을 이미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 작품을 이미 '회고록'의 범주에 자리매김하게 하고, 그 가치와 이 글을 읽는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ㄱ. 자서전인가?

「영성사전*Dictionnaire de Spiritualité*」[4]은 '자서전'을 정의하고 예를 들기 위해 저자, 표제, 해석의 관점에 대한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이 사전에서 예를 들고 있는

4. F. Vernet, 「영성 자서전*Autobiographie spirituelle*」, in DS IV(1935) 1141-1159 참조.

저명한 자서전으로는 4세기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의 자서전[5]과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16세기 (아빌라의) 「예수의 데레사 생애」와 이냐시오 데 로욜라[6]의 「성소와 사명에 대한 이야기」(또는 「한 순례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자서전은 그 유명한 (아기 예수의) 데레사 마르탱의 「한 영혼의 이야기」다. 자기 자서전에 포함된 영적 가르침 덕분에 자신의 위대한 수호성녀처럼, 성녀는 최근에 교회박사의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예를 든 여러 인물보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더 가까이에서 따른 귀감은 아마도 성 바오로로서, 삶의 방식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귀감으로 삼은 것 같다. 회심자의 겸손과 같은 겸손, 당신 빛의 도구로 삼기 위해 그를 어둠에서 구해내신 그리스도께 대해 그가 지녔던 것과 같은 감사, 하느님의 자비를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화'를 위해 일한다는 같은 목적 의식을 지녔다. 또한 성 바오로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 게다가 환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에는 3인칭을 사용했다.(2코린 12,3-4 참조) 주님의 '힘'은 '약한'데서 드러난다고(2코린 12,9 참조) 사도가 축소시켜 말한 '환시'는 분명 그러한 체험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증언이다.

아마도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 사도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

5. 라틴어 역본, 「세입소의 역사 시*Poëmata Historica de Seipso*」, 특히 1949년 역본 XI.
6. 이냐시오에 대해서는 「이냐시오 유고집과 담화 원천*Monumenta Ignatiana e Fontes Narrativi*」 I, 323-507에 나오는 비평 텍스트를 보라. 이 저서는 저자가 자신에 대해 가졌던 영성적이고 심리적 차원의 '식별'에 특별한 관심을 끊임없이 갖게 하고, 알베리오네 신부가 AD에서 그랬듯이 3인칭을 사용한 것도 흥미롭다.

듯하다. 영적 선물에 대한 체험 그 자체는 되풀이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 점이 개인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꺼린 이유임을 설명해 준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주제에 관해 쓰도록 알베리오네를 이끌어준 것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곧 하느님이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 이루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남기려는 원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바오로가족이 이런 유산의 상속자라면 AD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진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역사인가?

이 시점에서 AD를 읽기 위한 최상의 자세는 저자의 자세와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문해 볼 수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일련의 기억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서 역사의 주요 요소, 방향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자기 가족에게 남겨주려 한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역사다. 이는 위에서 인도하신— '거룩한 역사' —것이라고 인식해야 할 역사요, 이를 따르는 이들의 노력으로 발전시켜야 할 역사다.

'비평적' 시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꿈' 또는 1900년에서 1901년으로 넘어가는 그 유명한 밤(AD 13 참조)에 관한 여러 특별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역사성에 관한 의문이다. 아무튼 어떤 강력한 체험은 삶 전체에 큰 흔적을 남긴다. 아마도 바오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킨,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강력한 빛이

알베리오네 신부를 비추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을 오늘날 신학에서는 '창립자의 카리스마'라고 부른다. 이는 창립자가 직접 체험한 빛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빛이다. 역사적 차원에서도 이런 체험은 자기네 고유한 카리스마의 뿌리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논거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7]

이것이 사실이라면 AD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간략한 답을 모색하기 전에 알베리오네 신부의 이야기 중 절제에 관한 생각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AD를 읽으면서 포착할 수 있는 근본 자세는 '거리 두기'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 같다. 사실 자체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저자 자신과 거리 두기 또는 '이탈',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거리 두기 그리고 당대의 사조와 관습이라는 큰 동향과 거리 두기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창립한 가족에게 호의를 베푸신 '부富'를 더 잘 보고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거리를 둔 것이다.

우리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살아온 역사를 동일시하거나 '공감'하는 방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자긍심을 가지고 속했던(AD 125 참조) 바로 그 피에몬테의 농부들이 지닌 겸손, 곧 일상의 현실을 늘 직시하기에 즉시 감지하는 지칠 줄 모르는 단

---

7. 참조: 「복음의 증거*Evangelica Testificatio*」, 11; 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in AAS (1971) 497-526; 그리고 「상호 관계*Mutuæ Relationes*」 11-12, note direttive delle S. Congregazioni per i Religiosi e gli Istituti Secolari, e dei Vescovi, in AAS 70 (1978) 473-506. F. Ciardi, 「성령의 사람들인 설립자들 *I Fondatori uomini dello Spirito*」, Città Nuova 1982. 이러한 책들이 알베리오네 신부를 분석했다.

순한 사람들의 겸손 외에 그 어떤 가리움도 없이 그의 눈으로 현실을 '읽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AD는 영원의 전망 안에서, 인식의 한계를 넘어 기나긴 과거의 여정과 새로운 여정을 따라, 관조가 아니라 여행을 해야 하는 거대한 풍경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영원! "영광의 빛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AD 194), 이는 가장 높고 가장 포괄적인 관점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지상의 새로운 천사들인 수도자들을 통하여 다가올 세대에 드러나야 할 은총의 풍성한 부 …"(AD 4)에 대한 이야기는 영감을 받은 글처럼 기도와 묵상을 위한 지침서의 특징을 띤다.

AD를 읽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 바오로를 읽는 것과 같다. 스승에게서(AD 153) 발산되는 '더 밝은 빛'을 통해 하느님과 세상의 현실을 관상하게 한다. 이 빛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빛,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에 이르는 회심의 여정에서 사울을 비춘 빛(AD 159 참조),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다.

요약하면 AD를 읽는 우리의 접근방식은 역사적 관점뿐 아니라 성경적·카리스마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것이 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선물 또는 모든 '은총'이라는 '부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바오로 가족의 '부富'

알베리오네 신부는 AD에서 자신의 체험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성 바오로가 그랬던 것처럼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와 알베리오네 신부는 모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요 예언자가 되게 한, '봉헌'이라는 향기요 선물인 '은총'을 전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를 가장 잘 묘사하는 칭호는 아마도 '예언자'일 것이다. 이는 그 자신이 체험한 것이고 후에 '하느님의 손길 아래서' 자신의 특별한 사명과 오늘의 세상 안에 존재하는 그의 수도가족의 사명을 회고할 때 이에 대해 명백하게 말할 것이다. 그의 '예언'은 많은 부에 관한 증언을 통해 이 책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를 재발견하고 재평가하도록 도와준다.

ㄱ. 본성과 은총의 부富

알베리오네 신부는 타자원고에서 '은총', '초자연성', '성화', '사명'이라는 어휘를 '본성'에서 '은총'으로, '이성'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변화, 곧 완성에의 전환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특별한 사명을 위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이와 모든 것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진리'와 '은총'의 이 직무는 봉헌생활을 통한 개인적인 고양으로 강화된다. 이 봉헌생활은 "복음적 권고까지 실천하는 사람들의 덕인 최고의 덕과 사도적 삶으로 공덕을 얻도록 인도하고 … 사도직에 더 나은 일치, 더 나은 안정성, 더 나은 지속성, 더 나은 초자

연성을 부여하기 [위해]"(AD 24) '남녀 수도자'가 되는 이들의 진정한 부요함인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있어 모든 사도적 성소의 출발점은 신앙과 '열의'의 분위기 안에서 바오로가 지녔던 고뇌를 인식하는 것이다. 곧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고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눈과 마음을 열어준 '신심'은 그에게 — 성령강림의 동정녀, 사도의 모후의 경우처럼 — "세상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AD 182)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우리의 고유한 사명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부富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은총'이다. 그리고 사도직과 양성의 규칙, 바오로가족 각 수도회의 회헌을 신학적 의미로 조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은총'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최우선적으로 '은총' 또는 같은 현실을 표현하는 다른 말인 '성성'을 첫 자리에 두고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우라는 부추김을 받았다. "꿈에서 대답을 얻은 것 같았다. 사실 스승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말라. 나 여기서 비추리라. 너희 죄를 뉘우치라.' … 스승의 모습이 어떤 빛에 감싸여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영적 지도신부와 이 꿈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심하십시오. 꿈이든 다른 것이든 들은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말씀을 당신과 모든 회원을 위한 빛과 삶의 실천 계획으로 삼으십시오.'"(AD 152-154)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더 큰 은총의 선물은 성 바오로를 발견한

것이었으니, 그는 보편적인 사도요, 성덕의 모범, 복음에 대한 헌신의 모범이신 성 바오로의 "인품, 성덕, 마음, 예수님과의 친밀함"(AD 64)에 감탄했다. 여기서 다음 규범이 나온다. "바오로가족이 지녀야 할 첫 번째 관심사는 삶의 성화요, 두 번째는 교의의 성스러움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AD 90) 바오로적 체험은 '외적 활동'이 '은총의 내적 활동'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언제나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 곧 본성, 은총, 성소는 사도직을 위한 것이다."(AD 100) 사명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다.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는 참으로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는 양심성찰은 '은총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촛점을 맞추는데, 이는 집 안에 천상 스승의 현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뿌리뽑아야 할 것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완전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또 그분과 같아지거나 '그리스도화' 하기까지 지혜와 나이,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

ㄴ. 역사적 전망의 부富

그의 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은총의 사건과 더불어 또 다른 부富는 바로 '역사' 그 자체와 역사의 거대한 전망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묵상과 기도 안에서 회고한 '이중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아름다운 대영광송을

노래하기 위한 하느님 자비의 역사다.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목 없는 역사다. 따라서 수많은 게으름과 죄, 마음 상해드린 것 때문에 새롭고 통회에 찬 '미세레레'를 작시할 필요가 있다."(AD 1)

'역사'는 창조주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가르치는 '스승', 다시 말해 천상 스승의 지속적인 가르침이다. 따라서 젊은 알베리오네는 열정을 가지고 세계사, 교회사, 세계 문학사, 예술사, 전쟁사, 항해사, 음악사, 특히 법학사, 종교사, 철학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역사를 읽는다.

그는 역사에서 구원의 보편성과 사명의 보편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는 세계적으로 '넓게 생각하는 것'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것에서 행동의 차원에 부합하는 과제를 도출해 냈다. 곧 일반 구성원이 아니라 지도자, 사도적 활동으로 모든 이에게 도달해야 하는 수도회의 창립자로서 삶의 고유한 영역에 효과적으로 참여한다는 결심이었다. 이것이 바로 AD를 이야기하면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구원이라는 세계사에 자신의 작은 역사를 삽입한 이유다.

부르심을 받아 '공인'이 되었기에 그는 더 이상 사적 삶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공동책임에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유년시절부터 깨달은 사제성소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자신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 "자기 구원을 위해 그리고 더 풍성한 사도직을 위해 전 인격, 곧 정신, 마음, 의지를 계발해야 할" 필요성(AD 22)을 깨달았다.

주변 환경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행동하도록 그를 도와주었다.

자기 시대의 교회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의 다양한 조류 한가운데서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과 신빙성없는 권위의 교사들 사이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목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법을 배웠다.

역사적 사건과 날짜들이 AD 전반에 걸쳐 언급되는데, 이 모든 것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자기 활동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임을 알려주는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았으며, 필요하다면 하느님의 섭리가 자신에게 맡긴 과업에 충실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알베리오네 신부 개인 삶에는 생명이 위급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는 과도한 일 때문이기도 했다. 자신의 활동을 지속하기에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건강에 중대한 위기를 넘기면서 그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삶은 신앙에 기초한다는 것을 체험했다.

바오로의 선교와 조직에 박차를 가하는 사도적 애덕에서 힘을 얻어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구원 역사의 새로운 표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오로가족 전체를 위한 카리스마의 전형이다.

ㄷ. 영적 주제의 부富

'정신, 의지, 마음'이라는 '세 명제'에 요약되는 인간학적 차원의 부富가 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 전 존재는 자기 구성 요소의 전체성 안에서 구원되는 것처럼 인간 재능의 모든 개인적 풍요로움도 사도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양성 또한 총체적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전 존재, 곧 지성, 의지, 마음, 육체적 힘은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AD 100)

그리고 신학적·수덕적 부富도 있는데 이는 통합된 방식으로 '길 진리 생명'의 방법과 '신심'을 통해 '그리스도 전체'를 닮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오로가족은 … 성 바오로의 정신으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살 것을 열망한다."(AD 93) 이와 같이 기도, 양성, 사도직과 공부가 "언제나 길 진리 생명이신 우리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가 지성, 의지, 마음에 온전히 형성되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전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근면한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유능한 스승이 될 것이다."(AD 98)

'하느님 전체, 곧 삼위일체.'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령보다는 '은총'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한다. "주일에 모든 것은 삶의 계획과 사도직, 예수님의 구원 계획인 대영광송, 곧 천사들이 노래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는 성삼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다. 바오로인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AD 183)고 말한다.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하는 하느님 백성, 교계제도의 인도자인 '교회'는 마르지 않는 부富다. 곧 교회는 스승의 가르침, 그분의 표양, 그분의 삶 모두를 요약하기 때문에 하느님 부富의 정점이다. 그리스도교 중심지에 첫 설립을 결정한 그 시작부터 바오로가족은 교회에서 모든 것을 길어냈다. "바오로가족이 로마에 자리잡은 까닭은 성좌에 봉사하기 위함임을 더 잘 '느끼기' 위한 것이요, 사도직 활동과 정신, 가르침을 원천인 교황의 가르침에서 직접 길어내기 위해서다. 로마는 세계의 스승일뿐 아니라, 인류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으며, '파견받은 이들'은 로마에서 세계 각처로 떠나기 때문이다."(AD 115)

5. 역사와 현실 사이

AD는 1953년에 출간되었다. 그해 몇 달 간 알베리오네 신부의 그 유명한 활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의 주위에는 모든 면에서 큰 일들이 들끓었다. 그리고 사춘기부터 세상의 폭넓은 움직임에 깨어 있고, 보편교회가 주는 표지를 감지하는 데 익숙해 있던 그는 교황 비오 12세의 카리스마적 권위로 이루어졌고, 1945년에 맞은 평화에 이어 찾아 온 봄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느꼈다.

여러 창안 'Mondo migliore'(MBW: Movement for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와 '성모성지 순례Peregrinatio Mariæ'와 같이 민중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지역 운동과 결합되었다. 이는 1950

년 희년과 1954년 마리아의 해 기념으로 장려된 더욱 폭넓은 부흥의 표현이었다. 그 시기의 교회 여정을 말해주는 신학적 논쟁과 전례적·사목적 개혁의 미미한 표지는 익히 알려져 있다. 이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목생활*Vita Pastorale*」, 「전망*Orizzonti*」, 「하느님의 어머니*Madre di Dio*」와 같은 정기간행물에 기고함으로써 참여했는데, 이는 사목 쇄신과 마리아의 보편중개의 교의적 정의에 대한 제안으로 마리아 신심을 북돋기 위함이었다. 가끔 고통이 따르는 논쟁, 반대 의견과 정치-사회적 긴장 등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위한 분위기를 준비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 기간에 일어난 국내 및 국제 정치의 큰 사건을 모른 체하지 않았다.(‘냉전’과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을 생각해보라.) 그는 신문에서 그리고 때때로 공적으로 직접 책임을 맡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쉽게 이쪽 또는 저쪽으로 기울어 편드는 데 휩싸이지 않고 하느님의 시각으로, 높은 곳에서 사건을 주시하며, 먼저 복음에서 영감을 받고 교회의 지침을 따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창립자 자신의 강력한 활동을 전개했고 동시에 당면한 문제로 고심했다. 마리아의 해에 낙성식을 하기 바란 사도의 모후 성당 마무리 공사와 내부 장식을 예로 들 수 있다. 공사 감독과 경비 조달을 위해 온 시간과 힘을 쏟았지만 그것은 그의 활동의 외적 측면 중 하나에 불과했다. 끈질기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2코린 11,28 참조), 곧 바오로가족의 영적·법적 구성에 마음을 쓰는 것이었다. 회원에 관한 문제도

완전하지 못했고, 아직 사도의모후수녀회와 모든 병설 수도회가 창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자 수도회의 교회법 승인을 위한 과정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존립을 위협했던 1946-1948년의 중대 위기 이후에 신속히 진척되었다. 성바오로딸수도회는 1953년 3월 15일에 교황청 승인이, 선한목자예수수녀회는 1953년 4월 22일에 교구 승인이 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사도직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일이 진척되지 않을 때 창립자가 그 여정에 박차를 가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동시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로마 지역에 있는 여러 그룹, 특히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경당에 모인 공동체에 거의 매일, 묵상과 강론을 통해 교리교육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영적·사도적 양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행 기간을 제외하고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그와 같은 강론은 아리차에서 한 일련의 강론(「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Ut perfectus sit homo Dei*」, 1960 참조)보다 앞선 것으로 '양성 과정'을 이루고 우리 카리스마의 근본 가치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그러는 동안 빛을 보게 되었고, 미래에 계속 발전할 예언적 안목을 지닌 창안으로 알베리오네 신부가 촉진시킨 사도직을 조직하는 일이 뒤따랐다. 이를테면 국내와 국제적 차원의 출판센터(이탈리아의 출판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위한 편집부…) 건립, 보급센터 또는 '이성적인 프로파간다', 교리에 관한 다큐멘터리, "하느님의 어머니Mater Dei"와 "사람의 아들Il Figlio dell'Uomo" 등의 장편영화 제작이 그것이다.

끝으로, 세계를 순회하는 긴 여행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공동체를 방문하여 고무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모든 활동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세계 대전 직후에 바로 시작한 첫 아메리카 여행(1946)이었고, 이어서 동양과 두 개의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지구를 한 바퀴 돈 여행(1949) 그리고 1952-1953년에 다시 동양과 오세아니아, 두 개의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를 다시 방문한 것이었다. 그 여행 동안 —창립자와 동행한 성바오로딸수도회 총원장 마에스트라 테클라Maestra Tecla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총원장 마드레 루치아 리치Madre Lucia Ricci 수녀가 증언한 바와 같이— 알베리오네 신부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회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여행과 방문 계획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오로지 다음 도착지에서 그를 기다리는 공동체를 위한 업무에만 마음을 썼다. 이러한 여행을 하도록 이끈 정신이 담긴 자료는 비행기에서 작성한 메모로 엮어졌다. 곧 안데스 산맥 위를 비행하면서 쓴 '스승 예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기도의 초고, 또는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를 비행하는 동안 상공에서 관찰한 여러 민족의 종교 상황에 관한 메모와 같은 선교 성격을 띤 고찰 등이다.(「성 바오로」에 게재한 여행에 관한 이와 같은 글은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Carissimi in San Paolo*」, pp. 1007-1043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여행과 여행 사이에 AD를 썼다. 관광객이 아니라 사도요 예언자의 안목으로 주의 깊게 살핀 그의 사고에서 '오늘'과 '세상'을 배제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직접 체험했거나 신문에서 읽은 사건은 묵상 주제가 되었다. 그는 "참사위원 키에사에게서 흠숭하고, 감사하며, 통회하고, 청원하기 위해 천상 스승

곁에서 모든 것을 묵상과 기도의 주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배웠다." (AD 68)

세상에 관한 정보는 각 사도직을 열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앎은 세계를 감싸는 하나의 계획을 도출해 낸다.

6. 맺음말과 독서를 위한 제안

AD를 읽고 풍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독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시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익한 제안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 발전 중에 있는 모든 현실이 그러한 것처럼 AD 안에 언급한 많은 사건, 또는 암시만 한 사건은 창립자의 후기 작품과 활동에서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 따라서 AD를 이해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아리차에서 1960년에 한 대피정 강론을 수록한 50개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Ut perfectus sit homo Dei*」(Edizioni San Paolo 1998)라는 한 권의 책으로 재출간되었다. 이 책은 어느 정도 AD를 보완해 주며, AD와 함께 그의 유산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위한 '창립자의 유언testamento del Fondatore'을 구성한다.

나) 창립자 신부가 시작한 카리스마 역사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들어가려면 바오로가족이 살고 활동하는 오늘 그리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창립자가 1953년에 쓴 내용을 문자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다) 본문의 부富를 지속시키려면 사고방식과 실천의 끊임없는 쇄신, 곧 각자의 상황에서 일하면서 시대와 함께 걷고 진보하며 조직하고 '생각으로 미래를 두루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라) 무미건조한 지성주의의 한계, 숨 막히는 율법주의 또는 '초자연적인 것'이나 '은총'을 배제시키는 과학주의의 한계를 넘어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상상', 영감 또는 '꿈' 등도 유익하다.

마) 지속적인 식별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영적 지도, 충고, 세상의 필요에 대한 사목적 관점의 명료함과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독서도 필요하다.

바) 우리의 사도적 성소를 완수하기 위해 매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듯이 진보와 현대화도 두려움 없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사) 수도회 간의 협력과 평신도들과의 협력은 가족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 바오로가 오늘을 사신다.'는 영적·선교적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아) 천상 스승의 메시지를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양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화' 문학 장르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억'뿐 아니라 '삶의 스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사에 대한 연구를 재평가해야 한다. 이는 바오로인의 뿌리를 자기 것으로 하고, 그 뿌리와 조화롭게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이런저런 가르침을 훨씬 더 단순한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수단보다 성령이, '본성'보다 '초자연적인 것'이, 제도보다 '은총'이 더 우위라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결점이 있다 해도 신앙의

힘은 전능하기에 사도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D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의 '회고'로 풍요로워지는 동시에, '실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계획'을 파악하게 된다. 이는 여전히 성취해야 할 '부富'의 여정이다. 따라서 AD는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에 대한 '역사'일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위한 '해석의 열쇠'와 바오로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예언'인 것이다.

1998년 4월 4일, 로마

콜라크라이A. Colacrai – 스가르보사E. Sgarbossa

일러두기

1.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채택한 본문은 '타자원고' 또는 '두 번째 편집본'으로서 타자 비서인 안토니오 스페찰레Antonio Speciale와 실바노 데 블라시오Silvano De Blasio의 도움을 받아 알베리오네 신부가 직접 감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저기 자필원고를 참조하여 수정 · 보완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각주에 표시해 두었다.
2. 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각주는 모두 편집 작업을 위한 것이다. 대부분 출판본의 감수자들이 보완한 1971년 출판본(G. Barbero)과 1985년 출판본(Pasotti-Giovannini)에서 취한 것이다.
3. 페이지 여백에 볼드체로 된 일련번호는 바르베로G. Barbero 신부가 초판에 처음 매겼고, 그 후 출판본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일련번호는 문단이나 주요 내용을 가리킨다. 차례와 색인에서 페이지가 명확하게 제시된 번호를 제외하고는 이 일련번호를 언급한다.
4. 타자원고 본문에 나오는, 소문자에 밑줄을 친 것은 손으로 썼든 타자로 친 것이든 모두 '소제목'이다. 이들 소제목은 사체로 표시했다. 첨가한 부분은 볼드체(한국어 번역본은 명조체)로 표시했다. 큰 제목은 편집자가 추가한 것으로, 기본 골격을 세분하고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5. 알베리오네 신부가 쓴 본문은 늘 그렇듯이—그러나 여기서는 대부분, 활용한 메모지의 단편적 성격 때문임—가끔 결점을 드러낸다. 곧 철자법, 구두점과 문장 구조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다. 그래서 저자가 특별히 의도한 곳 외에는 이니셜 사용과 구두점 표시 등을 가능한 한 통일시키려고 노력했다. 몇몇 생략된 곳은 가장 유사하다고 추정되는 의미를 대괄호[ ]에 넣어 문장을 완성하거나 각주에 넣어 가능한 한 재구성을 시도했다.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머리말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1]’ 1

여러분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그가[2]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바오로가족[3]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중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4]라는 아름다운 대영광송을 노래하기 위한 하느님 자비의 역사다.

---

1. 이 표현은 에페소서(2,7)에서 발췌한 것으로, 타자원고 첫 장 상단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직접 썼다.
2. 저자는 자신에 관한 것을 3인칭으로 이야기한다.
3. 이 이야기를 쓴 1953년 12월, 바오로가족은 네 개의 수도회, 곧 성바오로수도회(1914년 8월 20일 창립), 성바오로딸수도회(1915년 6월 15일),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1924년 2월 10일), 선한목자예수수녀회(1938년 10월 7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어서 사도의모후수녀회 또는 Apostoline(1959년 9월 8일)가 창립되었고, 네 개의 병설재속회(1960년 4월 8일)로 예수 사제회(교구 사제를 위해), 대천사가브리엘회(청장년 남성을 위해), 성마리아영보회(미혼 여성을 위해) 그리고 성가정회(부부와 가정을 위해)가 창립되었다.
4. 루카 2,14과 「로마 미사전례서*Missale Romanum*」, Ordo Missæ 참조.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목 없는 역사다. 따라서 "수많은 게으름과 죄, 마음 상해드린 것 때문에"[5] 새롭고 통회에 찬 '미세레레'[6]를 작시할 필요가 있다.

주의 깊게 성찰한 이 두 번째 역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그는 마리아와 성 바오로의 전구로 완전한 용서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묵상하며 매일 눈물을 흘린다.

2 이 두 번째 역사는 그에게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그는 이 확신을 살아 있는 기도가 되게 했다. 곧 모두가 성 바오로를 아버지, 스승, 귀감, 창립자로 여겨야 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바오로 가족은] 그분을 통해 태어났고, 그분에 의해 양육되었고 성장했으며, 그분에게서 정신을 받았다. 뼈만 앙상한 가엾은 그는[7] 하느님 뜻의 한 부분은 완수했지만,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에게서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무대에서도, 기억에서도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마치 미사가 끝나면 사제가 제의를 벗고 하느님 앞에 본래의 모습으로 서는 것과 같다.

3 나는 자주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말한다.[8] "아버지, 제가 하늘과

---

5. *Missale Romanum*, Ordo Missæ: "Suscipe…"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가 미사 전례서 본문을 수정한(negligentiis=태만 죄) 부분은 그가 자주 성찰하던 주제 중 하나였다.(*Paolo Apostolo*, ediz. a cura di G. Di Corra-do, Roma 1981, nn. 13, 18, 27, 36 등 참조)
6. 시편 51편 참조.
7. 앞에서는 주어가 성 바오로였지만, 이제 다시 알베리오네 신부가 주어다.
8. 이 단락은 저자의 자필 첨가인데, 여기서는 1인칭 단수를 사용했다. 복음서의 본문은 루카 15,18-19(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발췌한 것이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Pater, non sum dignus vocari filius… peccavi in cælum et coram te… abbimi come servo." 나는 이 훌륭한 바오로가족에 지금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종으로 속해 있기를 바란다. 하늘나라에서는 성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9] 가장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겠다.

4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Convivificavit nos in Christo Iesu: et conresuscitavit; et consedere fecit in cælestibus: ut ostenderet in sæculis supervenientibus abundantes divitias gratiæ suæ in bonitate super nos in Christo Iesu."(에페 2,5-7)[10] 하느님은 당신의 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의 새로운 천사들인 수도자들을 통하여 은총의 풍성한 부[11]를 바오로가족에게 아낌없이 부어주

9.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et] in Christo in Ecclesia"; 참조: 1코린 1,2; 에페 3,21.
10. 불가타(Vulgata, 대중라틴어성경)의 완전한 인용은 다음과 같다.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Et cum essemus mortui peccatis, convivificavit nos in Christo, cujus gratia estis salvati, et conresuscitavit et consedere fecit in cælestibus in Christo Jesu…."(에페 2,5-6)

셨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널리 알려지도록"[12] 당신 사랑과 똑같은 지혜로써 바오로가족 안에 많은 부富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13]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를 '마니피캇'으로 인도한다.[14]

5 지금 이 작은 바오로가족을 생각하면 빗물, 얼음녹은물[15], 여러 작은 샘물이 흐르면서 불어나는 하나의 물줄기에 비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물줄기는 비옥한 평야에 물을 대고 전력, 전열, 전광을 생산하도록 나누어진다.

6 그는 물을 계곡에 모아들이는 일을 주도했다기보다 거의 '따르는' 처지에서 이를 도왔다. 후에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나라에 이 물을 분배할 때에도 그는 하느님의 뜻을 따랐다. 이제 그는 이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느님의 영원한 행복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 다시 모아지기를 고대한다.

---

11.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 바오로의 이 표현에서 하느님이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과 바오로가족 안에 드러내신 사랑의 온갖 신비를 묘사해 주고 열어주는 핵심단어를 발견한다.
12. …ut innotescat per Ecclesiam multiformis sapientia Dei. 에페 3,10 참조. 완전한 인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Ut innotescat principatibus et potestatibus in cælestibus per Ecclesiam multiformis sapientia Dei."
13. 1코린 3,22-23 참조.
14. 루카 1,46-55 '마니피캇' 참조.
15. 본문에서는 sgelo를 사용했는데, 이는 곧 disgelo(해빙)의 동의어다.

I. 초창기의 은총. 성소와 특별한 사명

'더 큰 은총의 순간들' : 사제성소 7

그에게는 성소와 특별한 사명을 결정짓게 한 더 큰 은총의 순간이 몇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사제성소, 두 번째는 삶의 특별한 방향, 세 번째는 가톨릭 신자 조직에서 수도자 조직으로 생각을 바꾼 것이다. "하느님과 마리아께 감사!Deo gratias et Mariæ!"

8[1]

그는 1890-1891[2] 학년도의 어느 날을 기억하고 있다. 교사의 본 **9**
분을 실행함에 있어 아주 섬세하고 매우 선한 하느님의 참된 장미 카르도나Cardona 선생[3]이 80여 명 중 몇 명의 학생에게 장래에 무

1. 1971년 출판본에 8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세페 바르베로(Giuseppe Barbero) 신부가 이 위치에 삽입한 단락을 다시 그 본래 위치인 46번으로 옮겼다.
2. 6세인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1890-1891년에 Cherasco(Cuneo)에서 초등학교 하급반인 1학년에 다녔다.
3. Rosina Cardona는 Torino에서 출생했으며, 젊은 시절에 Cherasco로 부임하여 이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자기 생애를 보냈고, 그곳에서 1917년 3월,

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는 두 번째로 질문을 받았는데 잠시 생각한 다음, 빛을 받았음을 느끼고는 단호하게 대답하여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저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격려해 주었고 많이 도와주었다. 이것은 분명 최초의 빛이었다. 그전까지는 영혼 깊숙이에서 그러한 약간의 경향을 느꼈지만, 이렇다 할 실천이 따른 결과는 없었다. 그날부터 친구들과 때로는 형제들까지도 그를 '사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때로는 그를 놀리기 위해, 때로는 의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이 일은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 공부, 신심, 생각, 태도, 심지어 놀이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향했다.

가정에서도 그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목표를 향해 그와 관련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위험에서 그를 구해주었다.

10 그날부터 모든 것은 그에게 이러한 결심을 굳혀 가게 했다.

그것은 늘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지켜주던 어머니[4]의 기도와 자기 제자 중에 누군가가 사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늘 주님께 청하던, 매우 신심 깊은 여선생의 기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60세에 선종했다.(*Gazzetta d'Alba*, 1917년 3월 24일 참조) 1891–1892학년도에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초등학교 상급반인 1학년에 다녔다. 등록된 학생 수는 88명이었다. 알파벳순으로 알베리오네는 세 번째였다.

4. 어머니의 이름은 Teresa Rosa Allocco(Alocco–Olocco)였다. 1850년 6월 7일 Bra에서 출생, 1873년 2월 11일에 Michele Alberione(Albrione)와 결혼했다. 1904년 11월 26일 남편의 사망으로 미망인이 되었다. 1923년 6월 13일 Bra에서 선종했다.

그는 당시의 관행을 거슬러 친구들보다 빨리 첫영성체를 했다.[5] **11**

그리고 풍부한 영성, 지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본당신부[6]는 그가 **12**
제대에 오르기까지 늘 그를 도와주었고 동반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바오로가족을 위한 첫 계획을 축복해 주기도 했다.

빛의 밤: *특별한 사명* **13**

전 세기와 금 세기를 가르는 밤[7]은 앞으로 그의 사도직을 탄생시키고 살아가게 할 특수 사명과 특별한 정신을 위한 결정적인 밤이었다. 자정 장엄미사 후 (알바) 주교좌 성당에서는 현시된 예수님 앞에서 장엄한 성체조배[8]가 계속되었다. 철학과 신학 과정 중에 있

---

5.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아마 1892년 부활 전에(그 해는 부활절이 4월 17일이었다) Cherasco 성 안에 있는 본당인 San Martino 성당에서 첫영성체를 했다. 견진성사는 Alba의 주교 Mons. Giuseppe Francesco Re (1848–1933)의 집전으로 1893년 11월 15일에 받았다.
6. 본당신부는 Giovanni Battista Montersino(1842–1912)였는데, 그는 1874년부터 Cherasco의 San Martino 성당 주임사제였다.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1884년 4월 4일 San Lorenzo di Fossano(Cuneo)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날 유아세례를 받았다. 얼마 후 그의 가족은 Cherasco(Alba 교구) 지역으로 이사했다. Cherasco에서 Giacomo는 Ginnasio(1895–1896) 1학년 과정을 이수했다. 그 후 Bra 대교구(Torino 교구) 신학교로 전학했고, 거기서 Ginnasio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했다(1896–1900). 1900년 가을에 Alba의 신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철학과 신학 과정을 이수했다. 1902년 12월 8일에 착복을 했다. 1907년 6월 29일 Alba 주교좌 성당에서 Mons. Giuseppe Francesco Re 주교에게서 사제수품을 받았다.
7. 1900년 12월 31일과 1901년 1월 1일 사이의 밤이다.
8. 성체조배는 철야 성체흠숭회(Opera dell'Adorazione Notturna)가 후원했는데, 이 단체는 이러한 목적으로 교황의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참조: A.F. da Silva, 「알베리오네 신부 사상 안에서의 영신수련 여정*Il cammino degli*

는 신학생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머물러 기도할 수 있었다.

14 이보다 조금 앞서 (그가 난생 처음으로 참석한) 한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는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토니올로[9] 씨의 연설을 잘 알아들었다. 그는 지금 시작하려는 세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교황 레오 13세[10]의 권고문을 이미 읽었다. 레오 13세도, 토니올로씨도 모두 교회의 필요, 악의 새로운 수단, 인쇄에는 인쇄로, 조직에는 조직으로 대항할 의무, 대중 속에 복음을 침투시켜야 할 필요성, 사회문제 …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15 성체로부터 특별한 빛이 왔고, "모두 나에게 오너라."(마태 11, 28)[11] 하는 예수님의 초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위대한 교황의 마음, 교회의 초대, 사제의 진정한 사명을 이해할 수 있을

Esercizi Spirituali nel pensiero di Don G. Alberione」, 바오로 영성센터, Ariccia 1981, p. 42s; 그리고 R.F. Esposito, 1900-1901의 세기적인 희년과 회칙 'Tametsi futura' : *Il Giubileo secolare del 1900-1901 e l'enciclica Tametsi futura*, in *Palestra del Clero*, 1996년 3-4월호, 169-196, 그밖에 폭넓은 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9. Giuseppe Toniolo는 가톨릭 사회학자요, 경제학자(1845년 3월 7일 Treviso에서 출생, 1918년 10월 7일 Pisa에서 선종)로서, 그리스도교 사회사상의 대가 중 한 사람으로, Opera dei Congressi의 고무자요 '국민 연합Unione Popolare'의 국내 초대회장이다.(AD 60 이하 참조)
(Opera dei Congressi는 1874년에 창립된 이탈리아 가톨릭 조직의 하나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사회에 전파하여 그리스도인의 애덕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가톨릭 활동 단체이다. -역주)

10. Leone XIII(Gioacchino Vincenzo Pecci, 1810-1903)는 1878년 2월 20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회칙 *Tametsi futura prospicientibus*(in Acta '사도좌 관보' 20, 294-314)는 이 기념비적인 '밤'이 있기 2개월 전인 1900년 11월 1일에 반포되었다.(R.F. Esposito, art. cit. 참조)

11. "venite ad me omnes."

것 같았다. 반대자들이 이용하는 수단을 사용하면서 오늘의 사도가 되어야 할 의무에 대해 토니올로씨가 역설한 내용이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아야 할 새로운 세기의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의무를 깊이 느꼈다.

16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더욱 분명하게 자각하였고, 동시에 성체 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12]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며, 성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 양식, 위로, 악에 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도 깨달았다.

17 생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동안 그는 새 세기에 관대한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리라는 것과, 조직에 가담함으로써 토니올로씨가 수없이 되풀이한 것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결하시오. 적이 우리가 제각기 따로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한 번에 한 명씩 우리를 넘어 뜨릴 것입니다."[13]

---

12. "vobiscum sum usque ad consummationem sæculi." 완전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Et ecce ego vobiscum sum omnibus diebus usque ad consummationem sæculi."
13. 노동자들을 계급투쟁으로 선동한 Karl Marx(1818-1883)의 외침을 기억하라.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공산주의 선언문*Manifesto del Comunismo*」, 1848). 베를린 국회에서 Marx의 동료의원이자 반대자였던 사람은 유명한 Magonza(곧 Mainz)의 주교, Wilhelm von Ketteler(1811-1877)로서 그리스도교 사회 센터(Centro cristiano sociale)의 대표위원이었다.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들은 가톨릭 신자의 일치에 대한 그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그는 'Volksverein: 국민 연맹'과 Unione di Friburgo의 리더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토니올로씨도 있었다. Ketteler 주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초기 바오로인들에게 친숙한 분이다. "성 바오로께서 오늘 살아계셨다면 저널리스트가 되셨을 것입니다."

18 그는 이미 동료 신학생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더불어, 그들은 그와 더불어 모두 감실에서 길어내고 있었다.

19 장엄미사 후 4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다. 이 세기가 성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기를, 새로운 사도들이 법, 학교, 문학, 출판물, 관습을 쇄신하기를, 교회가 선교에 새로운 비약을 하기를, 사도직의 새로운 수단이 선용되기를, 참사위원 키에사Chiesa 신부[14]가 신학생들에게 해설한 레오 13세의 회칙에 담긴 위대한 가르침, 특히 사회문제와 교회의 자유에 관한 가르침을 사회가 받아들이도록 기도했다.

20 성체, 복음, 교황, 새로운 세기, 새로운 수단, 교회에 관한 파가누치 백작[15]의 가르침, 새로운 사도들의 필요성 등이 지성과 마음에 확고히 뿌리 내리게 되었고, 그 후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그의 생각, 기도, 내적 활동, 열망을 지배하게 되었다. 교회와 새로운 세기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21 아침 10시경 한 신학생(나중에 참사위원이 된 루이지 죠르다노)[16]이

---

14. Francesco Chiesa(1874–1946)는 사제요, 알바 신학교 교수이며, 성 다미아노 성당 주임신부. 1987년 12월 11일에 가경자로 선포됨. A. VIGOLUNGO, *Nova et vetera, Can. Francesco Chiesa*, Edizioni Paoline, Alba 1961; L.M. ROLFO, *Il buon Soldato di Cristo*..., Edizioni Paoline, Alba 1978; E. FORNASARI, *Ho dato tutto*…,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 1993.
15. Giovanni Battista Paganuzzi(Venezia, 1841–1923)는 백작, 변호사, Opera dei Congressi의 회장.

그와 마주치면서 놀랐으니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도록 놓아둘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이러한 생각이 독서, 공부, 기도, 양성 전체에 영감을 주었다. 생각이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나 차츰 분명해졌고, 해가 갈수록 구체화되어 갔다.

자기 구원을 위해 그리고 더 풍성한 사도직을 위해 전 인격, 곧 **22**
정신, 마음, 의지를 계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다. 마치 그가 친구 보렐로Borello(1904)[17]의 묘비에 기록하고 싶어한 것처럼.

창립 계획: *조직에서 수도 공동체 삶으로* **23**

처음에 그는 가톨릭 저술가, 기술자, 서점원, 판매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가톨릭 조직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18] 방침, 일, 사도직 정신… 을 주려했다.

1910년경 결정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한층 더 밝은 빛 속에서 **24**
저술가, 기술자, 프로파간다스타이되 '남녀 수도자'여야 함을 보

16. Luigi Giordano는 1878년 Cortemilia(Cuneo)에서 출생, 1903년 6월 28일 사제로 수품되었으며, 1939년 12월 30일에 선종.
17. 이 단락은 타자원고에 자필로 첨가되었다. Agostino Borello는 1883년 10월 20일 Govone의 Canove에서 출생, 신학생으로서 1902년 6월 2일에 선종. 알베리오네는 장례미사에서 그를 기리는 감동적인 추모사를 바쳤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Sono creato per amare Dio*」(젊은 시절의 일기와 글들: Diario e scritti giovanili) G. Barbero 감수, pp. 73-85 참조.
18. 여기서 접속사 '그리고'는 관계대명사 '그들에게'(ai quali) 대신 사용했다.

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람을 최고의 완덕, 곧 복음적 권고까지 실천하는 사람들의 덕인 최고의 덕과 사도적 삶으로 공덕을 얻도록 인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직에 더 나은 일치, 더 나은 안정성, 더 나은 지속성, 더 나은 초자연성을 부여한다.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되 수도생활 조직일 것. 이 조직에서는 힘이 결집되고, 헌신은 전면적인 것이 되며, 가르침은 더 순수해질 것이다. 정신, 힘, 마음[19]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20]라는 하느님의 상급으로 만족하며, 교회를 위한 일에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들의 단체.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일부는 순례하는 지상교회에 속하고, 일부는 승리한 천상교회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다.

25 매일 아침 주님께 성작을 들어 올려 바치는 기도 중에 첫 번째 생각은, 지금(1953년 12월)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한 협력자들에 관한 것으로 그들의 지적, 영적, 경제적 협력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바오로가족이었다. 이는 스승 예수님이 매일 기꺼이 들어주시는 지향이었다.

26 1922년경, 최초로 지은 집에 입주하자마자[21],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22] 200이라는 숫자가 써 있

19. 마르 12,30 참조. 저자는 '정신 의지 마음'이라는 도식에 상응하도록 마르코복음의 인용을 수정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를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위치로 옮겼다.
20. 마태 19,29 참조.
21. via Vernazza에 세 들어 있던 집에서 성 바오로 집(Casa San Paolo)의 첫 건물로 본거지를 옮긴 것은 1921년 8월 10일이었다.

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모두를 사랑하라. 관대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탈선하는 사람들과 퇴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라. 더 훌륭한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다." 200이라는 숫자는 그가 들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고통은 마음속에 박혀 있는 가시처럼 언제까지고 그에게 남아 있었다.[23]

하느님의 활동과 *'이중의 순명'*

하느님은 바오로가족 안에 많은 부富, 곧 '풍성한 은총divitias gratiae'[24]을 드러내셨다. 어떤 부富는 사건의 자연적 결과처럼, 다른 부富는 바오로가족의 준비기, 곧 탄생과 유년기를 동반해 준 빛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가르침, 또 다른 부富는 하느님의 활동으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27**

---

22. AD 151 이하 참조.
23. '마음속에 박혀 있는 가시 같은'(2코린 12,7 참조) 이 '고통'은 병행되는 1938년의 이야기에 비추어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땅을 구입해야 했을 때, 젊은이들이 이곳에 놀러 왔다. 나는 위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뜻인지 헤아려 보았다… 그러다가 한순간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았다. 집이 건축될 때까지 태양이 빛났다. 그런 다음 태양이 가리워졌는데,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께 부르심 받았다가 나중에 성소를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MV 138) 여기서 저자가 첨가한 자필원고에는 '200'이라는 숫자에 대한 모든 언급이 배제되어 있다.
24. 에페 2,7: 앞에 나온 AD 4와 해당 각주 참조.

28 주님은 가끔 그가 본능적으로 반감을 느끼는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아버지처럼 강요하셨다. 이와 비슷하게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종의 자극제가 되어주셨다. 일반적으로 본성과 은총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결합되어 작용했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29 더욱 큰 평온과 확신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 바오로가족의 시작처럼 계속적인 걸음도 언제나 이중의 순명을 통해 진행되었다. 곧 영적 지도신부[25]가 확증해 준 성체이신 예수님 발치에서 길어낸 영감 그리고 교회 장상들이 명시한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30 시작할 때가 되자 주교[26]는 그에게 교구 출판에 종사하도록 책임을 맡기면서 하느님의 때를 알렸다. (그[27]는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교구 출판[28]은 사도직의 길을 열어주었고, 발전하게 해주었다. 주교는 일의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교구에 봉사하는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그의 요청에 동의했다. "신부님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하신 일에

25. 프란치스코 키에사.
26. 당시 주교는 이미 여러 번 각주에서 인용한 주세페 프란치스코 레 주교였다. 1848년 12월 2일 출생, 1889년 12월 30일에 알바의 주교로 선임, 1933년 1월 17일 선종.
27. 괄호 안에 삽입된 주어는 분명히 알베리오네 신부다.
28. '교구 출판', 다시 말해서 저자가 암시한 신문은 「가제타 알바」로서, 1879년부터 1889년까지 알바의 주교였던 Mons. Lorenzo Pampirio가 1882년에 창간한 주간지다.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이 정기간행물의 편집을 맡긴 것은 1913년 9월 8일 저녁이었다.

전념하십시오."

그는 교구에 상당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기에 괴로워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를 요청했고, 영적 지도신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단언했다.

2) 그는 묵주기도 없이는 단 한마디의 격려도 할 수 없다고 생각 **31**
했다. 동시에 좀 더 덕이 있고 덜 심약했다면[29]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3) 수도회[30] 회원들과 외부인들이 그의 헤아릴 수 없는 부족을 보 **32**
충해주었다. 그뿐 아니라 한 가지 비밀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바오로가족은 주님이 원하셨고 당신의 지혜와 선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했다는 분명하고도 수많은 표지를 지니고 있다.

첫 평가: *바오로가족 간의 관계*[31] **33**

주님은 우리 수도회가 넷이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한데 모으니…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 되니 우리 마음 갈라질까 조심하세."[32]

---

29. 'Minor pusillanimità: 덜 심약함'. 저자는 타자원고에 덜 심약함이라는 표현을 첨가했다.
30. 여기서 말하는 '수도회'는 그가 점차적으로 창립한 모든 수도단체를 의미한다.
31. '바오로가족'(복수 표현이지만 곧 단수로 바뀌면서 수도회 모두를 지칭한다)이라는 표현은 즉시 '수도회들'이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된다. 1953년 말경 이미 열거한 네 개의 수도회가 있었다. 사도의모후수녀회와 병설 단체들은 아직 없었다.

34 바오로가족은 모두 감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밀접한 친족관계로 결속되어 있다. 정신은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두를 대신하여 감실 앞에서 전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높은 단상에서 가르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은 각 사람에게 다가간다.

그들 사이에는 영적·지적·윤리적·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있다.

35 통솔과 경영관리는 분리되어 있으나 성바오로수도회는 다른 세 수도회의 '양육자altrice'[33]다.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혈연의 유대보다 더 고귀한 사랑의 밀접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독립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와 도움을 주고받는다. 활동은 분리되어 있지만 기쁨과 고통 그리고 영원한 상급에[34] 동참할 것이다.

---

32. "Congregavit nos in unum Christi amor … Simul ergo cum in unum congregamur, ne nos mente dividamur, caveamus."(*Messale Romano*, 주님 만찬 성목요일 봉헌송)
33. Altrice('àlere' = '양육하다'에서 유래). 곧 영양분을 주는 자. F. Pierini, "알베리오네 신부에 따른 바오로가족의 'altrice'인 성바오로수도회의 역할: R*uolo della Società San Paolo 'altrice' della Famiglia Paolina secondo Don Alberione*", in 「바오로 가족 안에서 일치의 직무*Il ministero dell' unità nella F.P.*」, Ed.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P., Roma 1987, pp. 135 참조.
34. '그리고 영원한 상급에'라는 표현이 자필원고에 첨가됨.

Ⅱ. 경험과 방향

청년기: 성소자 36

여름휴가 기간(1909–1918)에 어떤 수도회에서 대피정을 했다. 자유시간에는 각 수도회의 회원 모집과 양성 방법을 알기 위해 장상들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그리고 다른 직무를 위해 양성을 받은 나이든 이들보다는 젊은이를 택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게 되었다.

회헌(제21조, 제17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곧 일반적으로 젊은 37
지원자를 받아들인다. 관행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다[1]. 서원하기

1. 「성바오로수도회 회헌」, Roma 1950.
제21조: "제178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미래의 성직자가 될 회원을 수도회에서 양성시킨다는 의향이므로 규칙상 이미 서품을 받은 지원자를 입회시키지 않는다. 물론 제18조 제8항과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지킬 것이다."
제178조: "수도회는 면학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미래의 회원으로 준비시킨다. 이곳에서 지원자들은 그들의 성소를 위해 온갖 보살핌을 받으며 양성된다. 따라서 수도회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공부를 위해 적합한 집이 있어야 한다."

전에 몇 년 동안 살아보는 삶의 체험은 충분한 의식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젊은이를 준비시킨다.

38 바오로적 삶에서 실제적인 외적 극기는 적지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한다. 사실 사도직은 중노동이다. 관대한 헌신과 희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39 *하느님의 총애:* 제자인 수사

그 무렵[2] 성 바실리오, 성 베네딕토,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요한 세례자 [드] 라 살[3]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는데 이들을 따르는 남자 수도회에는 수사 지망 성소자가 아주 많았다. 이렇게 주님은 관대한 많은 사람을 이 세상 곳곳에 있게 하시어 그들을 당신께, 완덕에, 사제직 가까이에 부르신다. 누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어 그들을 특별한 성성으로 이끌어줄 애덕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느님의 총애를 받는 자녀인 이 젊은이들로 백합과 장미, 제비꽃 정원을 꾸밀 수 있을까?[4]

---

2. 이 기간을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저자가 1909년-1918년 사이에 어떤 수도회에서 대피정을 한 시기를 말하는 듯하다.(AD 36 참조) 그러나 사제생활 초기 몇 년(1907-1910), 또는 저자가 "교리교수법을 연구해야 했다."(AD 78 참조)고 한 때인 1910년-1914년, 남성 오라토리오(수도원에 속한 학교-역주)에서 일한 시기도 배제할 수 없다.
3. 아주 유명한 성인 창립자들 곧 S. Basilio(330-379년 경), S. Benedetto(480-547), S. Francesco d'Assisi(1181/2-1226), S. Ignazio di Loyola(1491-1556) 그리고 그리스도교 학교 형제회(Fratelli delle Scuole Cristiane)의 창립자인 S. Giovanni Battista de La Salle(1651-1719)이다.
4. '백합', '장미', '제비꽃' …: 공동체 기도 중에 매일 기억하는 복음적 덕의 상징적인 꽃들이다. '청원기도': "오 마리아, 이 집에 순결의 백합이…, 사랑의

그뿐 아니라 그들이 아직 사도직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과거에 수도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수도 사제들이 사람들을 돌보고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듯이, 오늘날 수사에게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사제직에 비길 만한 직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40**

글 쓰는 사제와 그 글을 증가시키고 보급하는 기술적인 일을 하는 수사가 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여러분은 … 임금의 사제단 … 거룩한 민족"[5]이다! 사제와 수사는 천상 화관을 준비하기 위해 같은 사도직으로 하나되고 수도생활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41**

이것이 바로 제자들Discepoli(수사들)[6]이다! 현대적 수단을 이용한 사제의 설교는 일반 직공들과 섞여 일하는 불편에서 벗어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 수사의 일은 사제의 활동을 들어높이고 기쁨에 넘치게 하며 증대시킨다. 하느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은 선포되며 사람들은 빛을 받는다. **42**

장미가…, 겸손의 제비꽃이… 피게 해주소서."(「성바오로수도회 기도서 *Preghiere della Pia Società San Paolo*」, 1922, p. 6 참조)

5. "Vos autem gens sancta, regale sacerdotium". 성경 본문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Vos autem genus electum, regale sacerdotium, gens sancta…."(1베드 2,9)

6. "성바오로수도회는 성직자와 수도자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성소에 따른 구분은 있으나 같은 수도회의 일치 안에서 각자의 소명, 적성 및 각자의 조건에 따라 같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수도자는 제자(Discepoli)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불린다" 「회헌」, 제6조 참조.

43 *하느님의 활동 방법*

섭리는 하느님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작용했다. "힘차게 그리고 감미롭게fortiter et suaviter"[7], 곧 당신 목적에 따라 길을 준비하고 한데 모으며 비추어주고 필요한 도움으로 감싸주며 평화롭게 당신의 때를 기다리게 하고, 언제나 구유에서 시작하게 했다. 은총은 본성과 쉽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작용하지만 분명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한다.]

44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다만 깨어 있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맡기며 여러 가지 의무 수행에 있어 정신, 의지, 마음, 육체적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5 인간은 언제나 자기 활동에 대해 많은 불완전함, 결점, 오류, 부족과 의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하느님 자비의 손에 맡기고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 그는 결코 섭리의 손길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의 표지를 기다렸다.

46 그는 선한목자예수수녀회를 위해 1908년부터 기도했지만 이 수도회는 30년 후에 시작되었다.[8]

---

7. "힘차게 그리고 훌륭히".(지혜 8,1 참조)
8. 목자수녀회,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목자예수수녀회(Suore di Gesù Buon Pastore)의 시작은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사실 1938년 10월 7일에 비로소 그들의 첫 공동체를 로마의 Genzano(Albano Laziale 교구)에 세웠다.

사실 그는 기록을 남겨놓는 습관이 없었고 많은 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싫기도 했는데 모든 면에서 면목 없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최후 심판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드러내시리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 더욱 기꺼이 맡기려 한다. **8***

때때로 그가 하려는 일에 대해 평온하고 침착하게 생각을 깊일 필요가 있었다. 주님은 그를 단기간 병상에 눕게 하셨다. 그는 하루나 이틀 방 안에 칩거한 다음 원기를 되찾고 나와서는 영적 지도신부에게 계획을 제시했다.(경우에 따라 수정하거나 보완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 권위기관에도 제출한 다음 일에 착수했다. 때가 항상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당신 종에게 일을 맡기셨다. 실수도 … 허락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으며, 후에 당신이 개입하시어 실수와 잘못을 고쳐주셨고, 또 그를 대신하여 일하셨다.[9] **47**

'대격변'과 *로마 정신* **48**

본수도회는 1914년[10] 대격변 가운데 탄생했다. 7월 말경, [그가]

8* 이 단락의 위치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이 자리에 삽입시키는 것이 타자원고 원본에 상응한다.

9. "또 그를 대신하여 일하셨다."고 자필로 첨가했다.

10. 알베리오네 신부는 7월 14일에 미래의 성바오로수도회에 대한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그는 주세페 프란치스코 레 주교에게 창립 기획안을 제출했다. 7월 20일 주교는 비공식적으로 구두 승인을 해주었다. 7월 24일 그는 알바의 케라스카 광장에 있는 Vittoria Degiacomi의 집 일부를 빌렸다. 7월 26일에 첫 인쇄기를 구입했다. 연이어 첫 젊은이들을 받아들였고, 간단한 예절과

인쇄소 구입 계약을 마치자마자 첫 선전포고가 있었고, 곧 이어 세계대전이 발발했다.[11] 프란츠 요제프Franz Joseph[12]는 비오 10세[13]의 평화를 위한 초대와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9 1900년까지 성직자 사이에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14] 한 편은 성좌의 지침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편은 마치니Mazzini, 카부르Cavour, 밍게티Minghetti…[15] 등의 자유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었다.

한 편은 옛 생활방식과 사목방법을 여전히 고수했고, 새로운 필요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으며, 다른 한 편은 사회주의의 발전을 염려하고 현대적 체계 · 조직 · 행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프리메이슨의 멍에를 뒤흔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다. 종종 그렇듯이 어떤 사람들은 활동을 과대평가하여 기도를 경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아메리카니즘은 단죄를 받았다.[16]

함께 성 베르나르도의 축일이요, 교황 비오 10세 서거일인 1914년 8월 20일을 창립일로 봉헌했다.

11. 사라예보 사건(합스부르크의 황태자 부부 암살)에 이어 오스트리아는 1914년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곧바로 독일과 러시아가 분쟁에 개입했고, 두 반대 진영에 군대를 배치했는데, 잇달아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개입하게 되었다.
12. Franz Joseph, 오스트리아의 황제(1830–1916).
13. Giuseppe Melchiorre Sarto, 1835년 6월 2일 Riese(Treviso)에서 출생, 1903년 8월 4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어 비오 10세라는 이름을 택함. 1914년 8월 20일에 서거, 1954년 5월 29일 시성.
14. AD 50–55 아래를 보라.
15. 이탈리아 정치가들로서, 이탈리아 국가통일운동의 주역들. Giuseppe Mazzini(1805–1872), Cavour의 Camillo Benso 백작(1810–1861) 그리고 Marco Minghetti(1818–1886).
16. 레오 13세가 1899년 1월 22일, Baltimore의 대주교에게 보낸 교서 *Testem benevolentiæ* 참조.

그 후 '사목활동'은 건설적인 길을 따르면서 비오 10세의 모범과 활동에 상응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비오 10세는 대중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매력적인 빛으로 나타났다. **50**

한동안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지식도 호평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가 독일 학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17]

문학 · 예술 · 교회 규율 · 저널리즘 · 신학 · 철학 · 역사 · 성경 등 모든 분야에 근대주의[18]가 급격히 확장되어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가 **51**

---

17. 저자가 자필로 쓴 쪽지에서 다음과 같은 초안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48-62항의 초고인 듯하다. "위대한 기획가인 레오 13세에 이어 실천적인 교황이 계승했다…."(AD 50.60-62 참조)
"제작을 혁신시킨 발견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은 겨우 유아기 또는 출산 과정에 있었고, 한편 조직 · 인쇄 · 학교는 헌법에 도입되거나 삶의 관습 안에 형성된 참된 힘을 지니고 있었다."(AD 54 참조)
"풍요로움은 환경에서 기인한다…."(AD 48 참조)
"성좌의 지침에 충실한 성직자와 자유주의에 물든 적지 않은 사제들이 있었다 …. 성직자는 여전히 예전의 사목방법을 고수하며, 조직 · 연합 · 현대적인 활동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 사목은 아주 현저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겪고 있었으니, 그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일로, 일부는 기도하지 않고 활동에 지나치게 열정적이어서 그 결과 아메리카니즘은 단죄를 받았고, 일부는 올바른 길에 충실했다."(AD 49 참조)
"근대주의는 정신, 출판, 삶 그리고 […]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젊은 성직자와 신학생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렸다."(AD 51 참조)
18. 근대주의는 20세기 초의 광범위한 철학적-신학적 운동으로, 성좌의 1907년 7월 3일자 교령 *Lamentabili*와 비오 10세의 1907년 9월 8일자 회칙 *Pascendi dominici gregis*에 의해 단죄받았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1907년 6월 29일 사제수품된 것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단죄가 그에게 그리고 그의 사도직 계획에 끼친 영향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찾아왔다. 특히 젊은 성직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길을 잃었다. 비오 10세의 깨어 있고 결단력 있는 활동이 선의의 사람들을 비추어 주어 제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

52 또 다른 관점은 새로운 발견이 많은 것을 변혁시켰다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악이 부의 분배와 소비, 생산의 모든 체계를 위협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어받은 자유주의 원리가 혼란을 가중시켰다.[19] 그 반동으로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주의가 폭넓게 확산되었다. 레오 13세는 여러 회칙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20] 특히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다.[21] 이 때문에도 성직자 사이에 새로운 분열이 일어났다.[22] 많은 사람이 경솔하게 물질적 행복으로 돌진했고, 성좌의 지침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23]

53 그 당시 정치적 측면에서 이 문제는 회칙 *Non Expedit*[24]와 (후에

---

19.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유주의 원칙은 경제 체계를 혼란시키는 악을 가중시켰다. 경제 자유주의(또는 '자본주의')가 그 반동으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20. 1891년의 사회문제에 관한 유명한 회칙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
21. 레오 13세, 1901년 1월 18일자 회칙 *Graves de Communi re* 참조.
22. 예를 들어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맡은 이로서 두 명의 사제를 들 수 있다. Romolo Murri(1870–1944)와 Luigi Sturzo(1871–1959)이다. 전자는 근대주의자로 단죄받았지만, 후자는 단죄받지는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이탈리아에서는 그리스도교 민주주의(Democrazia Cristiana)의 대부로 여긴다.
23. 사회주의 성향의 극단주의파의 구성원은 Ernesto Buonaiuti(1881–1946)와 소위 '로마 근본주의 그룹'이라고 불리는 사제들이었다.
24. 이 주제에 관해서는, Domenico Massè, *Il caso di coscienza del Risorgimento italiano dalle origini alla Conciliazione*, Società Apostolato Stampa, Alba 1946 참조.

비오 10세가 언명한 바와 같이) 국민과 조국의 최고선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많은 사람의 신념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양심의 문제'[25]로 대두되었다. 이 점에서도 분열, 토론, 아주 다른 입장 차이가 있었다.

54 사상을 전하는 새로운 수단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출판은 차츰 강력해지는 조직에 의해 힘을 받았으며, 영화는 처음에는 불신을 받았지만 더욱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학교는 믿지 않은 이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두고 논쟁하는 무대로 변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이미 발전한 상태로, 곧 출현할 터였다.

55 따라서 성좌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새로운 임무에 임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라고 초대하는 문헌을 연이어 반포했다. 무감각하고 무분별한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교황의 지침[26]에 따라 일하는 의식 있는 가톨릭 신자들과 성직자도 있었다.

---

25. 회칙 *Non expedit*(= non è conveniente: 적합하지 않음)은 비오 9세가 반포한 금령으로 1874년 10월 13일 이후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자들은 선거권자로든 피선거권자로든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했다. 이 금령은 이탈리아 정부가 로마를 점령함으로써(1870년 9월 20일) 교황령을 거슬러 행사한 권력남용의 결과다.
26. 참조: 「출판에 관한 교황 문헌*Documenti pontifici sulla stampa*」(1878-1963), Tip. Poliglotta Vaticana, s.d.;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교황 문헌*Documenti pontifici sulla radio e sulla televisione*」(1929-1962), Tip. Poliglotta Vaticana, s.d.; E. Baragli s.j., 「가톨릭 영화: 영화에 관한 성좌 문헌*Cinema cattolico: documenti della Santa Sede sul cinema*」, Città Nuova, Roma 1965.

56 성체 앞에서 묵상한 이러한 사건과 경험은 언제나, 오로지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로마 정신'이라는 확신이 무르익게 했다. 모든 것은 배움터가 되었고, 방향타가 되었다.

57 로마 정신을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다. 교황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모든 세기를 위해 밝히신 큰 등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초창기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사도직에 관해서는 교황께 순명'이라는 제4서원을 했다.[27]

58 ***사회정신***

섭리는 이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다(dispose).[28] 그것은 밀라노의 가톨릭 대학 창설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기부금을 모으는 일(1905-1906)이었다.[29]

59 사회학 강연회, 신학과정 중에 그리고 그 후 사회학 연구, 장상의 배려로 참여한 사회문제에 관한 여러 집회, 사회활동과 조직을 위한 협력[30], 가톨릭 액션 회원들 특히 마피 추기경,[31] 토니올로 교

27. 이 마지막 문장은 저자가 자필로 타자원고에 첨부했다.
28. 자필원고에는 dispose로 되어 있다. 반면에 타자원고에는 동사가 현재형(dispone)으로 되어 있지만 오타로 생각된다.
29. Milano의 성심 가톨릭 대학은 공식적으로 1921년 12월 7일에 설립되었고, 이탈리아 정부의 법적 승인을 얻은 것은 1924년 10월 2일이다.
30. 이러한 자료 전반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라. G. Barbero, cit, pp. 184-194.

수, 파가누찌 백작, 레차라Rezzara 회계사 등과 관계를 맺었다.

더욱 힘들었던 시기는 Opera dei Congressi[32]가 해산된 직후였다. 비오 10세는 독일의 예를 따라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Unione Popolare[33]로 이를 대체했다. 그렇게 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었지만 Unione Popolare 운동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신에 빠진 선의의 많은 사람 그리고 완고한 반대자들과 일해야 했다. **60**

이 문제에 관하여 「가제타 알바*Gazzetta d'Alba*」에 많은 글을 실었다.[34] 1911년부터 1914년에 걸쳐 Unione Popolare의 정착과 강 **61**

---

31. Pietro Maffi 추기경(1858–1931)은 Pisa의 대주교로서 알베리오네 신부의 위대한 예찬자요, 충언자였다. Toniolo와 Paganuzzi에 대해서는 AD 14와 20을 참조하라. Niccolò Rezzara(1848–1915)는 유명한 가톨릭 조직가였다.
32. Opera dei Congressi e dei Comitati Cattolici in Italia는 사회문제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의 주요 조직이었다. 1874년에 설립되었으며, 1904년 7월 30일 비오 10세는 이 단체를 해산시켰다.
33. '국민 연합Unione Popolare'은 Opera dei Congressi의 해산 이후에 교의, 보급, 사회 조직의 유일한 센터로 모든 사회 계층의 가톨릭 신자들을 모으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형성된 연합체였다. 1905년 6월 11일자 비오 10세의 교서 *Il fermo proposito* 참조. Unione Popolare를 독일에서는 Volksverein이라고 불렀다.(AD 17의 각주 13 참조)
34. A. Damino,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 목록*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 Edizioni dell'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amiglia Paolina, Roma 1994³, p. 187 참조. "사실 [1911년부터 시작하여] Unione Popolare에 관한 글이 무척 많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글쓴 이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고하였다'라는 표현은 모호한 채 남아 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글의 대부분은 Unione의 교구 분야 의장인 신학자 프란치스코 키에사 신부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 후 첫 재난 시기 동안 논쟁과 토론의 장이 된, *Gazzetta*는 종교적 가치를 수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고수하였고 '국민당Partito Popolare' 편을 들었다. 생기가 넘치

연 그리고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구 대부분의 본당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해야 했다. 거의 혼자였다. 두 사람은 주교의 지시를 받았다.[35]

62 시대를 민감하게 포착할 줄 알고 또 하느님의 인도를 받고 있던 비오 10세는 「적합하지 않음*Non Expedit*」[36]을 완화시켰다. [그는] 특히 가톨릭 신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일했고, 여러 해 동안 일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 성과는 선거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이 선거에서 국민당Partito Popolare[37]이 대단한 지지를 얻었기에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 파시즘[38]이 대두될 때까지 프리메

는 서평 또는 짧은 기사와 다양한 짧은 논고들은 비록 서명은 하지 않았어도 편집자, 곧 알베리오네 신부의 것으로 보인다."

35. 두 사람은 참사위원 키에사와 알베리오네 신부였다. 키에사 신부는 "농부들에게 설명한 국민 연합(Unione Popolare spiegata ai contadini)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 이 글은 1908년에 알바 인쇄소(이미 Paganelli 인쇄소가 됨)에서 팸플릿으로 출판하였으며, 한 부에 10 centesimi로 보급했다. 이 소책자는 1912년에 재판되었다. Unione Popolare를 위해 알베리오네 신부가 교구에서 이룩한 활동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정기간행물 「시사 주간*La Settimana Sociale*」(1908년 1월 19일자로 피렌체에서 창간), 1911년 11월 25일자 p. 5에, 두 명의 신학자 키에사 신부와 알베리오네 신부가 Unione Popolare에 관한 순회 강연을 한 알바 지역 마을 이름들이 길게 나열되어 실려 있다. 이 강연의 본문은 없지만 앞서 인용한 참사위원 프란치스코 키에사의 팸플릿을 토대로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36. 비오 10세는 위에서 인용한 1905년의 회칙 *Il fermo proposito*를 통해 정치 참여 금령인*Non expedit*를 폐지하고 가톨릭 신자들의 정치 참여 허락에 관한 권한을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위임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cattolici deputati)이 처음 탄생했지만, 아직 가톨릭 신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었다. 그 당시엔 아직 가톨릭 신자 정당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었다.
37. 이탈리아 국민당(Partito Popolare Italiano)은 앞서 인용한 Luigi Sturzo 신부(1871–1959)가 이끄는 그룹에 의해 1919년 1월 18일자로 작성한 "국가에 호소Appello al Paese"라는 선언을 통해 로마에서 창당되었다.

이슨[39]과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요새가 되었다.

활동과 기도는 정부·학교·법률·가정·계층 간의 관계 그리고 **63**
국제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리스도교 사회활동으로 방향지어졌다.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시기를! 바오로가족은 이에 대한 큰 직무와 책임이 있다.

보편성 **64**

보편성의 성인 '성 바오로'. 성 바오로에 대한 존경과 신심은 특히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 대한 연구와 묵상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그분의 인품, 성덕, 마음, 예수님과의 친밀함, 교의와 윤리적 가르침에 관한 그분의 업적, 교회 조직에 남긴 흔적, 모든 민족에 대한 그분의 열성 등이 묵상 주제가 되었다. 그는 바오로가 참된 사도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분에게서 모든 사도와 모든 사도직을 길어낼 수 있었다.

성 바오로에게 가족[40]을 봉헌했다. P.M.[41]의 치유도 성 바오로의

---

38. 1919년 3월 Milano에서 Benito Mussolini(1883–1945)가 시작한 정치운동으로서 1922년에 파시스트 민족당(Partito Nazionale Fascista)이 됨.
39. 신학생 그리고 사제로서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프리메이슨(Massoneria)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1884년 4월 20일자 레오 13세의 회칙 *Humanum genus*와 1884년 5월 10일자 성좌의 훈령 *Ad gravissima avertenda*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R.F. Esposito, 「1800년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프리메이슨과 이탈리아*La Massoneria e l'Italia dal 1800 ai nostri giorni*」, Edizioni Paoline, Roma 1969 참조.
40. 바오로가족의 두 수도회, 곧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특별한 주보는 성 바오로다. 그들의 영성도 성 바오로의 서간에 근간을 두고 있고 사

덕분이었다.

65 바오로가족은 공부 · 사도직 · 신심 · 활동 · 출판 등 모든 사도직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 출판은 모든 범주의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모든 문제와 사건은 복음의 빛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열망(바오로가족이 지녀야 할 열망-역주)은 미사에서 예수 성심이 바라시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요한 17,3 참조] 유일한 사도직을 통해, 모든 사도직과 모든 선행을 비추고 지탱하며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공적 · 사적인 모든 필요를 위한 적응과 이해의 정신, 모든 경신례, 법, 정의와 사랑의 공존, 곧 모든 문제에서 교회의 현존을 느껴야 한다.

66 5년 동안 매일 두 번씩 로르박허Rohrbacher[42]의 세계 교회사를, 또

도행전에서 도출된 사도적 삶에 토대를 둔다. 바오로가족의 다른 수도회나 재속회도 사도 바오로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그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

41. P.M. = Primo Maestro. "수도자성(Sacra Congregazione dei Religiosi)의 총무(1918년부터) 아빠스 세라피니 마우로(Abate, Serafini Mauro o.s.b., 1859-1925)는 창립될 성바오로수도회의 총원장 직함으로 '마에스트로'라는 칭호를 제안했다. 사실 1927년 3월 12일자 주세페 프란치스코 레 몬시뇰의 교서에서 창립자를 가리키는 성바오로수도회의 '프리모 마에스트로'라는 칭호를 발견할 수 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라는 이 칭호는 차차 친근하게 되어 'Signor Teologo'라는 칭호를 대신하게 되었다."(G. Barbero, *Nel XIX Centenario del martirio di S. Paolo: Il Sacerdote Giacomo Alberione e gli Istituti Paolini, in Palestra del Clero*, 46 [1967] 246-261 참조) 연이어(1929년 7월 28일) 창립자 스스로 바오로가족 회원들에게 자신을 '프리모 마에스트로'라 부르라고 했고, 여기서 창립자가 암시하는 '치유'는 1923년의 일이다.

42. Rene-François Rohrbacher(1789-1856)는 1842-49년 Nancy에서 방대한 「가톨릭 교회사*Histoire de l'Eglise catholique*」를 29권으로 발간했는데, 이 저서는 후에 Chantrel과 Chamard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다시 5년 동안 헤르젠뤼더Hergenröther[43]의 교회사를 읽었으며,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8년에 걸쳐 칸투Cantù[44]의 세계사를 읽었고, 세계 문학사·예술사·전쟁사·항해사·음악사·특히 법학사·종교사·철학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신학교 도서관의 사서 역할도 큰 도움이 되었다. 도서관에 고서 **67**
는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었으나 신간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돈을 융통하여 많은 신간을 구입하는 데 성공하여 가장 좋은 잡지, 백과사전과 가톨릭 학문에 관한 모든 사전을 구비할 수 있었다. 1960년부터 오늘까지 계속 애독하고 있는 「가톨릭 문화*Civiltà Cattolica*」 그리고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사도좌 관보*Atti della Santa Sede*」, 레오 13세의 여러 가지 회칙은 끊임없는 양식이었다.[45]

참사위원 키에사에게서 흠숭하고, 감사하며, 통회하고 청원하기 **68**

1876년에 출간되었고 후에 P. Balan과 C. Bonacina에 의해 레오 13세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계승되었다.

43. Joseph Hergenröther(1824–1890)는 1879년 추기경으로 서임되었고, 자신의 주요 저서 「세계 교회사 개요*Handbuch der allgemeinen Kirchengeschichte*」를 Würzburg에서 1876–1880년에 출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E. Rosa가 번역하여 Firenze에서 1907–1911년에 출간되었다.
44. Cesare Cantù(1804–1895)는 역사가, 문학가, 우국지사요 정치가로서 그의 저서 「세계사*Storia universale*」를 35권으로 1883–1998년에 출판했다.
45. *Civiltà Cattolica*는 이탈리아 예수회에서 발행하는 격주간지로, 1850년 4월 6일 창간되었다. *L'Osservatore Romano*는 1861년 7월 1일에 창간된 정치·종교 일간지로서 성좌의 공식 신문이다. *Atti della S. Sede*는 아마도 *Acta Sanctœ Sedis*를 가리키는 것으로, 1909년에 *Acta Apostolicœ Sedis, Commentarium officiale*가 이를 계승하게 되었고, 현재 성좌의 공식 관보로 출간되고 있다.

위해 천상 스승 곁에서 모든 것을 묵상과 기도의 주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배웠다.

69 출판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첫째는 성직자, 어린이, 젊은이, 대중 그리고 교사처럼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들을 위한 봉사에 이어 선교, 사회문제, 지적 문제 등에 관한 것.

70 바오로 정신을 지닌 출판은 성 바오로가 표현한 것과 같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2티모 3,12)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언급한 다음, 필리피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필리 4,8-9)[46]

71 ***전례정신***

[그에게] 굴리엘모 두란도Guglielmo Durando, 가반티Gavanti, 바린

46. "De cetero, Fratres, quaecumque sunt vera, quaecumque pudica, quaecumque iusta, quaeecumque sancta, quaecumque amabilia, quaecumque bonae famoe, si qua virtus, si qua laus disciplinae, haec cogitate. Quoe didicistis et accepistis, et audistis et vidistis in me, haec cogitate: et Deus pacis erit vobiscum." 9절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아마도 기억에 의존하여 인용하면서, 표현을 약간 변형시킨 것 같다. 정확한 본문은 다음과 같다. "Quæ et didicistis et accepistis et audistis et vidistis in me, haec agite…."

Barin, 데스테파니Destefani, 게랑거Guéranger, 카론티Caronti, 슈스터Schuster, 베네로니Veneroni, 에이센호퍼Eisenhofer, 르페브르Lefèbvre[47] 작품의 독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기간행물 *Ephemerides Liturgicæ*[48]와 *Rivista liturgica*(Finalpia)[49]도 도움이 되었다. 성가[50], 성무일도서, 전례 교육에 관한 비오 10세의 작품에서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

72 몇 년간 그는 전례를 가르쳐야 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전례 교수, 제의방 책임자, 주교 의식 담당자였고, 의식서를 준비하는 임무를 맡아 언제나 교회의 기도를 교회와 더불어 한층 더 깊이 음미했다.

73 그러한 임무는 아름다운 전례를 행하는 데 적합한 성당이 있어야겠다는 열망을 갖게 했다. 어느 날 주교가 심금을 털어놓았다. "나는 한때 즐겨 교의에 관해 설교했고, 그 다음에는 윤리적 가르

---

47. Guglielmo Durando(1230년경-1296년)는 Mende의 주교, 교회법 및 전례학자. Bartolomeo Gavanti(1569-1638), Luigi Rodolfo Barin(1883-1933), Gaspare Destefani(1884-1952), Prospère Guéranger(1805-1875), Emanuele Caronti(1882-1966), Alfredo Ildefonso Schuster(1880-1954, 현재 복자), Pietro Veneroni(1862-1935), Ludwig Eisenhofer(1871-1941), Gaspare Lefèbvre(1880-1966)도 전례학자들이다.
48. *Ephemerides Liturgicæ*는 1887년 로마에서 Calcedonio Mancini에 의해 창간된 전례잡지였다.
49. *Rivista Liturgica*는 Praglia(comune di Teolo, Padova)의 베네딕토수도회와 Finalpia(comune di Finale Ligure, savona)의 베네딕토수도회 회원들이 감수하여 발행한 것으로, 1914년 Emanuele Caronti가 시작했다. 이 잡지는 전례를 확고하게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으며, 후에 이탈리아에서 전례 운동의 공식 기관지가 되었다.
50. 비오 10세의 1903년 11월 22일자 자의교서 *Tra le sollecitudini* 참조.

침에 대한 설교를 선호했습니다. 요즈음엔 교의와 윤리의 가르침과 함께 이를 통합한 전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느낍니다." 이 말은 그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

74 그 결과 바오로가족은 그레고리오 성가와 성음악을 매우 중요시하게 되었다. 일찍이 [인쇄] 학교에서 준비중이던 미사경본[51] 그리고 주보 *La vita in Cristo e nella Chiesa*[52], 전례를 목적으로 창립된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53], 이 모든 것은 현실적인 그의 뛰어난 감각에서 전례를 고려하면서 착수했다. 성체 안에 계신 천상 스승은 바오로가족의 150개 성당[54]에 거처하신다.

75 *세 개의 주요 성당*

천상 스승Divin Maestro[55], 사도의 모후Regina Apostolorum[56] 그리고

---

51. 첫 미사경본은 라틴어 본문과 이탈리아어 번역문이 함께 수록된 것으로, 1935년 알바(cuneo)에서 출판했다. 바오로인 4명 곧 A.G. Colasanto, G.B. Chiesa, A.B. Nosetti 그리고 A.B. Segato가 편집하였다.
52. 본당 주보는 1932년에 발간되기 시작했다.
53.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Pie Discepole del Divin Maestro)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창립한 두 번째 여자 수도회다. 전례를 살고, 살게 하는 것을 주된 사도직으로 삼고 있다. 1952년부터 사목자를 대상으로 한 월간 전례잡지 *La vita in Cristo e nella Chiesa*를 발간하고 있다.
54. 이 통계는 당연히 1953년 말까지 집계한 것이다.
55. 알베리오네 신부가 Giuseppe Rosa(1875-1929) 신부와 함께 1915년부터 구상한 이 성당은 20년이 지난 후에야 성바오로딸수도회 모원이 있는 알바시 Borgo Piave에 건립되었다. 이 성당은 1936년 10월 25일 Mons. Luigi Maria Grassi에 의해 봉헌되었고, 나중에 본당으로 바뀌었다. 스승 예수께 봉헌한 다른 대성당은 Roma Via Portuense에 건립했는데, 이 역시 알베리오네 신부의 창안으로 이루어졌다.
56. 이 성당은 로마에 건립했는데, 현재 via Alessandro Severo에 있는 성바오

성 바오로[57]께 봉헌된 성당이 [건립되었는데], 세 가지 주된 신심[58]에 따른 것이다.

그는 종교예술을 가르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된 **76**
독서, 작품 관람, '생명 · 진리 · 선을 위한 예술'[59]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잡지의 논고를 [탐독했다.]

일찍이 그는 '그리스도교 예술의 벗'[60]이라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세 개의 성당은 여러 해 전에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77**
pastorale」에 발표한 원칙에 따라 건립했다.[61]

로수도회의 건물과 via Antonino Pio에 있는 성바오로딸수도회 건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1939–1945년 세계대전 중 성모 마리아께 어머니의 보호를 바라며 서약하고 지은 이 성당은 1945년에 건립하기 시작하여 1954년 11월 30일에 봉헌했다. 이 성당은 바오로가족 회원의 영적 일치의 중심인 기념 성당(Santuario)이요 소바실리카(Basilica minore)다. *Storia e arte del Santuario Regina Apostolorum*, Umberto Muzzin ssp 신부와 동료 협력자들, Roma 1969 그리고 *Il Santuario basilica Regina Apostolorum* G.B. Perego ssp, Roma 1985 참조.

57. 성 바오로 성당은 알바(Cuneo)에 있는 성바오로수도회의 모원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 중앙에 세워졌다. 1928년 10월에 전례의식을 시작했다. *Il tempio di San Paolo in Alba*, Storia e arte, a cura di G. Cinaglia ed E. Fornasari ssp, Alba 1988 참조.
58.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Ut perfectus sit homo Dei*」, II, 243–244 참조
59. 후기 낭만주의 지식인들이 주창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노선에 관련된 논쟁 문제에 대한 암시적 언급.
60. 1913년 Milano에서 'Amici dell'Arte Cristiana' 협회의 활동을 통해 *Arte Cristiana*라는 표제의 잡지가 창간되었다. 이 잡지의 영감자요, 창간자는 후에 추기경이 된 Mons. Celso Costantini(1876–1958)다. 이 잡지는 종교 예술 전반에 관한 사랑, 특히 전례예술에 대한 사랑의 촉진을 목표로 삼았다.

각 성당 건축은 모든 부분, 곧 건축 · 조각 · 그림 · 스탠드글라스 · 집기가 주제를 일관되게 전개하도록 설계도를 작성하여 건축가에게 주었다. 특별히 바오로인의 성당 건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78 *교리*

언제나 은총의 외적 활동과 내적 활동이 있었다. 신학생 시절 6년간을 주교좌 성당과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 성당의 교리교사로 있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교교육수도회(당시 그들은 알바에 있었다) 형제들에게서 교육학을 배우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 후(1910-1914) 교리교수법, 본당 내의 교리교육 조직, 교리교사의 영적 · 지적 그리고 교육학적 양성에 대해 공부해야 했다. 남성 오라토리오(oratorio, 수도원에 속한 학교-역주)에서 3년 동안 교리교사를 했고, 공립 고등학교에서 종교수업을 했으며, 교리경시대회에 참여하는 일 등을 [했다.] 이 모든 걸음은 우리의 비참함과 부당한 응답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사랑에 찬 섭리가 마련한 것이었다. "세상 끝에서 끝까지 퍼져가며 권능과 자애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지혜 8,1 참조][62]

79 교리교육에 관한 사도좌 관보, 좋은 교리교재, 교리교사 양성을

61. 「사목신학개요」 참조. 초판은 타자 복사판, 알바 1912. pp. 469-481에 'Costruzione di chiese'(교회건축)에 할애한 장이 있다. (AD 83 참조)
62. "attingit a fine usque ad finem fortiter suaviterque disponens omnia."(성무일도 12월 17일 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 참조)

위한 활동, 교리교수용 슬라이드, 괘도, 교리교수용 비품,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을 통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주교에게서 교구 교리교육 '프로그램'과 '학년별 교재'를 고안하기 위해 세 명의 사제로 구성된 교구 교리위원회에 초대받아 그는 교리교육에 관한 연구와 특수 사도직을 했다. **80**

그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라."는 말씀을 언제나 교리교수 활동을 우선시키고 근본적인 일로 여겼다.[63] 현재 이탈리아와 해외에서 바오로가족의 교리교육 활동은 점점 활발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81**

사목정신 **82**

바오로가족에게 주어진 이러한 부富는 성체이신 예수님의 활동과 빛을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순명으로 완수함으로써 다른 부富처럼 다가 왔고 성숙되어 갔다. 그는 특히 세 본당에서 사목했으며,[64] 여러 본당에서 설교, 고해성사, 강연, 가톨릭 활

63. 참조: G. Barbero, *Don Giacomo Alberione catechista e compilatore di catechismi*, in R.F. Esposito, *La Teologia della pubblicistica secondo l'insegnamento di Don Giacomo Alberione*, Edizioni Paoline, Roma 1970, pp. 203-207; in *Sussidi per la Catechesi*, 1972년 1-2월호; 마태 28,19; 마르 16,15.

64. 여기서 말하는 본당은 아마 알베리오네 신부가 1908년에 보좌로 있던 Narzole의 S.Bernardo 성당, Benevello의 S.Pietro in Vincoli 성당, Alba의 Ss. Cosma와 Damiano 성당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교좌 성당(AD 104 이하 참조)이나 Guarene의 본당일 수도 있다.(M.L. Ricci, *Madre M.*

동을 했다.[65]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직무에 접하면서 사목 경험을 쌓았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66]는 말씀을 그는 한층 더 생생하게 느꼈다. 사목자들을 위한 여성 협력자들, 곧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1908)[67]을 양성시키기로 생각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다.

83 2년 동안, 12명의 사제들과 함께 매주 회의를 하며 사람들을 돌보는 쇄신되고도 좋은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이에 관하여 문의했고, 15명쯤 되는 교구 지구장에게서 서면으로 조언을 받았으며, (그는 이것을 신학생들과 젊은 사제들에게 전하곤 했다.) 이러한 것이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68]라는 책(1913)의 결실이다. 리셸미Richelmy 추기경은 서문[69]에서 이 책에는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제시되어 있다고 표현했다.

84 바오로인 사도직의 사목적 특징으로 그는 두 분의 위대한 스승에

Scolastica Rivata, Roma 1996, p. 28 참조)

65. G. Barbero, *Storia della pastorale: pastorale pratica e pastorale teorica del sacerdote Giacomo Alberione(1884-1971)*, in *Palestra del Clero* 52 (1973) 311-317 참조.
66. 참조: 마태 28,19; 마르 16,15.
67. 이 수도회는 구체적으로 1936년에야 시작되었고, 1938년에 완성되었다. (AD 46과 해당 각주 참조)
68. 타자 복사판으로 된 이 '개요'의 초판은 1912년 8월 1일로 명기되어 있다. 재판(첫판본)은 1915년 Torino에서 Pietro Marietti에 의해 발간되었다.(AD 77 참조)
69. 1915년의 재판 p. VII에서, Torino의 대주교 Agostino Richelmy 추기경(1850-1923)의 칭찬과 격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추기경의 서문은 1913년 2월 2일자로 되어 있다.

게서 많은 것을 받았다. 곧 스워보다Swoboda의 「대도시에서 사람들을 돌봄*Cura d'anime nelle grandi città*」[70] 그리고 크리그Krieg의 「사목신학*Teologia pastorale*」[71] 네 권을 2년에 걸쳐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자신의 직무를 사도의 모후 마리아의 보호에 맡겼고, 신학생들과 젊은 사제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가르쳤다. **85**

그는 생생한 목소리로 교리교육과 설교를 하며, 기록된 하느님 말씀을 곁에 두라고 강조했다.(웅변학교: scuola di eloquenza, 1912–1915) 모든 범주의 사람, 특히 대중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86**

소금, 빛, 도시: 문화에 그리스도교 생기를 불어넣음 **87**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이다 …." 이는 천상 스승의 생각이다.[마태 5,13–14 참조].

구원하는 교의를 첫 자리에 둘 것. 복음이 사람의 모든 사상과 지식에 깊이 스며들게 할 것. 종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것. 신학 · 철학 · 문학 · 의학 · 정치 경제학 · 자연과학 등을 아우르는 가톨릭 종합대학과 같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교 방식으로 제시하고, 모든 것을 가톨릭 교회 관점

70. Enrico Swoboda(1861–1923)는 신학자이다. 그의 저서 이탈리아어판 *La Cura d'anime nelle grandi città*는 1912년 Roma에서 출간되었다.
71. Cornelio Krieg (1838–1911).

으로 방향지을 것.

88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학 · 교육학 · 지질학 · 통계학 · 예술 · 위생 · 지리학 · 역사 · 인류의 온갖 진보 등을 신앙에 입각한 이성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바오로가족이 주어야 할 것이다.[72]

89 1895년부터 1915년에 이르기까지 사회학 · 신학 · 수덕신학 분야에 많은 탈선[73]이 있었고, 이는 모든 진리와 교회의 토대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아니 교회를 파괴하려 했다. 특히 포가차로Fogazzaro의 「성인*Il Santo*」[74]이 좋은 예로서, 많은 이가 그 작품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처럼 간주했지만 후에는 금서가 되었다.

90 그에게는 모든 것이 배움터였다. 바오로가족의 첫째 관심사는 삶의 성화요, 그 다음은 교의의 성스러움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91 1904년에는 4개월 동안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학회를 준비

---

72. 이 방대한 프로그램을 실현하려는 첫 시도는 1930년대에 알베리오네 신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성바오로수도회 신학생들과 젊은 사제들로 구성된 한 그룹에 문학 · 과학 · 역사 등 학교 프로그램의 모든 과목에 관한 ginnasio 교재를 준비하는 임무를 맡겼다. 방법을 제시했고 실행이 뒤따랐다. 그렇지만 가장 큰 노력은 1950년대에 스승 예수에 관한 백과사전을 시작한 것이었다. AD 185–200 그리고 CISP 1195 이하 참조.
73. AD 49 이하 참조.
74. Antonio Fogazzaro(1842–1911)의 소설 *Il Santo*는 1905년에 출판되었고, 1906년 4월 5일의 훈령으로 단죄받았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L. Caronti, *Fogazzaro, Subiaco e 'Il Santo'*, Edizioni Paoline, Alba 1989 참조.

했다. 토론의 주제를 정하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신학생들을 지도했다. 전체적인 주제는 관념의 혼돈 한 가운데서 살펴보는 토마스의 근본 사상이었다.

그의 기념 강연은 25주년을 맞은 철학에 관한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Æterni Patris*」[75]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영적 유익과 인도를 받았다. 진리, 또는 적어도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떠한 성화도 없는데, 지성의 성화가 첫 걸음이다. 논리학 없이는 어떠한 방향감각도 지닐 수 없고, 형이상학 없이는 폭넓은 시야도 지닐 수 없으며, 교회 안이 아니면 그 어떤 길도 확실하지 않다. **92**

바오로 정신 **93**

바오로가족은 사도의 모후 눈길 아래 성 바오로의 정신으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살 것을 열망한다.

바오로가족에는 많은 특이한 점이나 별난 신심, 과도한 형식이 없다. 다만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 성 바오로의 정신은 그분의 삶, 그분의 서간, 그분의 사도직에서 드러난다. 그분은 언제나 교회의 교의, 윤리적 가르침, 경신례, 교회 조직[76] 안에 살아 계시다. **94**

75.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연구에 관한 레오 13세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 Æterni Patris」, 1879년 8월 4일, in *Acta* I (1878–1879) 255 이하 참조.

95 위대함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느님을 닮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일하고자 하는 생각, 곧 생명의 올리브 나무에 접목된 야생 올리브 나무[77]처럼 성체이신 그리스도께 접목되어야 한다는 생각, 성 바오로의 정신에 따라 복음의 각 구절을 묵상하고 양분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명확[해야 한다.]

96 그러므로 회헌[78]의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97 154조: "신심은 특별히 그리고 끊임없이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연구로써 키워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은 하느님을 지성, 의지, 마음과 행위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깊은 신앙으로 하느님을 흠숭하며 주님의 모범을 본받아 지혜와 은총과 덕행에 있어 성장해야 한다."

98 177조: "갖가지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연구는 언제나 길 진리 생명이신 우리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가 지성, 의지, 마음에 온전히 형성되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전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근면한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유능한 스승이 될 것이다."

---

76. AD 64 참조.
77. 로마 11,24 참조.
78. 「성바오로수도회 회헌」, ed. 1950.

224조: “출판물을 통하여 전해야 할 가르침은 성경, 성전 및 교 **99**
회의 가르침이라는 순수한 원천에서 길어낸 신앙과 관습, 경신례
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전 존재, 곧 지성, 의지, 마음, 육체 **100**
적 힘은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 곧 본성,
은총, 성소는 사도직을 위한 것이다. 성덕, 면학, 사도직, 청빈이라
는 네 개의 바퀴에 의지하여 달라는 마차.[79]

79. J. M. Galaviz H., *El carro paulino*, Mexico 1992; 이탈리아어판 *Il ‘carro’ paolino*, Ed.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P., Roma 1993 참조.

III. 창립을 향하여

101 1913년, 염원의 실현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철학과정에서 배운 역사, 특히 신학과정에서 배운 교회사는 여러 나라의 고통과 필요, 두려움과 희망, 특히 금세기(20세기-역주)의 필요에 상응하는 일과 수단의 필요성을 아는 계기가 되었다.

102 이러한 의미에서 두 개의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하나는 이탈리아를 위해,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 수도회를 일으켜 주시라고 주님께 청했다. 자카르도[1] 신학생

1.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저자는 여기서 사건들을 미리 언급하고 있다. 주세페 자카르도(Giuseppe Giaccardo)는 Narzole(Cuneo)에서 1896년 6월 13일 태어났다. 1908년 당시 그 본당 보좌신부였던 알베리오네 신부를 만났는데 그가 자카르도를 알바 신학교에 보냈다. 1917년 7월 4일, 신학생으로서 '인쇄학교Scuola Tipografica'로 옮겼고, 지원자들의 '마에스트로'로 임명되었다. 1919년 10월 19일에 사제수품을 받았고, 1921년 10월 5일 첫 사적서원을, 1927년 3월에 공적 서원을 했다. 그 해는 성바오로수도회가 교회 승인을 받은 해다. 그의 수도명은 Timoteo였다. 1948년 1월 24일 Roma에서 선종했고, 1989년 10월 2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복자로 선포되었다. 참조: G. Barbero, "Giaccardo Giuseppe Timoteo", in *Bibliotheca Sanctorum*, VI, Roma 1965, cc. 320-322; E. Fornasari, *Un profeta obbediente. Beato Timoteo Giaccardo…*, Edizioni Paoline, Alba 1989.

의 지도로 모든 신학생이 이 기도를 바쳤다. 마침 교회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2]의 평화 선언 1600주년을 거행하는 때였으므로 신학생들은 주님께 청하는 바를 더 잘 이해했다.

준비 **103**

그는 임박한 바오로가족의 시작을 염두에 두면서 언제나 회원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다. 회원은 젊은 남녀를 찾아내어 양성함으로써 준비해야 했다.

1908년에 그는 (학업을 앞당겨 마치고) 나르조레(Cuneo)에 부임 **104**
하여 9개월 동안 본당사목을 했는데, 그곳에서 지적·정서적으로 좋은 자질을 갖춘 소년들을 만났다. 그들 가운데 주세페 자카르도 Giuseppe Giaccardo는 신심 깊고 똑똑했다. 그를 신학교에 보내어 그 경비를 자신이 부담했다. 그가[3] 신학교의 영적 지도신부로 전임되어 알바로 옮겼을 때(1908년 말경) 바오로가족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면서, 특별히 그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전념했다.

베네벨로[4]에서 본당 청소년 피정을 지도하던 중 유난히 주의를 **105**

2. Constantinus는 306년에 황제가 되었고, 337년 5월 22일에 사망. 그리스도교 경신례의 자유를 위한 밀라노 칙령이 313년 6월 13일에 반포되었다. 1913년은 그 사건의 1600주년이다.
3. 여기서 주어는 알베리오네 신부다.
4. Benevello는 Castellinaldo(AD 106 참조)처럼 Alba(Cuneo) 주변의 작은 마을이다. 2년 간 바오로인의 삶을 산 후 거룩하게 죽은 마조리노 비고룽고(Maggiorino Vigolungo, 1904–1918)도 그곳 출신이다.

기울이고 있는 한 소년에 주목하게 되었다. 자세히 알아본 다음 그를 브라의 소신학교로 보냈다.[5] 그리고 성 요한 보스코[6]의 교육방법을 습득하도록 토리노에 있는 살레시오회에 위탁 교육을 시켰다. 그가 바로 아르마니 토르콰토Armani Torquato[7]였다.

106 카스텔리날도에서 다른 소년 코스타 데시데리오Costa Desiderio[8]를 알게 되었다. 그는 아주 좋은 가정 출신으로서 신심 깊고 착실하며 총명했다. 마침 첫 수도원을 여는 중이었으므로 그를 초대하였다. 그러자 그는 순순히 입회했다.

107 그는 신학생들의 영적 지도와 교사 임무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20세기 초에 교회가 직면한 절박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수월했다. 여러 요인과 학생들과의 친밀한 유대가 함께 작용하여 바오로회의 첫 수도원[9]을 개원했을 때 많은 학생이 입회를 청했다.

---

5. 타자원고에는 "초대했다"(invitò)로 되어 있는데 자필원고에서는 이와 다르게 "파견했다"(inviò)라고 되어 있다. 아마도 오타인 듯하다.
6. San Giovanni Bosco(1815-1888)는 위대한 교육자로서, '양서출판buona stampa' 분야에서도 활동했다.(L. Giovannini, Le 'Letture Cattoliche' di Don Bosco esempio di 'Stampa Cattolica' nel secolo XIX, Liguori, Napoli 1984 참조)
7. Torquato Armani의 수도명은 Tito, 1899년 5월 15일 출생, 1914년 8월 20일에 입회,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4년 12월 20일 사제수품, 1980년 12월 6일 Albano Laziale(Roma)에서 선종.
8. Desiderio Costa의 수도명은 Giovanni Crisostomo, 1901년 5월 3일에 Castellinaldo(Cuneo)에서 출생, 1914년 8월 20일 입회,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3년 12월 22일 사제수품, 1989년 1월 30일 Albano Laziale(Roma)에서 선종.
9. 타자원고에 나오는 형용사 'paolina'는 자필로 표시한 괄호 안에 있는데, 삭제를 표시하기 위한 'X'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수도원에서는 사도직을 위해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준비시키는 방법을 쇄신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떤 사람은 자원하고, 어떤 사람은 권유로 입회했다. 미묘한 상황[10]과 교구에 대한 사랑이 입회자를 제한시켰다.(그렇지만 교구의 사제성소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전쟁(1914-1918)이 끝나자 우수한 신학생들이 돌아왔는데 그들 **108**
은 새로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덕으로 굳건해졌고, 사도직의 폭넓은 이상을 지니게 되었다. 최전방 생활과 야전 병원에서의 생활은 충성심과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지니고 그들이 봉사한 그리스도인들과 조국의 새로운 필요성에 눈뜨게 해주었다.

트로소Trosso 신부, 보라노Borrano 신부, 페놀리오Fenoglio 신부, 로발도Robaldo 신부, 키아바리노Chiavarino 신부, 마네라Manera[11] 신

10. 신학교와 지역 성직자 일부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약간의 긴장상태를 암시한다.

11. Sebastiano Trosso: 수도명 Benedetto C., 1894년 9월 8일 Corneliano (Cuneo)에서 출생, 1920년 8월 28일 입회,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2년 6월 29일 사제수품, 1952년 10월 14일 Alba에서 선종. Pietro Borrano: 수도명 Francesco Saverio, 1901년 3월 18일 San Damiano d'Asti에서 출생, 1920년 7월 3일 입회,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3년 12월 22일 사제수품, 1993년 4월 16일 Canfield(U.S.A.)에서 선종. Angelo Fenoglio: 수도명 Francesco di Sales, 1893년 11월 25일 Gorzegno(Cuneo)에서 출생, 1920년 7월 12일 입회,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2년 6월 29일 사제수품, 1980년 1월 24일 Albano Laziale(Roma)에서 선종. Cesare Robaldo: 수도명 Giovanni Evangelista, 1896년 5월 24일 Gorzegno(Cuneo)에서 출생, 1920년 7월 12일 입회,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3년 6월 29일 사제수품, 1977년 5월 31일 Roma에서 선종. Giovanni Chiavarino: 수도명 Vincenzo, 1900년 12월 1일 Bossolasco(Cuneo)에서 출생, 1920년 7월 13일 입회,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3년 12월 22일 사제수품, 1994년 5월 12일 Alba에서 선종. Alfredo Manera: 수도명 Filippo, 1897년 2월 9일 Serravalle

부가 입회했다.

109 1911년부터 이미 수녀들을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성이 사제와 협력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12]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특히 출판 사도직, 사회(복지) 사도직 및 사목 사도직 분야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여성이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 곧 수녀일 때 이러한 가능성은 특별히 더 커진다. 이 책은 하느님의 때가 되어 사제들에게 여성 성소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이 청을 수락할 분위기를 준비했다. 사실 이탈리아어판과 여러 외국어판도 좋은 열매를 맺었다.

110 남성 성소자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유대관계와 만남 그리고 성직자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모든 본당신부에게 발송하던 「사목생활*Vita Pastorale*」[13]이 아주 유용했다.

Langhe(Cuneo)에서 출생, 1920년 입회,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3년 6월 29일 사제수품, 1941년 2월 9일 Roma에서 선종. 이러한 이름에, 자필원고에는 다른 두 명을 첨가했다. Giovanni Battista Ghione: 수도명 Agostino, 1893년 6월 30일 Cortemilia(Cuneo)에서 출생, 1920년 9월 21일 입회,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2년 6월 29일 사제수품, 1960년 2월 3일 Roma에서 선종. Giovanni Basso: 수도명 Agostino, 1896년 5월 3일 Roddino(Cuneo)에서 출생, 1921년 10월 5일 서원, 1922년 10월 15일 사제수품, 1976년 9월 7일 Alba에서 선종.

12. 초판은 Alba에서 1915년, la Scuola Tipografica에서 출판. Aa.Vv. *Donne e uomini oggi a servizio del Vangelo: 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 Ed. Centro di Spiritualità Paolina, Roma 1993 참조.
13. *Vita Pastorale*, 1916년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창간한 잡지다.

하지만 너무나도 새로운 이 성소에 관해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바오로가족이 모두에게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14] 여러 해가 흘러야 했다.

기사 자료와 필요에 따라 발간하던 정기간행물「협력자회지 *Unione Cooperatori*」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15]

14. "바오로가족이 모두에게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이라는 이 마지막 표현은 자필원고에는 빠져 있고, 타자원고에는 자필로 덧붙여 있지만 이어서 괄호 안에 들어갔다.
15. *Unione Cooperatori Buona Stampa*(1918-28); 나중에는 *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Stampa*(1928-1950), *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Edizioni*(1950년 3월), *Il Cooperatore Paolino Apostolato Edizioni* (1950년 9-10월)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Il Cooperatore Paolino*(1952년 이후)로 바뀌었다.

IV. 성장의 문제와 전망

111 첫 수도원 개설은 아직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는 많은 업무를 맡고 있었다. 180여 명의 신학생과 젊은이의 영적 지도, 교구 주보의 편집과 경영관리, 매주 13시간의 수업[1], 교구의 다양한 임무와 책임, 임박한 1914년의 재난 예고와 어두워지는 시대적 상황 등이었다.

112 게다가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폐결핵(TB)[2]이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주교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도에 방치할 위험을 안고 하나의 사명을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 너무 무분별한 행위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3]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당신보다 더 잘 배려해 주십니다. 신앙으로 전진하십시오."[4] 그

1. '매주 13시간의 수업'대신 'varie scuole'(여러 가지 수업)을 자필로 첨가함.
2. Tubercolosi(폐결핵),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겼다.
3. 자필원고에서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한 이의제기로서 영적 지도자에게'(이 문장은 나중에 삭제됨) 한 것으로 분명히 밝혔다.
4. 자필원고에는 답변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주님께서 당신보다 더 그

때부터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모두가 환상이 아닐까? 이는 몇 년 동안 [지속된] 영적 번민이었 **113**
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한 빛을 받았다. "너는 그르칠 수 있으나 나는 그르치지 않는다. 성소는 너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서 온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오로가족과 함께 있다는 외적 표지다."

세계를 향하여 로마로 **114**

먼저 로마에 양성소를 열었고[5], 10년 후에는 그도 로마로 거처를 옮겼다.[6] 알바에서는 이탈리아를, 로마에서는 특별히 외국을 목표로 삼았다.

결정적 동기는 명백하다. 바오로가족이 로마에 자리 잡은 까닭 **115**
은 성좌에 봉사하기 위함임을 더 잘 '느끼기' 위한 것이요, 사도직 활동과 정신, 가르침을 원천인 교황의 가르침에서 직접 길어내기 위해서다. 로마는 세계의 스승일뿐 아니라, 인류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으며, '파견받은 이들'은 로마에서 세계 각처로 떠나기 때문이다.

들을 생각하실 것이니, 이 일[…]을 마무리짓도록 오래 사실 것입니다."

5. 이 양성소는 G. Timoteo Giaccardo 신부와 Amalia Peyrolo 수녀(1899–1980)가 1926년 1월, Via Ostiense 75/E.에서 시작했다. 그후 다른 적합한 장소로 이전했다가 다시 Via Grottaperfetta로 이전했는데, 현재는 Alessandro Severo에 있다.
6. 알베리오네 신부는 1936년 여름에 Roma로 거처를 옮겼다.

116 이러한 생각은 국민 연합 대회Congresso dell'Unione Popolare[7]에 교구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가서 성 바오로의 무덤 곁에 머물러 기도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117 *확장*

가톨릭 정신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참조] 하신 하느님의 파견에서 나온 것으로 견진성사를 통해 부어졌고 사제수품으로 성장한다. 성 바오로는 위대한 여행자다.

118 여덟 살 때, 매년 주님 공현 대축일에 어린이들 사이에 모금과 기도를 하던 어린이 전교회[8]를 알게 되었고, 이에 마음이 끌렸다.

열두 살 때부터 열여섯 살까지 거의 매일 전교회 연보와 어린이 전교회 연보[9]를 읽었다. 그 후에는 살레시오회, 백의의 사제회[10], 위

---

7. 이 상황은 아직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아마도 이 여행은 1911년에 했을 것이다. 그러나 U.P.가 로마에서 세 개의 교구 연합(Giunte Diocesane) 국내 대회를 개최한 1918년과 1920년 사이에 했으리라는 가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1843년에 Mons. Forbin-Janson(1785-1844)이 설립하여 1846년 7월 18일에 성좌의 승인을 받았다.
9. *Annali dell'associazione della Propagazione della Fede*는 1828년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발간되었다. *Annali dell'Opera della Santa Infanzia*의 이탈리아어판은 1853년 Genova에서 시작되었다. 1924년부터는 *Santa Infanzia*라는 제목으로 계속 발간되었다.
10. 그들의 수도복 색깔 때문에 Padri Bianchi라고 불리던 아프리카 선교사회는, Algeri의 대주교 Charles Martial Lavigerie(1825-1892)가 설립했다. 그는 1882년에 추기경이 되었고, 1884년에는 아프리카의 총대주교와

로의 수도회[11]와 밀라노 해외 선교회[12]의 선교용 출판물을 애독했다.

김나지움ginnasio 2학년 때[13] 전교회[14]와 어린이 전교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했다. 위대한 선교사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으며, 그들의 생애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15] **119**

사제가 된 다음 선교기금을 모으고, 선교사 성소를 위해 협력하며,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선교에 대하여 설교하고, 믿지 않는 사

Carthage의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ginnasio 4학년 때 야고보 알베리오네와 Bra 신학교 동료로서 나중에 사제가 된 Pietro Valetti(1970년 2월 18일 선종)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프랑스어를 몰랐기 때문에 라틴어로 Carthage Padri Bianchi의 신학교 학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1899년 Montecapriolo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알베리오네에게 답장이 왔다. Carthage에서 온 답장은 두 명의 선교 지원자들에게 로마의 Padri Bianchi를 찾아가보라는 내용이었지만,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두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11. Giuseppe Allamano(1851–1926)가 Torino에서 창립한 Istituto della Consolata per le Missioni Estere. 1902년 6월 오늘날의 케냐로, 당시 영국령이던 동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12. Milano에서 1850년 7월 31일에 Angelo Ramazzotti(1800–1861)가 창립한 Istituto Pontificio dei Ss. Apostoli Pietro e Paolo e dei Ss. Ambrogio e Carlo per le Missioni Estere.
13. ginnasio 2학년은 Bra의 신학교 1학년임. 1896–1897.
14. Opera della Propagazione della Fede는 Pauline–Marie Jaricot(1799–1862)가 프랑스 리옹에서 1820년에 구상함. 1922년 5월 3일에 Roma로 본부를 옮겼다.
15. '선교사들'에 관한 독서에서 영향을 받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이러한 관심은 1982년 4월 19일 Roatta 신부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특히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젊은 시절부터 놀랄 만큼 소설과 갖가지 서적을 탐독했다는 말씀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분께 여쭈었다. 그분은 내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그래요, 나는 아주 많이 읽었어요. 하지만 소설류나 이것저것 마구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몇 년 동안 출판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긴 연속 기획물을 통독했어요.'"(「알베리오네 신부님을 알기 위하여*Conoscere Don Alberione*」, I [1982] 41)

람들을 위한 복음화라는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120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이탈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천상 선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가엾은 이들의 필요를 깊고 넓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주님과 친밀해질 때 더욱 생생해진다.[16]

121 *협력자라는 선물과 부*

도미니코 제3회원이던 알바의 주교[17]는 그를 교구의 도미니코 제3회원의 지도신부로 임명했다. 그 기회를 통해 도미니코수도회 신부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었고, 그 수도회의 책과 정기간행물을 읽었다. 1년에 12회 그들에게 강연을 하며, 제3회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개인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반면에 성 도미니코의 특징인 다른 사람을 위해 방향지어진 사도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므로 그 점을 보충해서 시도해 보았더니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실행하

16. 알베리오네 신부의 선교 열의는 나중에 선교지에 많은 바오로 수도원을 설립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영적 차원에 관해서는 수많은 저서와 기도에서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사도의 모후께 바치는 주간기도가 있다.(*Le preghiere mariane di Don Alberione*, Storia e commento, Ed.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P., Roma 1988)
17. 당시 주교는 Mons. Giuseppe Francesco Re였다.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좋은 방법이었다.

성바오로수도회가 창립된 다음, 1916년과 그 후에 제3회, 곧 바 **122**
오로인의 정신으로 기도, 활동, 헌금으로써 그들과 일치하여 사도직을 실천하고,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삶을 더욱 개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출판사도직협력자회*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edizioni*[18]와 같은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관대하게 이에 응했다. 성좌는 이 회를 여러 대사로 풍요롭게 해주었다.

성바오로수도회는 매년 감사의 표시로, 모든 협력자를 위해 2400대의 미사를 거행한다. 오늘날 (전 세계에) 등록된 회원은 백만 명을 넘어선다.[19]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지향으로 기도했다. 기도, 활동, 헌금, 성소 **123**
자를 보내주는 등 바오로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고, 죽은 후 곧바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느님을 뵙고 영원히 그분을 소유하며 사랑하고 즐기기를 바랐다.

---

18. 이 협력자회는 'Unione Cooperatori Buona Stampa'(선한출판협력자회)라 불렸고, 1917년 6월 30일 Alba의 주교가 승인했다. 1937년 3월 22일 교황대리 Francesco Marchetti Selvaggiani(1871–1951) 추기경의 결정으로 협력자회의 본부를 Roma로 옮겼다. 이 교령에서 명칭이 'Pia 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Stampa'(출판사도직협력자회)로 수정되어 나타났다. 그 당시에는 아직 'Apostolato Edizioni'(출판 사도직)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1988년부터 성좌가 인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고, 협력자회는 'Associazione dei Cooperatori Paolini'(바오로 협력자회)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19. 1953년의 통계를 언급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그는 농촌 출신으로서 아주 근면하고 투철한 그리스도인 가족의 일원임을 주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가정은 지인들과 이웃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병아리를 돌보는 일에서 밭일이라는 중노동에 이르기까지[20] 허드렛일이나 힘든 일을 해야 했다.

125 초등학교 시절부터 많은 희생을 치르며 공부했다.[21]

여름방학도, 겨울철 휴식도 없었다.

그 후에도 계속 (열한 살부터 스물세 살까지) 휴식은 대부분 일을 바꾸는 것이었다. 신학교에서 목초지를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건초를 긁어모으기 위한 갈퀴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윗옷과 구두를 벗고는 식사시간까지 형제들과 함께 일했다는 작은 일화가 있다. 이와 같이 방학 기간을 신심, 공부, 노동에 전념했는데 그 기간에는 학기 중에 하던 것보다 공부와 독서를 더 많이 했다.[22]

---

20. 알베리오네 신부 가족은 1886년부터 1910년까지, Montecapriolo라고 불리는 지역인 Cherasco 평야에 있는 Via Fraschette 25번지 농장(Cascina Agricola)에서 일했다.
21.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1890년부터 1895년까지 Cherasco의 공립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후 ginnasio 1학년 과정도 Cherasco에서 다녔다. 그후 Bra의 대주교 직속 소신학교에 입학했고, 거기서 1896년부터 1900년 4월까지 ginnasio의 나머지 과정을 마쳤다.
22. 1897–1907년에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앞서 말한 농장(Cascina Agricola)에서 여름방학을 보냈다. 그는 사제수품(1907) 이후 진정한 의미의 휴가는 더 이상 하지 않은 것 같다.

신학교는[23] 청결 면에서 많이 미흡했으므로 신학생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소년 예수의 서클Circolo del Fanciullo Gesù'을 결성했다. 가입한 회원들은 성당·복도·공부방·침실·계단 등을 한 곳씩 맡아 휴식시간과 수업이 없을 때 청소를 했다.[24] **126**

이미 신학생 시절에 그리고 특히 그 후 나자렛 예수님의 근면한 삶의 위대한 신비를 묵상했다. 그분은 30세에 이르기까지 집안 일을 돕는 덕과 중노동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이시다. **127**

구원 활동, 사도직 활동, 힘겨운 노동. 하느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 모든 힘, 육체적 힘까지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완덕의 길이 아닌가? 하느님은 가장 순수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던가? 이것이 바로 참된 수도적 가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이 아닌가? 이것이 노동자-예수께 노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수도자들도 양식을 얻기 위해 벌어야 하는 의무를 완수해야 하지 않겠는나? 이것은 성 바오로가 자신에게 부과한 규칙이 아니던가? 이는 하나의 사회적 의무이고, 오직 '이를 수행함으로써' 사도는 비로소 설교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는가? 바오로가족에게 있어 펜을 들고 일하는 것도, 기계를 사용하여 일하는 것도 사도직의 본질이 아닌가? 노동은 건강에 좋지 않은가? 태만과 많은 유혹에서 지켜주 **128**

---

23. 이 신학교는 Alba의 신학교다.
24. 이 점에 대해서는 A. Vigolungo, *'Nova et vetera', Can. Francesco Chiesa*, Edizioni Paoline, Alba 1961, p. 173 참조.

지 않는가? 기부와 모금은 새로운 사업(예를 들면 성전 건립, 사도직 수단, 또는 가난한 이들이나 성소자를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적합한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 아닐까? 노동은 공로의 수단이 아닌가? 바오로가족이 노동을 한다면 이는 본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삶을 정착시키려는 것 아닌가?[25]

이러한 생각과 원칙은 브뤼셀을 방문한 이후 그리고 특히 가톨릭 노동청년회(J.O.C.)[26]를 방문한 후에 더욱 심화되었다.

129 이런 까닭에 바오로가족 수도회 안에 많은 노동이 도입되었다. 일을 바꾸는 것, 이것이 곧 휴식이다. 모두가 일할 것! 윤리적 · 지적 · 사도적 · 영적 일에 종사할 것.

130 '회헌'에 바오로가족은 늙어버리거나 사회에서 무익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천하면 충분할 것이다. 언제나 고유한 사도직을 지향하고 그 위에 뿌리 내리면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

25. 알베리오네 신부는 한 소책자에서 이러한 모든 주제를 다루었다. "노동과 섭리(Il lavoro nelle famiglie paoline)", 1954년 1월(CISP 1075-1096; *Il lavoro e la Prorridenza*, a cura di A. Damino, Roma 1987-발췌 참조).
26. J.O.C의 정식 명칭은 Jeunesse Ouvrière Chrétienne로서, 1925년에 설립된 청년 노동자들의 운동이다.

1914년부터 1944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언제나 한 가지 내적 고민이 있었다. 이것은 네 개의 바오로가족 수도회 사이에 정신의 일치와 함께 관리와 경영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27] 1916년에 한 유능한 사제 로시Rossi[28]가 그에게 질문으로 제기한 성 요한 보스코와 성 요셉 베네딕토 코토렌고가 각기 창립한 수도회의 통솔과 조직에 관련하여 몹시 망설였다.[29] 결국 두 성인에게서 좋은 점을 취하는 것으로 끝냈다.

1917년부터 유효한 현행 교회법[30]을 따르면서 천상 스승 예수 그 132
리스도 안에서 영적 일치를 추구할 것. 고통이 따르는 시험과 동요의 기간이 제법 오래 지속되었다.[31]

27. AD 33–35 참조.
28. 아마도 Pocapaglia(Cuneo)의 Macellai의 주임사제인 Don Giuseppe Rossi (1878–1941)일 것이다.
29. 두 분 모두 남성–여성이라는 두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수도 '가족'을 창립한 성인들이다. 가족수도회 관계에서 Don Bosco는 분리를 강조했고, 반면에 Cottolengo는 남자 수도회 총원장에게 여자 수도회가 종속되게 함으로써 통솔의 일치까지 강조했다.
30. 1917년 성령강림대축일에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반포됐고, 이듬 해 성령강림대축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교회법전*Codex Juris Canonici*」은 어떤 여자 수도회도 남자 수도회 장상에게 속하는 것을 배제했다.
31. *Mi protendo in avanti*, Edizioni Paoline, Roma 1954, pp. 493–566에 나오는 Federico Muzzarelli의 연구 "Ad pedes Petri"; Giancarlo Rocca, *La formazione della Pia Società San Paolo(1914–1927)*, Roma 1982도 보라.

133 바오로가족에게 경제적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해 경영관리와 생계수단에 관해서도 같은 고민을 해야 했다. 성 코토렌고, 성 요한 보스코 그리고 성 요셉 카파소[32]의 정신은 이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도 그는 중도, 곧 노동을 교육 수단, 사도직, 생계 유지를 위한 자연적인 수단으로 택했다. 그리고 기부금은 새로운 사업과 수도원 건립, 특히 건축 중에 있는 성당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시대의 동향을 따르면서 '작은 신용금고Piccolo Credito'[33]도 만들었는데, 이는 더 큰 지출을 위해 숨을 돌리게 해주었다.

134 하느님께 대한 신뢰, 근면한 노동, 짜임새 있고 균형 잡힌 경영관리는 하느님 섭리에 이르는 길을 보증했다.

135 바오로가족 수도회는 구별되는 사도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도직은 각 수도회의 삶과 발전 그리고 사업의 성장을 위해 충분했다.[34]

---

32. San Giuseppe Cafasso(1811–1860)는 거의 20년을 Torino의 Collegio Ecclesiastico의 책임자로 있었다.
33. 이 사업에는 티모테오 자카르도 신부가 기여했고, 그에 대해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의미심장한 증언을 남겼다. "…그 당시 수도회가 특별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Piccolo Credito라는 협동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자카르도]는 그 신용금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고, 수도회는 곧바로 발전을 위한 폭넓은 재원을 가지게 되었다. 모두는 그가 지출할 때에는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신뢰할 수 있었으며, 또 그를 신임했다. 그래서 Piccolo Credito는 필요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가 자신의 소임을 완수했을 때, 그는 채권자들의 필요와 이익에 충분히 응했고, 수많은 훌륭한 협력자들의 도움에 대한 섭리에 감사미사를 드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Maestro Giaccardo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애정과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Prediche del Primo Maestro*, Roma, 1953년 1월 24일, p. 64)

복음서 136

그가 주님이 바오로가족에게 주고자 하신 위대한 부富, 곧 복음서의 보급에 대하여 한층 더 밝은 빛을 받은 시기(1906-1907학년도)가 있었다. 이 복음서의 보급은 오늘날 20여 개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복음서의 날이라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비오 10세는 신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의무화했다.[35] 137

1907년 8월, 그는 세 번에 걸쳐 성경 주일을 편성하여 성경을 교리교육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명했다.[36] 138

그 당시에는 소수의 신자만이 영성체를 한 것처럼, 몇몇 신자만이 가끔 복음서를 읽었다. 대중에게는 성경은 물론 복음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신념도 있었다. 복음서를 읽는 것은 거의 비가톨릭인들이 독점했고, 그들은 복음서를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다. 139

다음 세 가지가 필요했다. 140

가) 교리서와 함께 모든 가정에 복음서가 들어가도록 할 것. 복

---

34. 이 논점에 관해서는 1954년 5월 23일자로 명기되었고, *Carissimi in San Paolo*(CISP) 137 이하 그리고 *Ut perfectus sit homo Dei*(UPS) I, 371-382; III, 182-191; IV, 212-221에 실린 알베리오네 신부의 자필원본 참조.
35. 1906년 3월 27일자 비오 10세의 교서 *Quoniam in re biblica* 참조.
36. 저자가 타자원고에 자필로 첨가한 설명.

음서는 교회의 정신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신앙, 윤리, 경신례에 관한 완전한 교리해설을 곁들여야 한다. 사람들이 주일 저녁기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매 주일 미사 중에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사제가 되자마자 알바 주교좌 성당에서 그렇게 했다. 그 후 이 방법이 여러 본당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하여 교리교육 방식의 주석이 달린 복음서가 나오게 되었다.

141 나) 복음서가 가톨릭의 모든 출판물에 영감을 주고 모델이 될 것.

142 다) 복음서를 중히 여길 것. 복음서를 흠숭하는 마음으로 간직할 것. 설교할 때는 복음서를 아주 많이 언급해야 하고, 복음서를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지성, 마음, 행위를 통해 복음을 살아야 한다.

143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성 바오로 성전[37]에서 30회에 걸쳐 흠숭기도가 있었는데 이때 성경을 통틀어, 특히 복음서[38]에 관해 설교하고 글을 썼다.(나중에 출간됨)

144 해마다 성녀 체칠리아 축일에 [그는] "복된 체칠리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었다."[39]라는 말씀에 머물렀다.

---

37. Alba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
38.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읽으시오."(요한 5,39 참조) 「마에스트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가 행한 성경에 관한 10시간 흠숭기도*Dieci ore di adorazione sulla S. Bibbia, tenute dal M. G. Alberione*」, SSP, Alba-Roma, Pia Società Figlie di San Paolo[1933]; 이 작품에 관해서는, A. Damino, *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 cit., pp. 36-38: "10시간의 흠숭기도"는 각기 세 부분으로, 이어서 다시 세 장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에 유의하라.

32년 간 몸에 지니고 다닌 복음서는[40] 참으로 효력 있는 기도였다. **145**

1903년에는 알바의 신학생들이 (당시 우수한 성경 출판본 가운데 Mondovì 출판사의 성경) 보급 활동을 시작했고, 복음서(바티칸 출판사) 보급이 아주 폭넓게 이루어졌다.[41] 신학생들 사이에 큰 열의가 생겼고, 첫 복음서의 날을 거행했다.

인성 개발 **146**

자연적 · 초자연적 · 사도적 인성 개발.

바오로가족은 잘 정의한 목표와 적절하고 풍부한 수단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성체조배 시간에는 하느님과의 통교에 들어가고, 여기서 배운 것을 깊이고 흡수하고 삶에 적용한다. 이러한 자유와 창안 정신이 잘 조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활용한 사람은 정신, 경영관리 분야, 공부, 사도직, 양성 전반에 걸쳐 많이 진보했다. **147**

---

39. 전례 본문은 다음과 같다. "Virgo gloriosa semper Evangelium Christi gerebat in pectore suo…."(Breviarium Romanum, 11월 22일, 성녀 체칠리아 기념 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 아마도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구절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육체적 행위의 의미로도 이해한 것 같다.
40. 저자는 이 문장을 1953년에 썼지만, 복음서를 몸에 지니고 다닌 습관은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1. 여기서 인용한 복음서의 두 가지 출판본은 다음과 같다. *La Sacra Bibbia secondo la Volgata*, tradotta in lingua italiana ed annotata da Mons. A. Martini, Arc. di Firenze, Mondovì 1897; *Il Santo Vangelo di N.S. Gesù Cristo e gli Atti degli Apostoli*, Pia Società di San Girolamo per la diffusione dei Santi Vangeli, Tipografia Poliglotta Vaticana, Roma; 이 출판본은 1926년에 50쇄에 이르렀다.

148 아마도 지나치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를 남용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했다.

149 이러한 방법은 깊은 신념, 곧 가르침과 깊은 확신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성사의 활용, 영적 지도, 사말에 대한 생각 등은 사람을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하고, 탈선했다면 되돌아오게 한다. 이는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매우 유익하다.

150 교육의 목적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자기 자유를 선용하도록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

V. 카리스마의 원천

더 밝은 빛… '꿈' **151**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그는 자기 편에서 은총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행동을 재검토했다. 천상 스승께서 몇 년 전에 시작한 수도회를 보장해 주고자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이어 그는 꿈[1]에서 대답을 얻은 것 같았다. 사실 스승 예수님은 **152**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말라. 나 여기서 비추리라. 너희 죄를 뉘우치라."[2](직역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여기서 비추기를 원한다. 너희 죄를 아파하여라." 이다–역주)

---

1. 여기에서 이야기한 '꿈'은 1923년,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중병을 앓던 시기였다. 당신 스스로 AD 64에서 암시한 것처럼 기적 같이 (중병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꿈에 대한 다른 언급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Mihi vivere Christus est*」(MV, 1938) 139에 나온다. AD 158의 각주 8 참조.
2. 그는 이 말씀을 라틴어로 들은 것 같다. "Nolite timere, Ego vobiscum sum. Ab hinc illuminare volo. Cor pænitens tenete."

153 '여기서'라는 말이 감실에서 힘있게 울려 나왔다. 마치 스승–그분에게서 모든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시려는 것 같았다.[3]

154 스승의 모습이 어떤 빛에 감싸여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영적 지도 신부와 이 꿈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심하십시오. 꿈이든 다른 것이든 들은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말씀을 당신과 모든 회원을 위한 빛과 삶의 실천 계획으로 삼으십시오."

155 그때부터 더욱 더 그 방향으로 나아갔고, 모든 것을 감실에서 길어냈다.[4]

156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그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가) 사회주의자들도, 파시스트들도, 세상도, 순식간에 공황에 빠진 채권자의 다급함도, 조난도, 사탄도, 정욕도, 너희의 온갖 부당함도 … [너희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죄를 지어 나를 내쫓지 마라. "나 너희와 함께 있노라", 곧 내가 원했고, 나의 것이며, 내가 양육하고, 가장으로서 나 자신도 가족의 일원으로 너희 가족과 함께 있다. 동요하지 마라! 많은

3. 이 항목은 자필원고에 있는 것으로, 모든 출판본에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타자원고에서는 사라졌다. 아마 저자가 교정 중에 부주의로 타이프를 치지 않고 넘어간 것 같다.
4. 이 항목도 자필원고에서만 볼 수 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하라! 죄를 짓지 마라![5]

나) "나 여기서 비추리라." 곧 나는 너희의 빛이요 비추기 위해 **157**
너희를 도구로 이용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사명을 주니 이를 완수하기 바란다.

천상 스승을 감쌌던 광채, '원한다'와 '여기서'라고 하실 때의 힘있는 음성, 오랫동안 감실을 가리키던 손은 감실 안에 머무시는 천상 스승에게서 모든 것을 길어내야 한다는 초대로서 이것은 당신의 뜻이요, 당시 위기에 처해 있던 가족에게서 거대한 빛 … 이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다. 그러므로 그는 'Ab hinc'[6] 이라고 쓰면서 의미 전달을 위해 문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각자는 빛의 전달자, 예수님의 스피커, 복음사가,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의 비서요, 펜으로 글을 쓰는 것이나 인쇄를 하는 것[7]은

---

5. 자필원고에서 저자는 이상하게도 여기에 많은 여백을 남겨두었는데 아마도 불충분하게 여겨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싶었던 것 같다.
6. 'Ab hinc'는 라틴어 부사다. 본래 의미는 장소부사로 '여기서', '이 장소에서'라는 의미로, 고전문학에서는 이동의 의미로 자주 사용했는데, '시간적' 의미로, 과거 또는 미래를 언급했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왜 "그는 의미 전달을 위해 문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에 따르면, 단순한 형태인 'hinc'('여기서'라는 의미만을 가리키는 표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의미'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ab hinc'(분리된 두 단어)라는 복합어를 선호했으니, 이는 천상 스승의 오랫동안 '감실을 가리키던 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ab hinc', '여기서', 곧 감실에서라는 의미다.
7. '인쇄…'라는 이 마지막 표현은 자필원고와 모든 출판본에 나오지만, 타자

동일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158 다) "너희 죄를 뉘우치라."는 우리의 죄, 결점, 부족을 끊임없이 인정함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하여 하느님께는 모든 영예를, 우리에게는 멸시를 돌려야 한다.[8] 따라서 '계약 또는 성공의 비결'[9]이라는 신앙의 기도가 생겨났다.

스승 예수께 대한 통합적 영성[10]

159 다양한 영성, 곧 베네딕토회, 프란치스코회, 예수회, 가르멜회, 살레시오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영성을 연구하던 중 각기 좋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늘 천상 스승 예수 그리

원고에는 펜에 대한 단순한 언급만 나오고 삭제되었다. 여기서는 동일한 표현을 옮겨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8.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께는 영예를, 저에게는 멸시를."이라는 전통적인 기도 참조. 이 겸손한 표현을 여기서 꿈에 대한 첫 언급과 대조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알베리오네 신부가 1938년에 언급한 것이며, *Mihi vivere Christus est*에 게재되었다. "천상 스승께서 거니시다가 여러분 중 몇 명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셨다. 두려워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 여기서 비추기를 원한다. 다만 '겸손을 유지하라.' …그리고 너희 죄를 뉘우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MV 139)
9. 이 기도는 다양한 편집을 거친 것으로서, Don A. Colacrai가 해설했다. *Segreto di riuscita*, Ed.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P., Roma 1985[4] 참조.
10. 이어지는 두 항목(159-160)은 자필원고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실수로) 꿈에 대해 설명하기 전인 154항 다음에 타자원고 본문에 첨가되어 있다. 1971년도 판과 1985년도 판에서 채택한 위치와 번호에 상응하기에 우리는 이를 여기에 배치했다.

스도가 계시며, 각 영성은 특별히 그분의 한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떤 이(성 도미니코와 제자들)는 진리를 더 강조하고, 어떤 이(성 프란치스코와 제자들)는 사랑을 더 강조하며, 어떤 이(성 베네딕토와 제자들)는 삶을 더 강조하고, 어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중요시하는 등. 그러나 성 바오로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면 천상 스승을 완전히 알고 있는 제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천상 스승을 온전히 산다. 그는 그분의 가르침, 마음, 성성, 인성과 신성의 심오한 신비를 탐구하고 그분을 치유자(의사), 성체, 사제로 봄으로써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이미 길 진리 생명이라고 정의하신 그리스도 전체를 제시한다.[11]

이 관점에는 종교, 교의, 윤리, 경신례가 내포되어 있으며, 예수 **160**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啓示되어 있다. 이 신심을 통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정복된다. 신심은 충만해지고 수도자는 사제처럼 되어 지혜(면학과 천상의 지혜), 나이(어른스러움[12]과 덕) 그리고 은총(거룩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완전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13]라고 했듯이, 곧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 또는 인간을 대신하기까지 성장한다. 이 신심은 인간-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신심을 수렴한다.

---

11. 요한 14,6 참조.
12. 이 단어의 의미는 분명히 '어른의 나이', '성숙'을 나타낸다.
13. "Vivo ego, iam non ego; vivit vero in me Christus."(갈라 2,20) 본문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Vivo autem iam non ego, vivit vero in me Christus."

161 *하느님의 도움*

수도회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 그중 몇 사람의 봉헌을 주님이 받아들이셨다. 알바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1910년부터 매일 그들의 영적 지도신부의 지향을 봉헌했다.[14] 1915년 전쟁이 발발한 후 그들은 전쟁터에서 봉헌을 새롭게 했으며,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기네 생명까지도 봉헌하였다. 몇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았고, 또는 병을 얻어 죽어갔다.

162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주님이 생명의 봉헌을 받아들이신 이들 가운데는 신학생 보렐로, 판테구치, 사제 사피리오, 데스테파니스, 빌라리[15] 등이 있다. 마조리노 비고룽고[16]와 성바오로수도회의 몇몇 회원이 있다. 카바차-비탈리[17]와 후에 칼리아노[18]를 위시한

---

14. 이 구절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영적 지도신부의 지향에 따라 기도와 희생'을 봉헌했다…."
15. Agostino Borello(1883-1902), Angelo Fanteguzzi(1893-1917), Enrico Saffirio(1884-1918), Giacomo Destefanis(1887-1917), Ermenegildo Villari(1884-1921).
16. Maggiorino Vigolungo(1904년 5월 6일-1918년 7월 27일)는 1916년 10월 15일부터 죽는 날까지 작은 노동자 인쇄학교(Scuola Tipografica Piccolo Operaio) 학생이었다. 그의 영웅적인 덕성이 인정되어 1988년 3월 28일 가경자로 선포되었다.
17. Amalia Cavazza-Vitali(1866-1921)는 Barbaresco(Cuneo) 출신의 부인.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창설 초기 수도회 모든 면에 도움을 주었다. 기도와 헌금과 물자 지원 그리고 저술가로서 지적 협력으로 은덕을 베풀었다. 매년 여섯 대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기금을 지불함으로써 성바오로수도회 산하 'Opera delle Sante Messe Perpetue'를 만들었다. 저작으로는 *I doveri delle Spose e delle Madri*(Alba, Scuola Tipografica, 1918)이 있다.

성바오로딸수도회의 한 그룹을 상기할 수 있다.

바오로가족은 여러 해에 걸쳐 바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 **163**
기도, 봉헌의 결실이다.

그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도움과 더불어 기도 중에 바치는 '하느님과의 계약'과 네 개의 가지[枝]를 통해 이루어지는[19] 활동, 모든 면에서 하느님의 끊임없는 축복[20]의 결실이었다.

그는 주변에 성체조배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덕망 있고 경건 **164**
한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참사위원 키에사였다.

인신상의 문제, 경제 문제, 서신과 구두를 통한 고소 등 갖가지 위험을 겪었다. 매일매일 위태롭게 살았으나 성 바오로는 언제나 구원이었다.

---

18. Clelia Calliano(1892-1918)는 당시 Alba, Via Accademia n. 5에 있던 성바오로딸수도회가 Susa(Torino)로 이전할 즈음 선종. 수도회 창립을 위해 삶을 봉헌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알베리오네 신부가 기억해야 할 사람으로는 Angela Maria Boffi(1886-1926)가 있다. 그는 1915년부터 1922년까지 성바오로딸수도회 원장이었다. 그 다음에 초창기 수도회의 통솔은 현재 가경자인 데레사 메를로, 곧 마리아 테클라 수녀(1894-1964)에게 넘어갔다.
19. 네 개의 '가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오로가족"이다. 곧 당시에 현존하던 네 개의 수도회다.(AD 33-35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네 '바퀴'를 암시한다는 해석보다 더 타당하게 여겨진다.(AD 100 참조)
20. 이 구절은 매우 집약되어 있지만 문장상 구조가 엉성하다. 아마도 생략된 단어 때문인 듯하다. 납득할 만한 문장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희생 등]의 기여로' '하느님과의 계약에 대한 신앙, 끊임없는 축복' 등과 같은 [최상의] 도움이 '주어졌는데', 이에 대해 그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165 지출을 할 때에도 조언을 청하며 다음과 같은 성찰을 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인가? 지향은 올바른가? 임종의 순간에도 이를[21] 행할 것인가? 대답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하느님께 의탁하며 실행에 옮겼다.

166 때때로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었고, 모든 방책과 인간적 희망이 닫혔던 때도 있었다. 그는 기도했고, 죄를 멀리하며 청빈에 어긋나는 온갖 결함을 물리치도록 노력했다. 그러자 예기치 않은 해결책,[22] 익명의 사람들이 보낸 돈, 융자 제공, 새로운 은인들과 그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일들 … 이 일어났다. 해가 지나면서 분명히 파산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의 예견, 미쳤다는 비난 … 등이 사라졌고, 비록 힘은 들었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났다.

167 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한 푼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납품업자들, 건축업자들, 사업체들은 계속 믿어주었다. 은인들의 애덕은 세배의 열매를 맺었으며, 그러한 은인이 많았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사건도 수없이 일어났다. 마에스트로 자카르도는 이렇게 말했다. "비록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

21. 출판본에는 여기에 관사 lo(앞에 나오는 대명사 '이것'을 받는 남성 관사)가 있는 반면, 타자원고에는 la가 있는데 이는 아마도 지출(spesa)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22. '생겼다'(intervenivano)라는 동사가 암시되어 있다.

다. “저는 성바오로수도회에 성소자를 보내주고 은덕을 베풀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교의 호의와 동조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교구 내의 저명한 **168**
성직자들도 그랬다.

중요한 은인들 가운데에는 참사위원 키에사, 몬시뇰 레 주교, 카 **169**
바차-비탈리, 친척 아저씨 한 분[23], 교구의 거의 모든 지구장, 무수한 협력자들이 있었다.

마피Maffi 추기경, 리셸미Richelmy 추기경, 교구 참사위원 알마노 **170**
Allamano의 조언은 그에게 매우 유익했다. 교구 참사위원 프리에로 Priero, 몬시뇰 시보나Sibona, 몬시뇰 달오르토Dallorto, 수석사제 브로비아Brovia에게서 경제 분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교구 참사위원 노보Novo, 몬시뇰 파시노Fassino, 로시Rossi 신부, 몬시뇰 몰리노 Molino, 교구 참사위원 다누소Danusso, 교구 참사위원 바랄디Varaldi 에게서 영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처음 구입한 기계 대금은 야고보 삼촌이 지불해 주었다. **171**

초창기에는 알바의 사회주의자들이 여러 차례 인쇄기, 수도원과 **172**
신문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했다. 만일의 경우 소년들이 위험에 처

23. 이분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삼촌 Giacomo Alberione(1838-1914)이다. AD 171 참조.

하지 않도록 또는 너무 놀라지 않도록 깨어 지키는 일이 허다했으므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다. 파시즘의 조직이 처음으로 결성되었을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결국 그들의 협박이 현실이 되자 건축 융자를 해주던 협력자들의 신뢰도 흔들렸다. 당혹스러웠고 심한 걱정에 휩싸였지만 아무도 신뢰를 잃지 않았다.[24]

173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쳤고, 성 바오로께 기도했으며,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지향에 따라 성체조배[25]를 했다.

174 *정신과 실천*

그는 알바 신학교에서 깊고 단순하며 활발한 영성의 분위기를 발견했다.

토리노 대교구[26] 신학교에 그의 아저씨 한 분이 사제 지망자인 친척에게 할당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대주교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거액의 기금을 내놓았다.[27] 그러나 그는 건전한 정

---

24. 이 마지막 표현 "그러나 아무도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타자원고 위에 자필로 첨가했다. 아마도 저자는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듯하며, 적어도 어법상, 조금 앞에 쓴 내용과 모순된다.
25. 알베리오네의 전통에 따른 성체방문 또는 성체흠숭을 가리킨다.
26. 토리노 대교구에는 여러 개의 소신학교와 대신학교가 있었다. Torino, Chieri, Bra, Giaveno, Rivoli의 신학교를 떠올릴 수 있다. Bra 신학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G. Barbero, "I bei Seminari d'Italia: Il seminario arcivescovile di Bra", in *Palestra del Clero*, 43(1964) 192-204 참조.
27. 이 기금(연금: pensione)에 대한 다른 특별 사항은 알 수 없다. Bra에 있던 Giacomo Alberione는 기금의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여

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내더라도 알바 신학교에 남기로 했다. 거기에는 덕망이 높고 열의가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장상들, 고해신부, 영적 지도신부가 있었고 가족적 분위기,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진지한 학업, 모범적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교는 매우 풍요로웠다. 묵상, 영적 독서, 현대 성인들의 삶, 이 **175**
모든 것은 「준주성범」과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 성 요한 보스코, 성 코토렌고[28]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몇 년 동안 매주일,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로 교의의 순수성 그리고 교회 권위에 대한 순명의 의무에 관해 수준 높은 강좌가 열렸다. 언제나 주교가 주관했는데 그는 신학, 철학, 교회법 또는 사회학 중 어떤 분야에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박식했다.[29]

매일의 영성체를 막 도입했는데, 당시 많은 신학교에서는 이를 **176**

기에 사용한 용어로 미루어보아 조카가 이미 Alba 교구 신학교에 입학한 다음 삼촌이 기금을 위탁한 듯하다.

28. 이 저자들에 이어서 알베리오네의 신부가 읽고 심화시켰으며 본받았다고 다른 곳에서 표현한 Pier Giuliano Eymard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A.F. da Silva, *Il cammino degli Esercizi*…, cit., p. 36 그리고 다른 곳에도 나옴.

29. 교황청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근대주의자들과 맞선 유명한 저작 「피에몬테 주교단 서한*Lettera dell'Episcopato Piemontese*」은 아마도 Mons. F. Re 주교가 쓴 것으로 보인다. 바오로가족의 출범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로마의 답변에서, Enrico Rosa s.j. 신부가 그에게 표현한 공식 인정을 볼 것. "…저는 언제나 근대주의 시대에 귀하의 타당한 개입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근대주의에 대해서는 피에몬테 주교단의 서한으로써 이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리고…오류에 대항하여, 특히 이탈리아 북부에서 큰 효력을 가져왔다고 봅니다…."(G. Rocca, cit., doc. 87 참조)

시행하지 않았었다.

규율은 그리 엄격하지 않았지만 깊은 확신을 길러주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바오로수도회와는 아주 달랐다.

그는 그곳에서 배운 유용한 것들로 바오로가족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고, 한층 더 쇄신하려 노력했으며 '모퉁잇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30](에페 2,20 참조) 위에 삶을 확립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추가했다.

177 *신심*

알바의 주교 몬시뇰 갈레티Galletti[31]는 교구, 특히 신학교에 영적 유산으로 '성체신심'을 남겼다.

178 그는[32] 훌륭한 사제들과 협력하여 복자 비오 10세가 반포한 잦은 영성체, 어린이들의 영성체, 병자들의 영성체에 관한 교령을 교구에서 시행하도록 힘썼고, 특히 노자성체를 제때에 영해줄 것을 강조했다.[33]

179 거의 10년 간 신학교(소신학교와 대신학교)[34]에서 영적 지도[35]를 맡

30. "ipso angulari lapide Christo Iesu".(에페 2,20)
31. Mons. Eugenio Galletti(1816–1879)는 1867년에 Alba의 주교로 선임되었고, 14년 뒤에는 공석이 되었다.
32. 이제 주어는 알베리오네 신부다.
33. Pio X, *Sacra Tridentina Synodus*, 1905년 12월 20일자 교령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비오 10세가 복자였으며, 몇 달 후인 1954년 5월 29일에 성인품에 올랐다.

고 있었으므로 묵상지도와 평일 설교를 주관해야 했다. 그의 전임자는 매월 첫 주간을 수호천사, 연옥영혼, 성 요셉, 성체성사, 예수 성심, 성 마리아, 성삼위 등의 신심에 바쳤다. 그는 그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신학교 장상의 원의에 따라 동일한 관습을 계속 유지했다.

그리고 바오로가족이 발족했을 때 이를 도입했다. 다만 그것을 **180** 특정한 필요에 맞추어 결합시켰고 천상 스승께 대한 신심과 성 바오로 사도께 대한 신심을 중심에 두었다. 천상 스승께 대한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신심을 요약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서는 아기로, 나자렛에서는 노동자로, 공생활에서는 스승(박사)으로,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감실 안에서는 성체로, 인류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은총을 통해서는 사랑 가득한 성심으로 고찰한다.

사도의 모후께 대한 신심도 먼저 신학교에서 마음에 새긴 것이 **181** 다. 사목강연(1912–1915)도 마리아의 보호 아래서 행했고, 사회학 수업도, 새 사제들의 성무의 첫걸음도 마리아의 보호에 맡겼다. 마리아는 공동 사도, 곧 공동 구속자시다.

마리아는 이중의 예고를 받으셨다.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예 **182**

34. 한 건물이지만 신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35. 알베리오네 신부는 1908년부터 1920년까지 거의 계속하여 Alba 신학교에서 영적 지도신부의 임무를 맡았다.

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적 모성에 대한 예고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관련된 보편적 모성에 대한 예고다.

그 어느 것도 이 보잘것없고 교만에 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부富를 줄 수 없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은총을 주셨다. 세기를 통하여 그분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시고, 이러한 직무 안에서 우리의 어머니시다.

세상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마리아는] 사도들과 사도직을 통하여 그분을 주신다. 그분은 그들을 북돋아주고 양성시키며 도와주고 그들에게 좋은 결실을 안겨주며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신다.

183 주일에 모든 것은 삶의 계획과 사도직, 예수님의 구원 계획인 대영광송, 곧 천사들이 노래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36]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는 성삼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다. 바오로인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37]

---

36. *Missale Romanum*, 'Gloria' 참조; 루카 2,14도 참조.
37. 이 마지막 표현은 자필원고와 타자원고에서 언급된 표현이 달라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자필원고에 나오는 첫 표현은 다음과 같다. "바오로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vivere)"이다. 반면에 타자원고에는 "바오로인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vive)"이다. 첫 표현은 "위에서 설명한 것은 성 바오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부합한다." '바오로인'이라는 어휘는 이 경우 사도를 언급하는 형용사인 듯하다. 두 번째 표현은 명사로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2티모 3,12 참조) '바오로가족의 수도자'를 지칭한다.

그는 주교의 동의를 얻어 신학교에 매일의 영성체, 월피정, 매월 첫 금요일의 성체조배, 주일에는 두 번 미사참례하는 관습을 도입했다. 좋은 결과가 보였으므로 그는 바오로가족도 이러한 것으로 풍요롭게 했다. **184**

VI. 미래를 바라보면서

185 *실현해야 할 것*

I. '최상의 삶'[1]

오늘날은 과학지상주의와 기술만능주의의 병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모든 학문, 발명, 발견은 각각 창조라는 방대한 책의 한 장章이다. 그 하나하나는 하느님 창조사업의 인식이요, 마치 눈, 혀, 의지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듯이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지 않는다. 지식, 발명, 발견에 대해서도 그렇다.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 좋아하고,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왜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는가, 무엇에 쓰이는 것인가?"라고 묻지 않는다.

---

1.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는 *San Paolo*, 1955년 2월-1959년 9월(CISP pp. 1195-1254) 그리고 UPS II, 149-161 참조.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186**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2]라는 성 바오로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느님께,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문을 깊이 탐구하면 하느님께 이르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된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이를 알도록 비추어주셨고, 인간을 들어 높이기 위해 본성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진리를 계시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이성을 잘 사용하고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인간이 하느님을 볼 수 있게 준비하신다.

죄가 관습, 경신례, 사람들 사이에 혼란을 가져온 것처럼 철학과 **187**
과학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하느님처럼 되려는"[3] 인간의 교만 때문에 철학과 과학은 자주 신학과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한다.

인간의 지식knowledge은 고귀한 무기지만 자주 인간을 거슬러 사 **188**
용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계승자인 우리 사제들은 지식을 다스려, 지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을 알고

---

2. "Omnia vestra sunt, vos autem Christi, Christus autem Dei."(1코린 3,21. 23 참조)
3. "eritis sicut Dii".(창세 3,5 참조)

결국 발견하도록 그들을 비추고 인도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가? 사제가 이러한 방면에서 활동하기 위해 그리고 지식인들을 이성에서 계시로, 인문학에서 신적 학문으로 들어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할 것이다. 마치 하느님의 아들이 길 잃은 양인 인간을 찾기 위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하느님 아버지께 다시 데려가신 것처럼. 이 때문에 교황청 프로그램은 비오 10세 이전과는 달리 신학생들에게 인문학을 더 많이 배우도록 촉구하고 있다.

189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1) 적어도 인문학을 충분히 공부할 것. 2) 여러 학문을 철학 안에 통합할 것. 3) 철학을 계시로 직접 이끌어주는 일꾼으로 제시할 것.

190 성 대 알베르토[4] 축일의 '본기도'[5]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인간의 지혜와 신앙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성 알베르토 주교를 보내주신 하느님, 우리로 하여금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지식에 진보하여 당신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191 현재는 지성인들을 신학의 문으로 인도하고 그들 안에 다른 빛, 곧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열망을 고무시키는 여러 학문을 철학에 통합시키는 것이 부족하다. 이 빛을 통해 인간은 하늘의 충만한 빛에 이를 것이다.

---

4. Sant'Alberto Magno(1193–1280), 1931년에 시성. 자연과학 연구의 수호자.
5. *Missale Romanam*, '성인 고유', 11월 15일자 참조.

신학과정 중에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 외에, 성 토마스의 「신학대전」(철학, 신학 대사전)을 연구하면서 고대 학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정리하고 이를 통합하고자 한 성인의 놀라운 행위에 관하여 참사위원 키에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언제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느님의 섭리가 새로운 아퀴나스를 일으켜 주시어 분산된 지체, 곧 여러 학문을 간략하게나마 체계적이고 명료한 새로운 통합방식으로 정리하여 그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192**

지성인들은 은총이라는 하느님의 도움 외에 지식이라는 인간적 도움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학문은 철학을 통해 신학에 고유한 섬광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이고, 신앙의 겸허함을 통해 제3의 계시, '영광의 빛'[6]을 얻게 될 것이다. **193**

이 모든 것, 곧 이성이라는 자연적인 빛을 통해 알게 되는 자연과학, 신앙의 빛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신학적 지식, 영광의 빛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은 천상 스승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194**

기도를 많이 한 다음 이러한 것들을 '신학 과정' 중 하나의 시도 **195**

6. 'lumen gloriæ'는 인식 능력을 강화시키는 초자연적 '덕성'(virtus)으로서 인지능력이 하느님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게 한다. 'lumen gloriæ'의 필요성은 이를 부정한 Beguardi들에 대항하여 비엔나 공의회(프랑스)에서 확정되었다. 헌장 *Ad nostrum qui*, 1312년 5월 6일. Denz.-Schönm. 891 이하 참조.

로 논문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다.[7] 참사위원 키에사는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신학, 철학, 교회법과 민법 분야의 학위가 있고 인문학의 방대한 지식(모든 세부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인문학의 원칙, 사용, 적용, 목적 등)을 겸비하고 있었다.

많은 논문을 참조했고, 「하느님 모범*Divino esemplarismo*」[8]을 길잡이로 삼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러한 시도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마치 철부지의 환상으로 간주했다.

196 그럼에도 그는[9] 확신있게 하늘나라에 계신 천상 스승을 흠숭했고,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의 영원한 찬미를 통해 그곳에 계신 보편주의자 성 바오로 사도와 함께할 것을 염원했다. (기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를 포함하여 바오로가족이 지상에서 바치는 흠숭은 이러한 은총을 성체이신 천상 스승에게서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 주신다는[10] 것이 사실이라면 믿고 기다리며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일하자.

---

7. Francesco Chiesa, *Lectiones theologiæ dogmaticæ recentiori mentalitati et necessitati accomodatæ* Vol. I: *De constitutione theologicæ mentalitatis* Vol. II: *De Deo Uno–De Deo Trino–De Deo Patre* Vol. III: *De Deo Filio–De Deo Spiritu Sancto* Vol. IV: *De Sacramentis–De Sacramentalibus–De Oratione*.
8. E. Dubois, *De exemplarismo divino seu de trino ordine exemplari et de trino rerum ordine exemplato*, Roma 1897 참조.
9. 주어는 참사위원 키에사다.
10. 요한 14,13 참조.

성바오로수도회는 "너 왜 여기에 왔는가?"[11]라고 자주 자문해야 할 것이다. 수도회는 언제나 지성인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복음은 신성한 것으로 결국 모든 이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응답하면서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 지성인을 사로잡으면 낚싯바늘로만이 아니라 그물로 고기를 낚는 셈이다. **197**

그러면 그리스도-하느님 안에 이성과 신앙이라는 두 자매의 완전한 포옹이 [이루어질] 것이다. **198**

II. 학문 연구

철학, 사회학, 신학, 법학에 관해서는 학위를 받기까지 학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제노바 신학교에는 학위를 수여하는 교황청 대학이 있었다.[12] 참사위원 키에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위가 그대에게 지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위는 성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더 장엄한 선언이요 승인입니다. 그대는, 나는 지식면에서 그리스도교 교의를 가르치는 일에 적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모든 것, 가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13]라는 하느님 **199**

11. "ad quid venisti?" 이 질문으로써 주로 존재 또는 특별한 임무의 '목적'을 표현한다.
12. 제노바 신학교에는 "Almum et Apostolicum genuensium theologorum S. Thomæ Aquinatis Collegium"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여러 교구에서 온 사제들이 여기서 시험을 치르고 학위를 받았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곳에서 학사, 석사, 신학박사 학위를 1907년 2월 18일, 같은 해 12월 17일 그리고 1908년 4월 9일에 받았다. 그가 신학박사라고 문서에 명시된 날짜는 1908년 4월 10일이다.

의 약속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사제직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 1906년 6월 30일 특별한 빛이 왔다.[14]

이 부富는 바오로가족이 그 사명에 응답하는 정도에 따라 하느님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노선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201 III. 은총의 중개자,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

어느 꿈에서 그는 마리아께 바오로가족이 '지금' 공경의 표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역사적 순간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공경을 기대하고 계신지 여쭈어보았다. 마리아는 은총이 충만한 분답게 하얀 빛에 감싸여 나타나셨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나는 천상 은총의 어머니다."[15]

이는 현재 가련한 인류가 당면한 필요에 상응하는 대답이요, 마리아가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16]의 임무를

---

13. "dabit verbum evangelizantibus."('Vulgata' : '대중라틴어성경', 시편 67, 12) 예루살렘 성경에 따른 원전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니 기쁜 소식 전하는 이들이 대군을 이루네."(시편 68,12)
14. 아직까지 우리는 이 '빛'의 의미를 모른다. 다만 그 전날인 1906년 6월 29일에 알베리오네 신학생이 차부제품(Suddiaconato)을 받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15. "Sono la Mater divinæ gratiæ."
16. 마리아의 이 호칭이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는 금으로 된 실과 같이 그의 온 존재를 연결해 주는 일련의 사건으로 판명된다. 그의 첫 책은 성모님께 바친 「케라스코의 복되신 은총의 동정 마리아*B. M. Vergine delle Grazie di Cherasco*」(1912)였는데,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마리아께 감사드리기 위해 1909년 「은총의 성모님*La*

더 잘 알게 해준다.

여기 인도를 받고 있는 반半 장님이 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어 **202**
감에 따라 그가 늘 앞으로 나아가도록 빛이신 하느님에게서 그때 그때 비추임을 받았다. 하느님은 빛이시다.[17]

다른 몇 가지 사항은 후에 보게 될 것이다. **203**

다음과 같은 선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204**

1) 철학과정 중 정결을 위해 성 토마스의 허리띠를 착용한 것.
2) 신학과정 중 신학생 사이에 결성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그룹에 가입한 것.
3) 신학과정 중 '소년 예수의 서클' 일원이 된 것.
4) 잇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가르멜 산의 복되신 마리아, 고통의 성모 마리아 스카풀라를 받은 것.
5) 사제직을 수행한 첫 해에 성체흠숭 사제회에 가입한 것.

Madonna delle grazie」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출판–]사도[직]을 시작했습니다. 천상 스승께서 구원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와] 같이 마리아와 함께 출발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은총의 보증이 됩니다. 하느님은 마리아를 예수님께 이르는 길로 정하셨고, 또 예수님은 성부께 이르는 길로 정하셨습니다."(1953년의 자필원고 쪽지) 그의 마지막 노고 중 하나는 Luigina G. Provera 박사와 Lydia Bonicco 박사가 운영하는 Rosta(Torino)의 "Mater Divinæ Gratiæ" 센터 유지에 관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이와 연관된 교의의 승인을 위해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다.(A. Damino, *Don Alberione al Concilio Vaticano II*, Ed.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P., Roma 1994, pp. 19 참조)

17. "여기 인도를 받고 있는 반 장님…", 이 부분은 거의 판독하기 힘든 글씨로 썼는데, 그 시기에 그분의 건강 상태를 잘 증언해 준다.

6) 도미니코 제3회에 가입한 것과 나에게 큰 도움이 된 알바시의 도미니코 제3회원 지도신부로 있었던 것.

7) 특히 1902년부터 기도의 사도직을 행한 것.

8) '성 요셉 선종회'와 '선종의 성모회' 일원이 된 것.[18]

18. 이 짧은 원고로써 저자는 '하느님이 바오로가족에게 베푸신 은총의 풍성한 부'에 대한 '감사'의 마지막 동기를 결론짓는다.

부 록

■ 일러두기

여기에 '하느님께서 바오로가족에게 베푸신 은총의 풍성한 부'를 더 잘 알고 이해하는 데 특별히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본문을 일련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이 본문은 주요 논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성바오로수도회, 성바오로딸수도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사도의모후수녀회, 협력자회. 그리고 '선언문Dichiarazione'과 영적 유언Testamento spirituale 외에 유언의 느낌이 드는 두 편의 쪽지글을 포함한 '작별인사Commiato'가 실릴 것이다.
좌우에 나열된 일련번호는 1985년도 비평본을 따른 것이다. 누락된 부분(205-214, 225-239, 251-278, 294-303)은 여기에 재수록할 필요가 없는(약간 변형되고) 반복되는 본문임을 알려 둔다.

■부록 I

성바오로수도회에 대하여

1. 초창기 바오로인에 대한 증언

자필원고에 '1954년 6월 9일, Roma'로 기재된 이 중요한 본문은 세 가지 원고 형태로 남아 있다. 자필원고와 타자원고 그리고 인쇄본이다. 우리가 세 번째 것을 출판하는 것은 이것을 결정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자필원고와 타자원고에는 생략] **205-214**

초창기 4년 사이에 티토 신부와 코스타 신부[1] 그리고 곧이어 합 **215**
세한 암브로시오 신부(1915년 10월 16일)[2]와 마르첼리노 신부(1916년 10월 16일)[3]는 바오로인의 삶에서 가장 관대하고 지적인 사람들

1. Don Tito Armani와 Don Desiderio Costa에 관해서는 상기 본문의 AD 105-106과 관련된 각주 참조.
2. Domenico Ambrosio의 세례명은 Michele, 1902년 6월 17일 Canale (Cuneo)에서 출생, 1915년 10월 16일 수도회 입회, 1921년 10월 5일 첫 서원, 1926년 12월 18일 사제수품, 1971년 3월 7일 Alba(Cuneo)에서 선종. 그에게 바친 감동적이고 실증적인 회고록이 있다. Armando Giovannini, *Don Domenico*, Edizioni Paoline, Alba 1971.
3. Paolo Marcellino의 세례명은 Bartolomeo, 1902년 11월 24일 출생, 1916년 10월 16일 입회, 1921년 10월 5일 첫 서원, 1925년 10월 18일 사제수품, 1978년 4월 16일 Ospedaletti(Imperia)에서 선종. 특히 일본(한국에 성바오

이었다고 말해야겠다. 참으로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

그때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만이 성 바오로의 첫 자녀들을 지탱하던 시기였다. 내 생애에서 신심, 덕, 헌신이 그들만큼 탁월하고 보기 드문 인물은 만나지 못했다.

216 '외적' 어려움은? … 주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지는 않으셨다. … 어려움을 감당할 자격도, 견딜 만한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1914-1918년의 세계대전은 수도회에 매우 힘든 시련이어서 마지막 전쟁(1939-1945)은 이에 비하면 5분이 1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한 어려움은 언제나 '내적인' 것이었다. 사제-저술가에 대한 개념과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도직을 위해 고양된 기술, 모든 사람과 현대 사상에 접근할 수 있는 보급을 잘 이루어내는 것이 문제였다.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실수가 생기게 마련이다. 주님은 당신 자비와 거룩하심으로 언제나 교만한 이들을 낮추신다.

217 다양한 임무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젊은이들을 거의 온종일 다른 교육자들에게 맡겨야 했다. 그들은 비록 좋은 교육자지만 바오로 정신을 지니지 않았으므로 마치 인쇄술을 배우기 위해 보호소에 위탁한 젊은이들을 다루듯 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었다. 곧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러나 이 '첫 네 사람'은 받은 지시에 지극히 충실하고 현명했으며 지극히 열성적이었

로수도회를 설립함-역주)에서 바오로인의 현존을 위해 공헌했다.

다. 시간이 지나자 로사 신부[4]의 젊은 직공들과 네 명의 바오로인 사이에 분열이 생겼는데 다른 젊은이들이 이 네 바오로인과 즉시 합류하게 되어 가족은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내가 없을 때에도 완전히 마음이 놓였고 편안했다. 막 싹트기 시작한 가족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1916년 8월 1일, 어린 마태오 보르고뇨[5]가 입회했다. 그는 앞서 **218** 입회한 네 사람에 비해 나이가 가장 어렸고 학년도 낮았으나 조판 분야에서 민첩하고 총명하게 사도직에 헌신함으로써 즉시 바오로 가족에 매우 유익한 인물이 되었다.

"새로 입회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 첫 네 명의 바오로인 얼굴을 보는 것은 마치 신학자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아 우리는 충만한 열의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1918-1919년 사이에 입회한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증언이다.

그 후에 입회한 다른 많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었고, 희생을 치르 **219** 며 본보기가 될 만큼 충실했다. 그러나 초창기에 겪은 어려움과는

---

4. Don Giuseppe Rosa(1875-1930)는 1914년 9월부터 1916년 초까지 알베리오네 신부를 도와 긴밀히 협력하였다. 1924-1925년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생겼고, Sacra Congregazione del Concilio(교황청 심의회)도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 성좌 기구에 이와 관련된 자료(n° 3211)가 보관되어 있다. 잔 카를로 로카(Giancarlo Rocca) 신부는 이 모든 문제에 관하여 필수적인 문서들을 출간했고, 첫 번째 역사적 조사를 했다. Rocca 신부는 *La formazione della P.S.S.P.*를 인용했다.
5. Matteo의 수도명은 Bernardo Borgogno, 1904년 4월 13일 La Morra (Cuneo)에서 출생, 1926년 12월 18일 사제수품, 1985년 7월 26일 Albano Laziale (Roma)에서 선종.

비교할 수 없었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느님이 이 일을 승인하신다는 사실과 교회 인가가 곧 뒤따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때문에 착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다.

220 자신들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이해력으로 초창기의 가장 무거운 짐을 져준 그 친애하는 형제들을 나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 하느님의 수중에 자신을 내어 맡긴 그들의 단순하고 굳건한 신앙,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화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은 많은 성소자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2. 수사Susa에서 초창기 바오로인에게 보낸 편지

알베리오네 신부는 1924년 8월 22일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는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 곧 그의 자녀들이 바오로적 성소에 더욱 잘 응답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AD에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자신과 바오로인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결산보고서〉에 관한 생각과 관련지어 바오로적 성소의 모든 위대함을 알리고 전해주고 있다.

221 *성바오로수도회의 형제들에게*

바로 어제 써 보냈지만 주님께서 성 베르나르도 축일에 알려주신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만족스러워할지 아니면 더 놀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처음에는 만족하기보다 놀랄 것입니다. 신학자(창립자 신부를 가리킴-역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중요한 보고서를 생각하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이렇게 작은 우리 공동체를, 살레시오가족의 **222**
큰 나무, 성 이냐시오가족의 아주 단단한 참나무, 도미니코회 회원들과 성 프란치스코의 자녀들인 탁발 수도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성 베네딕토의 자녀들이 이룬 놀라운 발전과 비교하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며 요청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모험가적 선교사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생애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중 반 이상은 그분이 하신 선을 행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다른 일부는 세 배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행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마음에 놀라운 일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은총 그리고 성소의 경이로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223**
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느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6](요한 16,12 참조)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침묵하며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감당할 수 없

6. "non potestis portare modo".(요한 16,12)

을 터인데, 우리 모두가 아직 주님이 바라시는 겸손, 극기, 사랑, 청빈, 신앙에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부스러기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224 친애하는 벗들이여, 성체조배 때 이 편지를 읽으십시오. 은총은 이미 주어졌고 결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우리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7](요한 6,20 참조)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두 팔로 꼭 껴안아야겠습니다.

1924년 8월 22일 수사에서
신학자

7. "Ego sum, nolite timere, omnia possum."(요한 6,20 참조)

■ 부록 II

성바오로딸수도회의 프리마 마에스트라에 관한 증언

알베리오네 신부의 비서 안토니오 스페찰레Antonio Speciale 신부는 1954년 4월 14일 성주간 수요일 자신의 일기(미출간)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늘 하시던 대로 지하성당에서 일찍 미사를 드리신 다음, 5시 15분 경 총본부 소성당으로 가셔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제들을 기다리셨는데, 이는 각자 성당에서 묵상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오늘 아침 '수난기 복음'이 봉독되는 미사 두 대에 참례하시며 7시 30분까지 그곳에 계셨다.

성당에서 나오신 다음 방으로 가시어 바오로가족의 회고록을 위해 세 개의 여자 수도회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 후에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라는 표제로 발간될 것이다. 무엇보다 프리마 마에스트라 테클라 메를로(FSP)의 성소와 그의 훌륭한 업적에 관해 많이 언급하셨다.

[…] [당신 손으로] 쓰신 원문은 총본부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날짜는 우리가 기입한 것이다.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은 원문의 복사본과 타자원고다. 원문은 큰 노트 세 장으로 되어 있고, 타자원고는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수정하셨으며, 마에스트라 이냐치아 발라의 마지막 몇 마디 말을 첨부한 것으로, '총본부' C[asa] G[eneralizia]라는 글자가 윗부분에 인쇄된 두 장의 종이('큰 판형. N.° 1545')로 되어 있다."

이 본문은 세 가지 편집본이 남아 있다. 수정하고 첨가한 부분이 많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자필원고, 역시 수정하고 첨가한 부분이 많은 타자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408-410쪽)에 실린 결정본으로 여기에 옮겨놓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서문으로 시작된다. "1922년 7월,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대피정을 위해 알바와 수사 수도원에 있는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들을 불러 모으셨다. 피정이 끝난 다음, 사적 종신서원을 하도록 그들을 초대하셨다. (…) 이때 테클라라는 이름을 수도명으로 받은 데레사 메를로[1894-1964]를 성바오로딸수도회의 프리마 마에스트라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적절한 첫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최근에 질문했을 때 존경하는 창립자는 이에 대한 당신의 기억, 현재 당신의 인상 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다."

225-239 [자필원고와 타자원고에는 생략]

240 그는 이제 막 시작한 남자 수도회 곁에 하나의 여성 수도가족을 창립하려는 생각을 털어놓고 제시했다. 사람들은 좋은 여성 몇 명을 그에게 추천했지만 그는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고 그다지 젊지도 않았다. 첫 번째 가족과 두 번째 가족(FSP와 PDDM-역주)에 입회한 몇 사람은 '참' 수도성소가 없음을 일찌감치 깨달아야 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요소였다! 하느님의 음성에 온순하게 따라갔다면 특수 사도직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차츰 형성되었을 것이다.

241 이런 걱정이 여러 달 지속되었다. … 그때 신학교 신학생들과 이미 영적 협력자로 뭉친 이들은 주님이 수도가족을 위해 섭리해 주시도록 5월 한 달 동안 미사를 봉헌했다.

그 달 말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알바 카스타니토에 홀

륭한 가정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신심 깊고, 지혜롭고, 온순하고, 착하여 수도생활을 잘 할 것입니다. … 그렇지만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몸이 약하고,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말씀하셨다. —"오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임무를 위해 충분한 건강과 필요한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1]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게 되었다. 성바오로딸수도회 **242**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동생, 바롤로 성당의 본당 신부요 참사위원이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는데 그의 도움이 특별히 컸다. 분명하게 하느님의 손길을 보는 듯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입회하자 마치 시험하듯이 병이 들었다. 그렇지만 곧바로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 우리는 주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우리의 '계약patto' 또는 '성공의 비결segreto di riuscita'에 담긴 내용으로서 많은 기회에 그리고 필요한 때 도움이 되었다.

어떤 이는 계속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허약한 건강 때문에 짐을 감당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는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patto'을 늘 되풀이했고 … 이 모든 것은 거의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활동하셨고 또 활동

1. Teresa Merlo는 1915년 6월 27일 성바오로 공동체에 입회했다. 그는 1894년에 Castagnito d'Alba에서 출생했으며, 미래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첫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1922년 7월 22일에 종신서원을 했다. 그때, 창립자는 여성 공동체의 'Prima Maestra'(Superiora generale: 총원장)로 임명했다. 1964년 2월 5일 Albano Laziale(Roma)에서 선종할 때까지 계속 성바오로딸수도회를 이끌었다.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선의와 '현명한 판단력'은 육체적 건강과 지식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43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초창기에는 삐꺽대는 순간이 많았다. … 그러나 모든 것은 '데레사'에게 자매들이 애정과 존경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참' 수도성소가 없는 사람들이 퇴회한 다음, 어느 날, 이미 모여 있던 많은 젊은 여성에게 데레사가 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발표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신심, 수도생활, 온순함, 수도회와 사도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그녀는 늘 진보했다.

그녀가 오늘날 완수해야 하는 활동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과도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244 그녀는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한결같은 조력자였다.

1) 성바오로딸들을 잘 양성하기 위해: 바오로딸은 무無에서 출발했고 단순함, 초자연성, 민첩함으로 어디서든 환영받으며 활동하는 영적 · 지적 · 사도적 양성에 이르게 되었다.

2) 특수 사도직에 바오로딸들을 파견하기 위해: 인간적 논리에 따르면 당시에는 보기 드물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지도로 바오로딸들은 저술가, 강사, 기술 전문가, 프로파간디스타, 영화와 라디오 분야에 적합한 종사자로 양성되었다.

3) 수많은 미묘한 상항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관련된 문제, 경제 문제, 몰이해, 시대적 상황, 병, 죽음 등의 문제.

4)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와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창립을 위해:

그녀는 두 수도회의 탄생 · 성장 · 승인을 위해 강력한 도움을 주었다. 두 수도회를 도와주었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경제적 도움을 주었고, 그들을 위해 희생을 치렀으며, 두 수도가족에게서 감사와 신뢰를 얻었다.

그녀는 권위가 아니라 모범과 선의로 더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245** 부드러움과 결단력, 현명함과 강인함을 조화시킬 줄 알았다. 공동체를 방문하기 위해 수많은 여행을 함께하면서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증언한 것과 같이 그녀는 참으로 하느님에게서 육체적 도움을 받았고, 초자연적 빛의 인도를 받았다.

성바오로딸수도회는 회원수, 공동체, 사도적 창안에서 성장하여 약 20개국으로 뻗어갔다.

성바오로딸수도회에는 프리마 마에스트라에 대한 두 권의 책이 **246** 있다. 첫번째 책은 그녀의 모범적인 일상 삶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책은 수녀들에게 한 그녀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훈화, 일반적이고 특별한 많은 공지사항 그리고 회람지 「사도의 모후*Regina Apostolorum*」에 실린 글을 모은 것이다. 이 모두를 합하면 이 책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바오로딸을 위해, 특히 방문을 통해 겨우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멀리 있는 회원들을 위해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지원자들을 위해 보물과 같은 훌륭하고 방대한 소중한 책이 될 것이다.[2]

---

2. 실제로 이러한 책이 출판되어 존재하고 있다. Margherita Baviera FSP 엮음, Tecla Merlo, *Un cuor solo un'anima sola*. Conferenze-meditazioni 1954-1963, Edizioni Paoline 1993, pp. 765 (작품 머리글자: CSAS).

■부록 III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에 대하여

1.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창립 이전의 역사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443쪽 이하에는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였다.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마리아 클레리아 아르라티Maria Clelia Arlati 수녀는 1946년도 알베리오네 신부의 다음 문서를 제시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문서는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창립 이전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회고록'인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에 생명을 불어넣은 정신과 잘 연결된다.

247 1908년 나는 성체조배와 사제적·전례적 사도직에 전념하며 관상생활을 하는 수도가족, 곧 성체의 신비 안에 현존하시는 천상 스승 예수께 온전히 속한 수도가족이 탄생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라고 부탁했다.

248 1920년경 7월 어느 날 아침, 성 바오로와 성 야고보께 바치는 구일기도를 마친 다음, 알바에 있는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 성당 사제관 옥상에서 참사위원 키에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사도직에 완전히 매료됨을 느꼈고, 내가 더욱 더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은 것에 관한 불확실함, 다양한 사람들, 재물 그리고 매우 사랑하는 성무 … 등에서 떠나야 하는 아픔을 어렴풋이 보았다. 눈을 감고 오직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 맡기며 그분 사랑에 나를 완전히 의탁한다는 것이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왔고, 더 나아가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호소와도 같았다.

참사위원 키에사는 모든 이야기를 또 한번 듣고 나서, 오직 하느 **249**
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믿음에 찬 어조로 말했다.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지지支持를 버리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느님만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기도에서 도움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고 심사숙고했다. 생생하고 끊임없는 두 가지 기도방식, 곧 죽은이들을 위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는 단체Opera delle Sante Messe와 사도직에 전념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얻기 위해 감실 앞에서 성체조배를 하는 여성 수도가족을 채택했다.

이 두 가지 일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부시켰다.

성소자를 찾는 일과 사제, 서원자의 성화.

성바오로수도회 수도생활을 교회법에 따라 창립 · 승인 · 강화시키는 일.

수도회를 안정시키고 세상에 확산시키는 일.

현재까지 우리가 건축한 성당은 성 바오로 성당, 스승 예수 성 **250**

당, 사도의 모후 성당이다.

성경의 인쇄 및 보급운동.

당시 최신 수단이었던 출판, 영화, 라디오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전부라고 여겼다.

2.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사명

1946년 말경, 알베리오네 신부는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사명'에 관한 매우 집약적이고 중요한 문서를 준비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자신의 생각을 더 확실하게 표현할 기회를 갖기 위해 (자주 자신의 말이 임의로 해석되기도 하고 성좌에 왜곡되어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원고를 쓴 다음, 마드레 마리아 루치아M. M. Lucia Ricci pddm에게 타자를 치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이를 마에스트로 자카르도에게 넘겼는데 그는 부수적인 요소까지 세세하게 재검토했다. 그런 다음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성바오로딸수도회 성당에서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련자들에게 읽어주었다. 그 자리에는 마드레 마리아 루치아도 참석했다. 그녀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묵상과 함께 출판했는데, 출판에 앞서 프리모 마에스트로께 보여드렸다. 이 묵상은 「경청하십시오*Ipsum audite*」 제1권에 수록되었다. 우리는 여기에 그 결정판 본문을 옮겨놓는다.

251–278 〔자필원고와 타자원고에는 생략〕

1946년 성탄, 로마

279 1908년 나는 성체조배와 사제적·전례적 사도직에 전념하며 관상생활을 하는 수도가족, 곧 성체의 신비 안에 현존하시는 천상 스승 예수께 온전히 속한 수도가족이 탄생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도회가 은총의 샘이 되어 다른 수도가족, 특히 사도적 삶에 전념하는 수도가족이 거기에서 은총을 길어올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수도가족의 생활방식과 창립하려는 **280**
다른 수도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이라는 책을 썼는데, 당대의 가능한 방식으로 이 책에 내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제들의 사도직과 일치하며 그 방향에 입각한 여성 사도직에 관해 조명했습니다.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신 영적 지도신부님의 말씀에 나를 맡겼 **281**
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그룹을 확보하십시오. 그 일이 생명력을 갖기 바란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뿌리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줄기, 가지, 꽃, 잎사귀, 열 **282**
매를 키우는 근본적이고 생명력 있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제이신 예수님과 그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언제나 구원경륜 안 **283**
에 일치해 계십니다. 따라서 언제나 은총의 경륜 안에 머무십니다. 마리아는 세상 끝날까지 은총의 중개자요 분배자십니다.

284 가) 마리아는 우리에게 천상 스승이며 사제요 성체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이신 어머니의 꽃이십니다.

"당신 추수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바치는 여러분의 기도로 성바오로수도회와 교회에 사제가 많이 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리아처럼' 내적 삶의 사도직, 열망의 사도직, 기도의 사도직, 고통의 사도직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동, 은인을 찾는 일, 사제직을 지망하는 지원자들에게 하는 봉사,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불태우는 열정으로 성소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매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성바오로수도회와 교회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alter Christus', 곧 한 명의 사제가 태어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285 나) 사제는 살아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사명을 수행하셨고, 마리아는 나자렛 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공생활, 수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기도의 임무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당신의 수많은 임무와 그분의 신비체인 교회와 관련된 임무를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제, 병상에 있는 사제, 세상을 떠난 사제를 위해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사제의 미사, 기도 그리고 사도직의 결실에 특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86 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신비체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실 안에 물리적으로, '참으로vere', '실재로

realiter', '실체로substantialiter' 현존하십니다. 미사, 실제적 현존, 영성체로써 교회와 사람들 마음에 온갖 선이 스며듭니다. 이는 성사와 준성사를 통해 솟아나고 흘러넘치는 생명의 샘물이며 수액입니다. 사람은 이 원천에, 예수님과의 일치에 도달해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것은 수단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성체적 마음으로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천상 스승 예수께 모든 것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실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287**

성체이신 예수님 앞에 살아 있는 '등불',

예수님과 함께 희생제물,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사도직에 속합니다.

감실과 그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영예로운 종',

받아서 나누어 주는 성체의 '천사',

성찬의 빵과 그 은총의 물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성체 안에 계신 신랑과 함께 그분의 원의, 목표, 모든 사람, 특히 그분 마음에 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 사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나누는 '마음',

마리아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성체이신 예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예수님의 절친한 벗'.

천상 스승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애정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여러 **288**
분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여러분에게 성소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당신의 충만한 성덕으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약속에 끝까지 충실하십니다.

289 라) 마리아는 사도들과 복음사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부들이 말하기를, 성 루카가 예수님의 사생활, 곧 잉태 예고, 성녀 엘리사벳 방문, 탄생, 성전에서 되찾은 사건, 나자렛에서의 예수의 순명, 나이와 지혜와 은총이 날로 더해 간 것에 대해 전한 이야기는 마리아에게서 들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290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례적 · 성체적 사도직을 마련해둔 까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호스티아로 충만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두어 두고 또 항상 숨겨둘 수 있겠습니까? 이를 여러분의 성소에 맞갖게 표현하고 드러내며 전파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의 집domus Dei'(전례 센터-역주)이라 부르는 여러 가지를 통해 창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성당, 소성당을 건축하고, 감실과 모든 성구를 제작하고 전례의 거룩한 보화를 설명하고 보여 주면서 이를 살고 활동하고 열매 맺으십시오.

291 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극진히 돌보아드린 사제, 페리노Perino 신부가 임종 중에 "나는 천국에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1]라고 한 약속과 함께 나의 넘치는 축복을 드립니다.

---

1. Giovanni, 수도명 Francesco Saverio Perino, 1913년 10월 31일 Front Canavese(Torino)에서 출생, 1946년 9월 9일 Sanfrè(Cuneo)에서 선종. 진리

1947년의 지침: 기도한다, 성소자를 찾는다.

M. 알베리오네

3. 교회가 가르친 전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문서고에 보관된 원본으로, 알베리오네 신부가 티모테오 자카르도 신부에게 보낸 편지다. 특별한 소식을 전하는 첫 면의 3분의 2를 생략하지만, 날짜 표기는 그대로 둔다. '1947년 3월 28일 로마'.(이 시기에 알베리오네 신부와 티모테오 자카르도 신부는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교구인가를 앞두고 그들의 회헌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있었다.-역주)

나는 스승 예수께 많은 영예와 사랑을 드릴 스승예수의제자수녀 **292**
회의 훌륭한 일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아직 가능하다면' 전례 사도직에 폭넓은 가능성을 줄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합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 교의에서 샘솟는 하느님의 신비를 공경하고 신심과 **293**
기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가르쳐 주는 전례를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이같은 방식으로 전례를 살고 베네딕토수도회의 큰 전례 센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알리십시오."

와 애덕에 대한 사랑을 특징으로 드러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삶에서 나는 언제나 진리를 찾았고 또 만일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생명을 내어놓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유일한 것, 곧 사랑을 목표로 삼는다." 그는 성바오로수도회의 총원장으로서 알베리오네 신부의 세 번째 후계자 Renato Perino 신부의 큰형이다.

4. 세 가지 필요와 세 가지 사도직

날짜도 없고 일련번호도 없는 세 장의 종이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알베리오네 신부 문서고에 원본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 본문의 마지막 서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의 453쪽과 456쪽에 실렸다.

294-303 [자필원고에는 생략]

304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오랫동안 숙고했다.] 그때까지 교회 안에서 여러 수도회가 나누어 행하던 세 가지 필요와 세 가지 사도직에 대해서다.

305 성체 사도직: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형태와 조직은 부족한 상태 …. 성체 신심이 '사도직이 되어야 하고', 천상 스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06 전례 사도직: 하느님은 교회 안에서 구두 설교를 원하셨다. 그러나 역사는 경신례를 통한 설교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 가르쳐준다. 전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인간에게 신적 생명을 분배하며, 신앙과 윤리에 관한 적극적인 교육, 설교한 진리와 가르친 윤리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여 살게 하는 수단이다. 위대한 스승들을 힙입어 쇄신된 전례는 이제 대중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례는 현대적 수단을 통해 전파되어야 하는 성령의 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교는 어려움이 많아 사도들과 사도직을 위한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

사제 봉사 사도직: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 스승의 뜻에 따라 바오 **307**
로가족을 창립하기 위해 첫 수도가정인 성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요셉에 관한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했다. 다시 말해 인류에게 천상 스승, 영원한 사제, 성체-제물을 마련해 주신 마리아의 정신으로 행하는 사제적 봉사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봉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보살핌'(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는 성소자를 청하고 도와준다), 집안에서의 '봉사', 사제가 성무를 집행하는 동안 기도로 '동반'하는 일, 간호 업무, 연도 등의 '도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성체 사도직'은 특히 천상 스승의 승 **308**
리로 방향지어져 있다. 가톨릭 신앙의 승리, 곧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대학·신문·철학·과학·영화·라디오·텔레비전·강연 등—이 모두 복음에서 영감을 받고 복음에 일치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교회법과 교회의 여러 규정, 계명과 복음적 권고, 민법을 통해 가톨릭 '윤리'를 지향하고 개인·가정·사회·국가의 건전한 관습, 임종자, 연옥영혼, 사람들의 성화를 지향한다.

더 나아가 성사생활, 성직자, 일반적으로 교계제도에 속하는 모든 이의 성화, 고해성사, 영성체, 미사에 대한 사랑, 모든 면에서의 사도직 발전, 사제적 열의, 곧 수도생활, 가톨릭 활동, 선교활동의 폭넓은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지향한다.

■부록 IV

선한목자예수수녀회에 대하여

선한목자예수수녀회Le Suore Pastorelle

1947년 1월, 알베리오네 신부는 선한목자예수수녀회에 한 회람지를 쓰셨는데, 이는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묵상집 「원천으로*Alla Sorgente*」이며, 「선한목자예수수녀회」(Albano, 1969, pp. 56-60)에 다시 게재했다. 이 본문은 몇 가지 수정과 더불어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타자원고로 재발견되었는데, 「사목생활*Vita Pastorale*」에 실릴 글로 바꾸기 위해 알베리오네 신부가 특별히 개입하여 더욱 귀중한 것이 되었다. (그 잡지에 '본당 수녀'들인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많은 글을 실었다.) 여기에 타자원고 본문을 제시한다. 헬레나 보세띠Elena Bosetti 수녀의 논문 참조. 「복음에 나오는 착한 목자에 대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주석*Un commento di G. Alberione al Vangelo del Buon Pastore*」, in: Aa. Vv., 「사목적 카리스마. 선한목자예수수녀회에 대한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생각*Un carisma pastorale. La proposta di Giacomo Alberione alle Suore di Gesù Buon Pastore*」, 「카리스마에 대한 세미나 자료*Atti del Seminario sul carisma*」, Albano Laziale (Roma), 27 giugno-9 luglio 1984, 141-164쪽에는 이 문서의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I.M.I.P.(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역주) **309**

얼마 전부터 나는 하느님의 은총, 곧 더 큰 빛, 더 큰 사랑, 더 많은 내적 활동, 더 큰 사목 정신이 그들 가족의 많은 사람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더 열심한 영적 삶과 더 활발한 사목성이 필요합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염원, 경건하고 가치 있는 열망입니까. 많은 본당에 선한목자회 수녀들[1]이 존재하기를! 그렇지만 유치원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수녀들의 그룹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명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선한목자예수수녀들의 그룹이어야 합니다.

성 바오로는 우리에게 사제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310**
그리고 천상 스승 친히 "나는 착한 목자다.Ego sum Pastor bonus."(요한 10,11)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목자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제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상을 완성시켜주고 사람에게 미치는 유익한 활동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자의 역할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을 주신 복음 구절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본문의 모든 말씀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숙고하면서 우리의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

1. 여기서도 그 다음에도 타자원고에는 수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은 여전히 'Pastorine'라고 명명되었음을 주목할 것.

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그는 삯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요한 10,11-16)

311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Hoc proverbium dixit eis Iesus."(요한 10,6)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예언자(시편 78,2)는 이미 이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당신 의 사도적 직무를 깨닫도록 그분은 이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312 한 목자를 상상해 봅시다. "양들의 목자Pastor… ovium"(요한 10,2), 명확하게 이해하자면 "삯꾼은 …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mercenarius … cuius non sunt oves propriæ"(요한 10,12), 곧 그는 자기 것이 아닌 양 떼를 지키고 보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양 떼가 주인의 것이라면 삯꾼은 양들의 선익에는 관심을 덜 갖습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non pertinet ad eum de ovibus."(요한 10,13) 그가 양 떼의 주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양 떼를 보호하고 잘 지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와 같으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칭호는 우리가 그분께 속한 존재임을 일러줍니다. 그분은 창조주, 주의 깊은 관리인이시며 당신의 귀중한 피값으로 그들을 악마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피로써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Non estis vestri, empti enim estis pretio magno."(1코린 6,19 참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그들의 관계는 밀접합니다. 그분에게 그들은 소중합니다. 이 점에 있어 사제는 목자이신 하느님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는 천상의 갚음에 대한 희망으로 인간을 방목하는 단순한 삯꾼이 아니라 참된 목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총으로 낳고 성사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들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듯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은 목자인 사제와 함께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며 그들과 같은 배려, 같은 목표, 같은 수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313**

복음서에 나오는 목자는 양 떼의 소유주일 뿐 아니라 양 우리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할 때 그곳에 들어가고, 원할 때 그곳에서 나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Qui intrat per ostium, pastor est ovium."(요한 10,2) 그는 도둑처럼 창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Qui non intrat per ostium in ovile ovium, sed ascendit aliunde, ille fur est et latro."(요한 10,1) **314**

그가 나타나면 문지기는 즉시 문을 열어줍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준다.Huic ostiarius aperit.”(요한 10,3) 예수님은 분명 당신 스스로 목자의 직분을 임의로 취한 것이 아니라 천상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Hoc mandatum accepi a Patre meo.”(요한 10,18) 에제키엘 예언자는 우리에게 파견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그들 위에 유일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Suscitabo super eas (pecus) Pastorem unum, qui pascat eas.”(에제 34,23) 이와 같은 일은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만이 사제직으로,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의 수도생활로 부르십니다.

315 언뜻 보면 이상하겠지만, 예수님은 목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양우리의 문이라고도 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Ego sum ostium ovium.”(요한 10,7) 이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Per me, si quis introierit, salvabitur.”(요한 10,9) 고 하셨듯이 그분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문일뿐 아니라, 더 타당한 이유로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Non vos me elegistis, sed ego elegi vos.”(요한 15,16) 하신 말씀처럼 사제들과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16 착한 목자와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의 으뜸가는 특징은 양들을 알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그들의 관심

사가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이고, 후자는 양들이 그들의 현존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나는 내 양들을 안다.Cognosco oves meas."(요한 10,14) 고 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하나하나 아시고 모두에게 고유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Proprias oves vocat nomine."(요한 10,3)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Cum esses sub ficu vidi te."(요한 4,48) 니코데모[2]는 낯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목자와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도 하느님 백성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상태'를 돌보라고 명합니다. 이를 게을리한다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사인 동시에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양들은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내 양들은 나를 안다. Cognoscunt me meæ."(요한 10,14) 또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보는 행위보다는 듣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Oves vocem eius audiunt."(요한 10,3)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sciunt vocem eius."(요한 10,4) 낯선 이의 목소리는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Fugiunt ab eo, quia non noverunt vocem alienorum."(요한 10,5)

---

2. 사실은 나타나엘(Natanaele), 곧 바르톨로메오(Bartolomeo)에 관한 내용이다. 성경인용도 실은 요한 4,48이 아니라 1,48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입니까! 이는 눈으로 보는 육체적 실체에 대한 앎의 문제가 아니라 경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앎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리로 그리고 스승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의 직무로써 그들에게 우리를 알게 해야 합니다.

317 착한 목자는 매일 아침 양들을 우리 밖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et educit eas."(요한 10,3) 그는 그들을 비옥한 목초지와 맑은 샘, 곧 묵상과 성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그들이 따라 오도록 그들을 앞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Ante eas vadit, et oves illum sequuntur."(요한 10,4) 양들이 낯선 이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alienum autem non sequuntur, sed fugiunt ab eo."(요한 10,5)

318 또 다른 귀중한 가르침: 우리는 양들의 좋은 표양이 되어 앞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군중에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Omnia quæ cumque dixerint vobis servate et facite; secundum opera vero illorum nolite facere."(마태 23,3)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옛 율법의 사제들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Cæpit facere et docere."(사도 1,1)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당신 양 떼를 기르셨지만 먼저 당신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된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입니다. 그렇게 인도되어 "풀밭을 찾아 얻는pascua inveniet"(요한 10, 9) 양 떼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한편으로는 도둑의 위협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 **319**
리의 위협을 받습니다. 도둑은 양들을 우리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자기 우리로 데려가려 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Fur non venit, nisi ut furetur, et mactet."(요한 10,10) 이리는 양들을 물어뜯고 죽일 것입니다.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Lupus rapit et disperdit oves."(요한 10,12) 양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목자와 참된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가 드러날 것입니다.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Mercenarius et qui non est pastor, cuius non sunt oves propriæ, videt lupum venientem et dimittit oves, et fugit."(요한 10,12) 그 대신 참된 목자와 참된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는 생명도 내어놓고 양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Bonus pastor animam suam dat pro ovibus suis."(요한 10,11)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정신과 마음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끌어내어 오류의 추종자로 만들려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 곧 죽음으로 이끌려는 이리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느님은 모든 이에게 진리와 은총을 보장하시며 오류와 죄에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이 자비로운 행위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내몰리셨습니다. 나쁘고 사악한 동족들은 그분

을 죽이라고 요구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목자는 부활하셨고, 당신의 양 떼를 사제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양 떼를 보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그분이 지니셨던 바로 그 관대한 마음으로 양 떼를 돌보아야 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Ego veni ut vitam habeant et abundantius habeant."(요한 10,10)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은 사제의 이 위대한 사목 직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치합니다.

320 한편 예수님은 당신의 소중한 양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강조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상황, 곧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당신 생명을 희생하고 기꺼이 내어주신 그 처지에 놓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Animam meam pono pro ovibus meis."(요한 10,15) 비록 그렇게 원하셨다 해도 충분히 목숨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Ego pono animam meam, et iterum sumam eam."(요한 10,15-17) 그분의 목숨은 우리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양들의 원수요, 목자이신 하느님의 원수인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갈 줄 알아야 합니다.

321 양들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Si perdiderit unam ex illis"(루가 15,4)이라고 했듯이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

니다! 방목 중에, 양이 본능을 따라 더 싱싱하고 더 많은 풀을 찾아 가다가 양 떼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파른 절벽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다가 깊은 계곡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착한 목자는 이를 알아채자마자 그 양을 찾기 위해 다른 양들을 우리에 남겨둔 채 벼랑 아래 깊숙이까지 내려갑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Vadit ad illam quæ perierat, donec inveniat eam?"(루카 15,4)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으면 그 양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지팡이로 때려 산 비탈로 밀어붙이지도 않고 사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양우리로 데려옵니다.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Imponit super humeros suos gaudens…."(루카 15,5) 구세주의 이러한 생생하고도 감명 깊은 이미지는 수없이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Venit filius hominis quærere et salvum facere quod perierat."(루카 19,10) 그리고 죄 때문에 내쳐졌던 죄인을 하늘의 우리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사제들은 가엾은 죄인들을 사랑으로 길러주어야 하며, 그들을 교회 · 은총 ·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도 그들의 드높은 성소에 걸맞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길 잃고 방황하는 이런 양들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322**
수만에 이릅니다. 20세기 그리스도교에는 도둑과 이리가 엄청난 파괴를 몰고 왔는데, 이는 최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탓이 아니라 양들이 이를 묵과하고, 일부 비주류 사목자들이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상기시키면서 슬픈 어조로 말씀하

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Et alias oves habeo, quæ non sunt ex hoc ovili.”(요한 10,16) 그러나 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Et illas oportet me adducere, et vocem meam audient: et fiet unum ovile et unus pastor.”(요한 10,16) 이것이 바로 목자와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거의 모두가 열성적이면 하나의 양우리에 대한 이 훌륭한 이상은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지상에서 기도하셨고, 하늘에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Ut omnes sint unum.”(요한 17장) 누구나 진리, 은총, 자비라는 당신의 모든 보화를 사용하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선익과 목자이신 하느님의 승리를 위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목자와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에게 속한 일입니다.

323 이것이 바로 천사 같은 박사(토마스 아퀴나스를 가리키는 경칭-역주)의 감미로운 기도입니다. “참된 음식 착한 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 자비 베푸소서. 저희 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 행복 보이소서.Bone pastor, panis vere, Iesu nostri miserere: Tu nos pasce, nos tuere, tu nos bona fac videre in terra viventium!.”(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딸림 노래인 〈성체송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역주)

324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은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통달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획득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완전히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져 한 본당에 거주합니다. 이 본당에서 사람들을 양자로 삼듯이 자기 자녀로 여기고, 그들 모두를 구원한다는 유일한 열망에서 그들에게 삶, 죽음, 영원을 통해 결속되어 있음을 느끼며, 사도직에 관한 한 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일에 있어 본당사제와 협력합니다. 악을 없애고 선을 정착시키며, 회개시키고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고 선종하도록 이끌어주며, 어린이들, 젊은이들, 여인들에게서 시작하여 … 본당신부의 프로그램과 사랑의 계획에 협력합니다. 매일 구원하기 위해 매일 죽고, 선종을 위한 준비에만 만족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위해 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매, 어머니, 스승, 교리교사, 모든 고통의 위로자, 본당의 지지 않는 은혜로운 태양, 빛나는 햇살입니다.

M. 알베리오네

이 사람에게 글을 쓰십시오: **325**
알베리오네 신부 Via Grottaperfetta 58, Roma
또는 선한목자예수수녀회 마드레 첼리나 오르시니
Albano di Roma.

■부록 V

사도의모후수녀회에 대하여

1. 회헌 수정과 첨부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도의모후수녀회(Suore Apostoline 또는 Istituto 'Regina Apostolorum') 회헌 초반부 조항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했다. 제1장의 첫 아홉 개 조항에 관한 다음 본문이 그 증거로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많은 부분을 수정했을 뿐 아니라 특히 그 내용을 보강했다.

326 성소를 위한 사도의모후수녀회

제1장. 수도회의 목적과 정신

1. 성소를 위한 '사도의모후' 수녀회의 '일반'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회원의 성화로서, 순명 정결 청빈이라는 세 가지 서원의 '충실한' 실천과 '거룩한 교회법과 본 회헌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를 실천한다.

327 2. 수도회의 '특수' 목적은 성소사목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통적 수단과 현대적 수단(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사진 등)을 통하여 성소를 위한 세 가지 특별한 활동, 곧 발굴하고 양성하며

지원한다.

가) 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 곧 성소에 대해 모든 신자를 교육시키는 일.

나) 활동: 사제직 또는 완덕의 삶을 지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하고 센터를 건립하며 본당, 학교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성소를 위한 모임을 마련하고, 성소주간, 3일기도, 피정, 성소의 날 등을 주관하며, 팸플릿, 서적, 정기간행물,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등을 준비하고, 강연회와 즐거운 모임을 개최하고, 수도복 만드는 작업실을 운영하고, 가난한 성소자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는 일.

다) 기도: 스승 예수, 사도의 모후, 성 바오로 사도께 대한 신심, 성체이신 예수께 대한 흠숭, 어린이, 부모, 여러 수도회를 위한 기도를 촉진하고, 항상 성소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지원하기 위해 희생의 날 등을 지내는 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성소사목 사도직으로 전환시킨다.

3. 수도회의 이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28**

"모든 가톨릭 신자는 온 힘을 다해 모든 수단을 통하여, 모든 성소와 모든 사도직을 위해 일하도록."

"모든 신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심한 모든 신자는 무관심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가톨릭 신자는 모든 비가톨릭 신자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심 받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소에 충실하고,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이 거룩하게 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교회에 순종하도록."

329 4. 수도회는 수도성소와 사제성소에 관하여 성좌의 지침과 문헌에 담긴 내용을 열심히 따라야 할 것이다. '수도회성'과 '신학교와 교육기관성'에 설립된 성소를 위한 두 개의 교황청 기관에 딸린 모임을 조직한다.

자선과 사회활동, 종교교육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신례에 헌신하는 평신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330 5. 성좌의 허락 없이는 수도회의 특수 목적을 변경시킬 수 없으며, 그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을 '영구히' 첨가할 수 없다.

6. 수도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사도직과 기부금으로 살아간다. 수도회의 목적과 정신을 위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을 보고 신뢰로써 가까이 다가가도록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거처도 수녀들에게 적절하고 편리해야 하지만, 사치하거나 지나치게 꾸며서는 안 된다.

331 7. 자신들의 사명과 수도회 정신에 충실함으로써 '사도의 모후' 수녀회 회원들은 당신께 신뢰하는 이에게 언제나 자애로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네 신앙을 살아간다.

8. 회원들은 그들의 섬세한 사도직을 완수하기 위해 항상 부드러

움과 '강함'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들의 '빛'이요, 위로며 상급이신 천상 스승을 닮아야 한다.

9. '사도의 모후' 수녀회 회원들은 스승 예수와 사도의 모후 그리고 성 바오로 사도께 대한 특별한 신심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2. 모든 성소를 위한 성소사목 수녀회

1961년 9월 15일, 알베리오네 신부는 알바의 신학교에서 몬시뇰 카를로 스토파mons. Carlo Stoppa 주교의 8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성소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그때 그가 한 강연 주제가 '성소'였는데, 그 내용이 「사목생활*Vita Pastorale*」 1961년 11월호에도 실렸다. 첫 부분은 *San Paolo* 1961년 11월호에 기사로 사용했다. 이 강연 내용은 자필원고본과 타자원고본이 있는데, 에스포지토Esposito 신부가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Carissimi in San Paolo*」 138-140쪽과 190쪽에서 언급했다. 여기에는 녹취록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게재한다. 강연의 편집본과 또 다른 편집본의 차이에 대한 비평 주석을 겸한 그 출판에 관해서는 사도의모후수녀회에서 한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강론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찬미 예수님. **332**

신학교의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 들어서면, 여기에서 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정이 되살아나고, 신학교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신학교는 교구의 박동하는 심장입니다! 특히 이 주간에 성소에 대해 그리고 이곳에서 주교님과 그분의 훌륭한 협력자들이 지혜와 선의로 전해 주신 양성에 관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회상하게 됩니다.

333 신학교는 성광에 비길 수 있습니다. 새 사제들은 여기서 배운 것을 전하기 위해 이 중심부에서 빛과 열정의 광채처럼 여러 발령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고군분투하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 계속적인 발전 그리고 특히 이 며칠 간의 정중한 환대, 이 모든 것은 신학교를 공동의 집, 우리 집, 아버지의 집처럼 생각하게 해줍니다. 현관문에 입맞춤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고, 소소한 문제들이었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곳,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주시던 분의 거처, 침실을 보아야 할 것같이 느껴집니다. 신학교의 발전에 감탄한 후 곧바로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이 거룩한 감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길을 착한 의견의 어머니께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 창살 뒤로는, 주교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 이곳은 우리의 안전, 우리의 성화, 우리의 미래, 미래의 성무, 영원한 구원,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334 피차르도Pizzardo 추기경께서는 제게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성소'를 주제로 한 전시회의 창의력이 기릴 만한데 그것은 또한 주교님의 80회 생신을 기념하는 기회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전시회는 알바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고, 이어 다른 교구로 확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27년 알바에서, 당시 주교님이셨던 몬시뇰 레의 후원으로 제1차 복음대회가 열렸는데, 연이어 여러 교구와 본당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금은 바오로가족만 해도 1년에, 이탈리아에서 1356회의 복음주간 또는 3일기도를 개최했습니다.

* * *

창조주이신 주님은 성소를 주시고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들을 뽑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삶의 어떤 순간에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제는 성 바오로와 함께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셨습니다.Qui, *cioè Dio* me segregavit ex utero matris meæ."[갈라 1,15 참조] 그런데 [성 바오로는] 청년기와 장년기 사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일하기 위함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를 마친, 건전한 희망을 간직한 소년들을 받아들이는 예비 성소자 집이 있습니다. 일반 성소자들, 신학생들과 수도 성소자들, 이탈리아 사람인 경우 특히 12-13세 가량의 젊은이들을 받아들입니다. 뒤늦게 부르심을 받아 지망하는 어른 성소자를 위한 신학교와 수도 성소자를 위한 집이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종소리, 사도의 모후께서 앞당기실 수 있는 하느님의 때를 듣기 위해 귀를 열어놓아야겠습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O altitudo divitiarum sapientiæ et scientiæ Dei! Quam incomprehensibilia sunt iudicia eius et investigabiles viæ eius! Quis cognovit sensum Domini? aut quis consiliarius eius fuit?"[로마 11,33-34 참조] **335**

336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에서 성바오로수도회는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12세부터 15세까지의 젊은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금년에는 예비 성소자의 집이 모데나에 생겼고, 선한목자예수수녀회에서 책임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예비 성소자의 집도 이탈리아 북부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성한 성소자를 위한 집이 알바노에서 문을 열었는데 성바오로수도회 사제들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 *

337 성좌의 이니셔티브[1]로 모든 성소를 위한 '사도의 모후' 성소사목수도회가 발족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성소 전시회에 많은 사람이 기여했으나, 이 수도회의 착상에서 나온 것 중 하나입니다. 수녀들은 기도와 그들 회원수에 따라 가능한 활동으로 모든 성소를 위해 일합니다. 그들이 매일 바치는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338 사제직과 수도신분, 모든 성소의 창시자이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흠숭.

성소를 소홀히 하여 방해하거나 배반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해드린 것에 대한 보속.

---

1. 타자원고에는 '이니셔티브(iniziativa)'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진 '주장(insistenza)'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참조: *Carissimi in San Paolo*, p. 140 그리고 *Ut perfectus sit homo Dei* I, 122: "성소를 위한 수도회에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우리를 이끄는 장상들의 주장 다음에 나는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 사도의모후수녀회(Istituto Regina Apostolorum)를 발족시켰습니다."

모든 성소가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을 지향하도록.

모든 사람이 "수확할 것은 많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를 이해하도록.

어느 곳이든 성소에 상응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적합한 가정적·수도적·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부모, 사제, 교육자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말과 물질적·영적 도움으로 길을 열어주도록.

성소자를 발굴하고 양성할 때,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모든 성소와 모든 사도직을 위해 모든 가톨릭 신자 안에 성소에 대한 깊은 의식이 형성되도록.

성소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기도, 특히 미사 다음으로는 **339**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면서 복음서를 봉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pernoctans orationem Dei."(루카 6,12 참조) 예수님이 밤 새워 기도하신 다음어떻게 당신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양성시키셨는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모으고 양성하셨는지를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신학교의 큰 발전을 보면서, 성직자가 한층 더 영적·윤 **340** 리적으로 진보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남녀 수도자들도 가능한 한

항상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아감으로써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이 되게 합시다. 성성은 끌어당기는, 특히 순수하고 천진한 마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당신부를 '둘러싸고 있는', 보좌신부를 '둘러싸고 있는' 어린이들은 때로 귀찮은 개구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마르 10, 14; 루카 18,16 참조) 하신 어린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

■부록 VI

바오로 협력자회에 대하여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483쪽)에 실린, 1954년 6월 11일자의 흥미로운 본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본문은 첫 번째 자필원고 편집본에도 보존되어 있고, 알베리오네 신부가 약간 수정하고 첨가한 타자원고 편집본에도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편집본을 발행한다.

1954년 6월 11일

협력자들은 바오로가족을 이해하고 그 정신과 뜻에 일치하는 사 **341**
람들이다. 그들은 가능한 방식으로 두 가지 주요 목적을 받아들여 그들의 힘이 닿는 한 기여할 것이다. 한편 바오로가족은 그리스도교적 교육으로 그들이 진보하도록 돕고, 귀감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며, 수도회의 보화와 보람 있는 사도직에 참여시키기 바란다.

수도회의 보화를 그들과 나눔으로써 참된 우정이 자리한다. **342**

협력자들은 복음적 의미에서 지상의 재물에 대한 이탈로써 청빈을, 그들 신분에 따라 몸가짐을 순결하게 지키면서 정결을, 그들의 가정 · 사회 · 교회 어른에게 소속하여 살아가면서 순명을 살며, 성바오로수도회가 사용하는 가장 신속하고 폭넓은 수단을 이용하여

출판물 보급으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기도 · 활동 · 희사로 협력함으로써 바오로인의 수도생활을 본받고자 한다.

343 바오로가족은 그들에게 자기네 계획을 알리고 실현해야 할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그들을 고통과 기쁨에 동참하게 하고, 정기간행물 「바오로 협력자회*Il Cooperatore Paolino*」를 통해 성화의 수단을 제시한다. 그뿐 아니라 바오로가족은 협력자들이 살아 있든 이미 세상을 떠났든 매년 그들을 위해 2400대의 미사를 거행하며 기도한다.

344 바오로가족은 '수도생활'과 '사도직'이라는 두 가지 사랑의 규범을 완벽하게 살 것을 지향한다. 그 대신 협력자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 을 살고 '사도직'에 봉사하면서 똑같은 이 두 가지 규범을 동시에 살아가고자 한다. 모두 함께 성 바오로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 증진을 목표로,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의 '결합체'를 이룬다.

■ 부록 VII

‘선언문’

알베리오네 신부가 매우 정성들여 쓰고 이중으로 날짜를 기입한 이 자필원고 본문은, 그가 이 ‘선언문’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이 선언문은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지 않기에 그의 ‘후계자들’이 신중하게 고찰해야 할 소재다. 그는 ‘자신이 하던 일을 완성시켜야 하는 거룩한 유산’을 후계자들에게 물려주었다. 이중의 서명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하여튼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신의 80세 생일을 기념하여 전형적인 자신의 권고를 종이에 첨가했다.

격려와 희망 **345**

1963년 8월 10일, 아리차

선언문

하느님의 영감에 따라 우리 여자 수도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남자 수도회 곁에 있어야 합니다.(예: 살레시오수도회와 살레시오수녀회) 이와 같이 성바오로딸수도회는 성바오로수도회 곁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례를 위한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와 전례와 흠숭을 위한 사제들. **346**
선한목자예수수녀회와 사목자들. 사도의모후수녀회와 사도들.

젊은이들을 사제직에 이르도록 준비시켜야 하는데, 내가 이 모 **347**

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녀들이 젊은 예비 성소자의 집[1]에서 준비시켜, 일부는 성바오로수도회에서 사제직에 오를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사목 실습 기간을 거친 후 … 별도의 그룹을 형성할 것이며,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고 활동하는 여자 수도회들 가운데 남자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348 이것이 내가 하던 일을 완성하도록 내 후임자들에게 맡기는 거룩한 유산입니다.

1963년 8월 10일, 아리차
사제 야고보 요셉 알베리오네

349 나는 케라스코의 성 프란치스코회(성 베드로 성당: 케라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13세기의 성당–역주), 알바 (신학교)의 성 필립보 네리회, 카스타뇰레 란체의 성 요한 네포무체회(높은 본당: 카스타뇰레에는 언덕 위에 있는 높은 카스타뇰레라는 지역과 평야에 있는 낮은 카스타뇰레라는 두 지역이 있다. 성 요한 네포무체회는 높은 카스타뇰레에 있는 한 성당이다–역주)의 회원입니다. 내 죽음을 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미사를 봉헌하는 임무에 만족했습니다. 이처럼 회원들도 나를 위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4년 4월 4일, 로마
사제 야고보 알베리오네

---

1. 선한목자예수수녀회(Suore Pastorelle)는 1961년 10월 10일 Saliceto Panaro (Modena)에 실제로 하나의 남성 '예비 성소자의 집'(prevocazionario maschile)이 생겼고,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에서도 Thiene(Vicenza)에 남성 예비 성소자의 집을 열 것이다. 1962년 10월 21일, 로마에서 '전문화(specializzazione)'를 목적으로 성바오로 영화사(Sampaolofilm) 옆에 사제들과 수사들의 준비를 위한 성소자 기숙사가 마련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 부록 VIII

작별인사

지금까지 이 모든 '바오로가족의 카리스마 역사'와 부록을 마치면서 유언의 의미가 분명한 세 가지 본문을 싣는다. 첫 번째 본문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영적 인품을 아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문서로서,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의 첫 부분에 이미 소개한 생각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1960년의 것으로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I, 374 이하에 실려 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중대함을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 **350**
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부적당하고 무능한 사람을 찾아 내셨다면 주님은 분명 그를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이 뜻하셨고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보증입니다. 마치 화가가 하찮은 보통 붓, 무엇을 그리는지 모르는 장님과도 같은 붓으로 아름다운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것과 같습니다.(다음은 귀도 신부의 해설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로서, 자신은 오로지 주님 손에 들려 있는 도구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화가〈천상 아버지〉가 보통 붓, 별로 가치가 없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붓, 곧 무슨 작업을 하는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붓〈알베리오네 신부〉을 손에 집어

든 것과 같다. 오직 아버지 하느님만이 이처럼 부적당한 그 붓이 아름다운 천상 스승까지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역주)

우리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위에 세워졌다는 확신은 신뢰와 기쁨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351 영적 유언

두 장의 자필원고

성바오로수도회-알바-로마

수도자들에게 남긴 유언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1967년 8월 6일, 로마

친애하는 바오로가족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헤어지지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두 영원히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모든 남녀 회원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인내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이나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나 제시한 모든 방향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52 삶과 기도가 그러하듯 무한한 가치를 지닌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 께서 수도생활 완덕과 사도직 모두를 비추시길 빕니다.

고인들을 위해 행한 나의 위대한 사랑의 기도(바오로가족 기도서 화요일 주간기도 참조-역주)와 성 필립보,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카스타뇰레(카스타뇰레의 높은 지대에 있는 본당)의 사제회(1914년 이전)를 위해 내가 늘 바친 수많은 미사 전례대로 내 권리에 따라 나의 명복을 위한 미사를 기다립니다. 나는 모든 형제를 위해 모든 것을 완수했습니다. **353**

내가 봉사한 형제들, 자매들과 협력자들과 친구들[에게서도] 의무나 애덕으로 미사와 명복을 비는 기도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스승이요 아버지이신 성 바오로 사도를 따르십시오. 언제나 스승이요 사도의 모후이신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따르고 사랑하며 전하십시오. **354**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Benedicat omnipotens Deus,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omnes."

1968년 3월 19일, 로마-확인
사제 요셉 야고보 알베리오네

주님의 강복을… **355**

회기 중에 알베리오네 신부를 '명예 총원장'으로 선언한 성바오로수도회의 특별 총회(1969년)를 거행하기 몇 달 전, 그는 바오로가족에 관한 폭넓은 보고서를 「성바오로*San Paolo*」(1968년 9월-11월호)에 싣게 했다. 위에 인용한 소제목으로 시작하는 여는 말과 여기에 게재하는 결론 부분(CISP 245 참조)은 그가 직접 쓴 것이다.

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1914년부터 1968년까지 하

느님의 은총으로 사도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 84세에 이르렀습니다. 내 삶은 시간과 더불어 막을 내리고 영원으로 넘어갑니다. 언제나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 '희망' '사랑'을 되풀이합니다.

모두 영원한 기쁨 안에 일치하십시오.

사제 야고보 알베리오네

색 인

* 색인에 사용된 숫자는 본문 좌우편에 있는 항목을 가리킨다.
* 사체로 된 숫자는 해당항목에 따른 각주를 가리킨다.
* 숫자 앞에 'c' 자가 붙은 것은 부록편 각 장에 (작은 글자로 된) 입문을 가리킨다.

성경 인용 색인

창세	3,5	*187*
시편	51	*1*
	68,12	*199*
	78,2	311
지혜	8,1	*43*, 78
에제	34,23	314
마태	5,13-14	87
	11,28	15
	19,29	*24*
	23,3	318
	28,19	*81*, *82*
	28,20	*16*
마르	12,30	*24*
	16,15	*81*, *82*, 117
루카	1,46-55	4
	2,14	*1*, 183
	15,4	321
	15,5	321
	15,18-19	*3*
	19,10	321
요한	1,48	*316*
	6,20	224
	10,1	314
	10,2	312, 314
	10,3	314, 316, 317
	10,4	316, 317
	10,5	316, 317
	10,6	311
	10,7	315
요한	10,9	315, 318
	10,15-17	320
	10,16	322
	10,18	314
	14,13	*196*
	14,6	*159*
	15,16	315
	16,12	223
	17,3	65
	17장	322
사도		*64*
	1,1:	318
로마		64
	11,24:	*95*
	11,33-34	335
1코린	3,21.23	*4*, *186*
	6,19	313
2코린	12,7	*26*
갈라	1,15	335
	2,20	160
에페	2,5-6	*4*
	2,5-7	4
	2,7	1, *27*
	2,20	176
	3,10	4
필리	4,8-9	70
2티모	3,12	70, *183*
1베드	2,9	41

문헌 · 서적 · 신문 색인

Aa.Vv., *Un carisma pastorale. La proposta di G. Alberione alle Suore di Gesù Buon Pastore* 사목적 카리스마. 선한목자예수수녀회에 대한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생각: *c309*

Acta Apostolicæ Sedis 사도좌 관보: 67

Acta Sanctæ Sedis 사도좌 관보/성좌 관보: *14*, *67*

Ad gravissima avertenda (istr. del S. Uffizio) 중대한 경고 (교황청 훈령): *62*

Ad nostrum qui 여기서 우리에게: *193*

Æterni Patris 영원하신 아버지: 91

Alberione G., *Alla sorgente*, Meditazioni del Primo Maestro 원천으로, P.M.의 묵상: *c309*

– *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사목신학 개요: 77, 83

– *B. M. Vergine delle Grazie di Cherasco* 케라스코의 은총의 동정 마리아: *201*

– *Carissimi in San Paolo*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185*, *c332*, *c355*

– *Donna (L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109, 280

– *Ipsum audite* 경청하십시오: *c279*

– *Lavoro (Il) nelle famiglie paoline* 바오로가족의 활동: *128*

– *Leggete le Sacre Scritture, esse vi parlano di Gesù Cristo*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는 성경을 읽으시오: *143*

– "*Mihi vivere Christus est*"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 *152*, *158*

– *Paolo Apostolo* 사도 바오로: *1*

– *Prediche del Primo Maestro* P.M.의 설교집: *133*

– *Sono creato per amare Dio* Diario e scritti giovanili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젊은 시절의 일기와 글): *22*

– *Ut perfectus sit homo Dei*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75*, *185*, *c350*

Annali della Propagazione della Fede 전교회 연보: 118

Annali della Santa Infanzia 어린이 전교회 연보: 118

Appello al Paese 국가에 호소: *62*

Arte Cristiana 그리스도교 예술: *76*

Atti della Santa Sede 사도좌/성좌 관보: 67, 79

Baragli E., *Cinema cattolico:*

documenti della Santa Sede sul cinema e sulla televisione 가톨릭 영화: 영화에 관한 성좌의 문헌: *55*
Barbero G., *I bei Seminari d'Italia: Il seminario arcivescovile di Bra* 이탈리아의 유명한 신학교: 브라의 대주교 신학교: *174*
– *Don Giacomo Alberione catechista e compilatore di catechismi* 교리교사요 교리서 편찬자인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81*
– *Giaccardo Giuseppe Timoteo*: *102*
– *Nel XIX Centenario del martirio di San Paolo: il Sacerdote Giacomo Alberione e gli Istituti Paolini* 성 바오로 순교 1900주년: 사제 야고보 알베리오네와 바오로 수도 단체들: *64*
– *Storia della pastorale: pastorale pratica e pastorale teorica del sacerdote Giacomo Alberione* 사목 역사: 사제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사목 이론과 실제: *82*
Bollettino Parrocchiale Liturgico 본당 주보: *74*
Bosetti E., *Un commento di Giacomo Alberione al vangelo del Buon Pastore* 북음서에 나오는 착한 목자에 대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주석: *c309*
Breviarium Romanum 성무일도서: *144*
Cantù C., *Storia universale* 세계사: *66*
Caronti L., *Fogazzaro, Subiaco e Il Santo* 포가차로, 수비아코와 성인: *89*
Cavazza–Vitali, *I doveri delle Spose e delle Madri* 부부와 어머니들의 의무: *162*
Chiesa F., *L'Unione Popolare spiegata ai contadini* 농부에게 설명한 국민연합: *61*
– *Lectiones theologicæ dogmaticæ recentiori mentalitati et necessitati accomodatæ* 최신 사고방식과 적절한 필요성에 따른 교의신학 사전: *195*
Cinaglia G., *Il Tempio di San Paolo* 성 바오로 성당: *75*
Civiltà (La) Cattolica 가톨릭 문화: *67*
Codex Juris Canonici 교회법전: *132*
Conoscere Don Alberione 알베리오네 신부님을 알기 위하여: 119
Cooperatore (Il) Paolino 바오로 협력자회지: 343
Cooperatore (Il) Paolino Apostolato Edizioni (1950년 9–10월) 바오로 출판 사도직 협력자회지: *110*
Cooperatore (Il) Paolino (1952 이후) 바오로 협력자회지: *110*
Costituzioni della SSP 성바오로수도회 회헌: 37, *42*, 96, 97, 98, 99, 130
Costituzioni delle Apostoline 사도의 모후수녀회 회헌: *c326*–331
Da Silva A.F., *Il cammino degli Esercizi Spirituali nel pensiero di*

Don G. Alberione 알베리오네 신부 사상 안에서의 영신수련 여정: *13*, *175*
Damino A., *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목록: *61*, *143*
– *Don Alberione al Concilio Vaticano II*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참가한 알베리오네 신부: *201*
Denzinger–Schönmetzer, *Enchiridion Symbolorum* 신경 편람: *193*
Divino esemplarismo 하느님의 모범: 195
Documenti pontifici sulla radio e sulla televisione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교황청 문헌 : *55*
Documenti pontifici sulla stampa 출판에 관한 교황청 문헌 : *55*
Dubois E., *De exemplarismo divino seu de trino ordine exemplari et de trino rerum ordine exemplato*: *195*
Ephemerides Liturgicæ 전례잡지: 71
Esposito R.F., *Il Giubileo secolare del 1900–1901 e l'enciclica Tametsi futura* 1900–1901의 세기적인 희년과 회칙 Tametsi futura: *13*, *14*
– *La Massoneria e l'Italia dal 1800 ai nostri giorni* 1800년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프리메이슨과 이탈리아: *62*
– *La teologia della pubblicistica, secondo l'insegnamento di Don Giacomo Alberione*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가르침에 따른 시사평론가의 신학: *81*
Fermo (Il) proposito 확고한 목적: *60*, *62*
Fogazzaro A., *Il Santo* 성인: 89
Fornasari E., *Il Tempio di San Paolo* 성 바오로 성당: *75*
– *Un profeta obbediente. Il beato Timoteo Giaccardo* 순종하는 예언자. 복자 티모테오 자카르도: *102*
Galaviz J.M. H., *El carro paulino* 바오로인의 '마차' : 100
Gazzetta d'Alba 가제타 알바: *9*, *30*, 61
Giovannini A., *Don Domenico* 도미니코 신부: *215*
Giovannini L., *Le Letture Cattoliche di Don Bosco esempio di Stampa Cattolica nel secolo XIX* 19세기 가톨릭 출판의 모범을 따른 돈 보스코의 가톨릭 독서: *105*
Gloria in excelsis Deo…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1, 183
Graves de communi re 구원경륜에 관한 중대한 논의: *52*
Hergenröther J., Storia universale (*Handbuch der allgemeinen Kirchengeschichte*) 세계 교회사 개요: *66*
Humanum genus (Leone XIII) 인류 (레오 13세 회칙): *62*
Imitazione di Gesù Cristo 준주성범:

175
Krieg C., *Teologia Pastorale* 사목신학: 84
Lamentabili (decreto) 탄식할 만한 (교령): *51*
Lauda, Sion, Salvatorem (seq.) 시온이여 찬양하라(딸림노래): 323
Lettera dell'Episcopato Piemontese 피에몬테 주교단 서한: *175*
Lettera di Don Alberione da Susa 수사에서 보낸 알베리오네 신부의 편지: 221–224
Magnificat 마니피캇: 4, *144*
Marx K., *Manifesto del Comunismo* (1848) 공산주의 선언문: *17*
Massè D., *Il caso di coscienza del Risorgimento italiano dalle origini alla Conciliazione* 발단에서 중재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부흥운동의 양심 문제: *53*
Messale Romano 로마 미사전례서: *33*
Messalino 미사경본: *74*
Mi protendo in avanti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c240*, *c247*, *c304*, *c341*
Missale Romanum 로마 미사전례서: *1*, *183*, *190*
Muzzarelli F., *Ad pedes Petri* 베드로의 발치에서: *132*
Muzzin U., *Storia e arte del Santuario Regina Apostolorum* 사도의 모후 성당의 역사와 예술: *75*
Osservatore Romano (L')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67*
Pascendi dominici gregis 주님의 양떼를 돌보며: *51*
Perego G.B., *Il Santuario–basilica Regina Apostolorum* 사도의 모후 성당: *75*
Preghiere della Pia Società San Paolo (1922) 성바오로수도회 기도서: *39*
Preghiere (Le) mariane di Don Alberione 알베리오네 신부의 마리아 기도: *120*
Quoniam in re biblica (lett. apost.) 성경에 관한 일이므로(교황 교서): *137*
Regina Apostolorum (circolare) 사도의 모후(회람지): 246
Rerum Novarum 새로운 사태: *52*
Rivista Liturgica 전례 잡지: 71
Rocca G., *La formazione della Pia Società San Paolo* 성바오로수도회의 양성: *132*, *175*, *217*
Rohrbacher R.–F., *Storia universale della Chiesa* (*Histoire de l'Eglise catholique*) 세계 교회사(가톨릭 교회사): *66*
Sacra Tridentina Synodus 트리엔트 공의회: *178*
Sacra (La) Bibbia 성경: *145*
San Paolo (bollettino) 성바오로회람지: *c355*
Santa Infanzia 어린이 전교회: *118*
– *annali della S. I.* 어린이 전교회 연보: 118

Santo (Il) Vangelo 복음서: *145*
Segreto di riuscita (a cura di A. Colacrai) 성공의 비결(콜라크라이 신부 엮음): *158*
Settimana (La) sociale 시사 주간: *61*
Swoboda E., *La cura d'anime nelle grandi città* 대도시에서 사람들을 돌봄: 84
Tametsi futura 미래에 대한 전망: *14*
Testem benevolentiæ (Leone XIII) 사랑의 증언(레오 13세 서한): *49*
Tommaso d'Aquino, *Somma teologica* 신학대전: 192
Tra le sollecitudini (motu proprio di Pio X) 염려 가운데(비오 10세 자의 교서): *71*
Unione Cooperatori 협력자회지: 110
Unione Cooperatori Buona Stampa (1918–1928) 선한 출판 협력자회지: *110*
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Stampa (1928–1950) 출판 사도직 협력자회지: *110*
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Edizioni (1950) 출판 사도직 협력자회지: *110*
Vigolungo A., *Nova et vetera, Can. Francesco Chiesa* 새 것과 옛 것, 참사위원 프란치스코 키에사: *19*, *126*
Vita Pastorale 사목생활: 110, *c309*, *c332*
Vita in Cristo e nella Chiesa (La)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삶: 74
Vulgata 대중라틴어 성경: 4

연대 색인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와
바오로 가족에 관련된 사건만 다룸)

1884년 4월 4일 G.A 탄생: *12*
1884년 4월 5일 유아세례 받음: *12*
1890–95년 케라스코에서 초등학교 재학: *9*, *12*
1892년 첫영성체: *11*
1893년 11월 15일 견진성사: 11
1895–96년 케라스코에서 김나지움 1학년 과정: *12*
1895–1915년 근대주의 위기: 89
1896–97년 G.A. 전교회와 어린이 전교회에 가입: 118, 119
1896–1900년 브라 신학교에서 김나지움 과정 수료: *12*
1900년 가을 G.A. 알바 신학교 입학: *12*
1900년 12월 31일–1901년 1월 1일 두 세기 사이의 기도의 밤: 13 이하
1902년 12월 8일 착복식: *12*
1902년경 정결을 위하여 성 토마스의 허리띠 착용 및 기도의 사도직 그룹에 가입: 204
1903년경 신학생들의 성경 보급: 145
1903–08년 사회학 연구: 59
1904년 신학생 보렐로의 무덤에 묘비명 기록: 22
1904년 성 토마스에 대한 학회: 91
1904년 11월 26일 G.A. 아버지 미카엘 알베리오네 선종: *10*
1905–06년 밀라노의 가톨릭 대학교를 위한 활동: 58
1906년 이후 「가톨릭 문화Civiltà Cattolica」 독서: 67
1906년 6월 29일 차부제품: *200*
1906년 6월 30일 특별한 빛: 200
1906–07년 복음서 보급에 관한 한층 더 밝은 빛: 136
1907년 6월 29일 사제수품: *12*
1907년 8월 세 차례의 성경주일: 138
1907년 12월 17일 제노바에서 신학 석사 학위: *199*
1908년 선한목자예수수녀회를 위해 기도 시작: 46
1908년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부탁함 : 247, 279
1908년 나르졸레에서 본당 사목을 했고, 주세페 자카르도를 만남: 104
1908년 4월 9–10일 제노바에서 신학박사 학위: *199*
1908년 말경 알바 신학교의 영성 지도: 104
1909년 이후 신학생들 영적 지도신부의 지향에 따라 기도함: 161
1909–18년 어떤 수도회에서 대피정함: 36
1910년 말 성직자들이 두 부류로 갈

림: 49
1910–14년 교리교수법 조직과 방법 연구: *39*, 78
1911년경 국민연합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로 116
1911–14년 국민연합을 위해 활동: 61
1911–14년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 집필: 109
1912년 8월 1일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77*, *83*
1912–15년 사목 강연: 181
1912–15년 웅변학교: 86
1913년 창립을 향한 첫발: 101
1914년 8월 20일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48
1914–18 제1차 세계대전: 108, 161, 216
1914–44년 바오로 수도 단체의 법적 구조를 위한 노력: 131
1914–68년 바오로적 사도직 활동에 임한 기간: 355
1915년 6월 15일 성바오로딸수도회 창립과 데레사 메를로 입회: *2*, *241*
1915년 10월 16일 M. 암브로시오 입회: 215
1916년 바오로 협력자회: 122
1916년 8월 1일 마태오 보르고뇨 입회: 218
1916년 10월 16일 B. 마르첼리노 입회: 215
1917년 성령강림대축일 교회법전: 132
1918–19년 여러 젊은이가 성바오로수도회 입회: 218
1918–20년 로마 여행: *116*
1920년 7월 참사위원 키에사와 미래 활동에 관한 대화: 248
1921년부터 복음서를 몸에 지니고 다님: 145
1921년 8월 10일 바오로회 첫 공동체 건물로 입주: *26*
1922년 200이라는 숫자에 관한 꿈: *26*
1923년 다른 꿈과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치유: 64, *152*
1923년 6월 13일 G.A.의 어머니 데레사 알로코 선종.: *10*
1924년 2월 10일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창립: *1*
1924년 8월 22일 수사에서 보낸 G.A.의 편지: *221*
1925년 이후 브뤼셀에서 J.O.C. 방문: 128
1926년 로마에 양성의 집 건립: 114
1927년 알바에서 제1차 복음대회 개최: 334
1936년 G.A. 거처를 로마로 옮김: 114
1938년 10월 7일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창립: 1, 46
1939–45년 제2차 세계대전: 216
1946년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문헌과 그들의 사명: *c247*, *c279*–291

1953년 말경 G.A.「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Abundantes divitiæ*」집필: *1*, 25
1959년 9월 8일 사도의모후수녀회 창립: *1*
1960년 4월 4일 병설 재속회 창립: *1*
1961년 9월 15일 알바에서 열린 성소 전시회에서 개막 연설: *c332*
1963년 8월 10일 완성해야 할 바오로 가족에 관한 '선언문'(Dichiarazione): 345–348
1967년 10월 6일 수도자들에게 남긴 유언: 351
1968년 3월 19일 수도자들에게 남긴 유언 확인: 354
1968년 9–11월 나의 결론은…: *c355*

장소 색인

Africa: 120
Alba (Cuneo): 12, 13, *48*, 75, 78, 82, 104, 114, 121, 140, 145, 161, 172, 174, 177, 204, 248, *c332*, 334, 349
Alba–Roma: 351
Albano Laziale (Roma): *c309*, 325, 336
Ariccia (Roma): 345, 348
Asia: 120
Austria: *48*
Barbaresco (Cuneo): *162*
Barolo (Cuneo): 242
Benevello (Cuneo): 82, 105
Bra (Cuneo): *12*, *105*, *174*
Bruxelles: 128
Cascina Agricola (Montecapriolo): *124*
Castagnito d'Alba (Cuneo): 241
Castagnole Lanze (Asti): 349, 353
Castellinaldo (Cuneo): 105, 106
Cherasco (Cuneo): *9*, *12*, *124*, *201*, 349
Cuneo: 12
Finalpia (Savona): 71
Francia: 50
Genova: *118*, 199
Genzano di Roma: *46*
Germania: *48*, 60
Giappone: *215*
Italia: 53, 81, 102, 109, 114, 334; Alta Italia: 336
Lione: *118*
Milano: 58, *76*, 118
Modena: *336*
Mondovì: 145
Montecapriolo (Cuneo): *118*, 124
Narzole (Cuneo): *82*, 104
Nazareth: 127, 180, 289
Praglia (Padova): 71
Roma: *53*, *62*, *75*, 114, 115, 116, 325, *347*, 349, 351
Rosta (Torino): 201
Russia: *48*
Saliceto Panaro (Modena): *347*
San Lorenzo di Fossano (Cuneo): 12
Sarajevo: *48*
Serbia: *48*
Susa (Torino): *162*, 224
Thiene (Vicenza): *347*
Torino: *12*, 105, *133*, 174

인명 색인

Alberione Giacomo(창립자):
– 복음의 날 고무자: 138, 145
– 세상을 향한 개방: 64–70, 117–120
– 성경적 책무: 136–145
– 도서관 사서: 67
– 교리교사: 78–81
– 주교 의식담당: 72
– 특별한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강요: 28
– 도미니코 제3회 책임자: 121
– 하느님의 도움: 161–173
– 알바 신학교에서의 신심: 174–184
– 이중의 순명: 29–32
– 이중의 역사: 1–7
– 되찾은 아들: 3
– 창립을 위한 준비: 101–102
– 구유에서: 43
– 종교예술 교사: 76
– 전례 교사: 72
– 교구 직무를 그만 둠: 30
– 어릴 때부터 해온 노동: 124–130
– 아픔과 성숙: 47
– 섭리의 손길: 45
– 사목직(ministero pastorale): 82–86
– 특별한 사명: 13–22
– 하느님이 추진하심: 28
– 새로운 세기의 교회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의무: 15, 20
– 많은 업무: 111
– 좋지 않은 건강: 112
–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 16
– 교회 봉사자: 114–116
– 꿈(1922–1923): 151–158
– 전례정신: 71–74
– 선교사 정신: 120
– 바오로 정신: 93–100
– 사회에 관한 연구와 활동: 58–63
– 학업: 199
– 인성 개발: 146–150
– 번민과 빛: 113
– 로마로 거처를 옮김: 114
– 모든 것은 그에게 배움터와 방향타가 되었다: 56
– 32년간 몸에 지니고 다닌 복음서: 145
– 사제성소: 7, 9–12
Alberione Giacomo(삼촌/아저씨): 169, 171
Alberione Michele(아버지): *10*
Alberto Magno: 190
Alfonso de' Liguori: 175
Allamano Giuseppe: *118*, 170
Allocco(Alocco–Olocco) Teresa Rosa(어머니): *10*
Ambrosio Michele Domenico:

215
Aquinate(성 토마스 아퀴나스): 192
Aristotele: 192
Arlati M. Clelia: *c247*
Armani Torquato Tito: 105, 215
Balla Ignazia: *c240*
Baragli Enrico: *55*
Barbero Giuseppe: *59*, *81*, *82*, 174
Barin Luigi Rodolfo: 71
Basilio(성): 39
Basso Giovanni: 108
Benedetto Cottolengo: ↗Cottolengo
Benedetto XV: 132
Benedetto(성): 39, 159, 222
Bernardo(성): 48, 221
Boffi Angela Maria: 162
Bonicco Lydia: 201
Borello Agostino(신학생): 22, 162
Borgogno Matteo Bernardo: 218
Borrano Pietro: 108
Bosetti Elena: c309
Brovia Luigi(수석사제): 170
Buonaiuti Ernesto: 52
Cafasso Giuseppe(성): 133
Calliano Clelia: 162
Cantù Cesare: 66
Cardona Rosa: 9, 10
Caronti Emanuele: 71
Caronti Luigi: 89
Cavazza-Vitali Amalia: 162, 169
Cavour(카밀로 벤소): 49
Cecilia(성녀): 144
Chiavarino Giovanni Vincenzo: 108
Chiesa Francesco(참사위원): 19, 29, 61, 68, 164, 169, 192, 195, 196, 199, 248, 249
Chiesa Giovanni Battista: 74
Cinaglia Giuseppe: 75
Colacrai Angelo: *158*
Colasanto Antonio Gabriele: *74*
Cosma e Damiano(성):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 성당: 78, 248
Costa Desiderio: 106, 215
Costantini Celso: 76
Costantinus(황제): 102
Cottolengo Giuseppe Benedetto(성): 131, 133, 175
Da Silva Antonio F.: *13*, *175*
Dallorto Bartolomeo(몬시뇰): 170
Damiano(성): 성 코스마와 성 다미아노 성당: 78
Damino Andrea: *61*, *143*, *201*
Danusso Vittore (참사위원): 170
Degiacomi Vittoria: *48*
Destefani Gaspare: 71
Destefanis Giacomo: 162
Domenico(성): 121, 159
Dubois Ernest: *195*
Durando Guglielmo: 71
Eisenhofer Ludwig: 71
Esposito Rosario F.: *13*, *14*, *62*, *81*, *c332*
Eymard Pier Giuliano (성): *175*
Fanteguzzi Angelo(신학생): 162
Fassino Antonio(몬시뇰): 170

Fenoglio Angelo: 108
Filippo Neri(성) **di Alba**(수도회): 349, 353
Fogazzaro Antonio: 89
Forbin-Janson: *118*
Fornasari Eugenio: *75*, *102*
Franz Josef(황제): 48
Francesco Saverio(성): 222
Francesco d'Assisi(성): 39, 159
Francesco d'Assisi(성) di Cherasco (수도회): 349
Francesco di Sales(성): 175, 353
Gabriele arcangelo: 182
Galaviz Juan Manuel H.: *100*
Galletti Eugenio(몬시뇰): 177
Gavanti Bartolomeo: 71
Gesù Cristo: ↗ 내용 색인
Ghione Giovanni Battista: *108*
Giaccardo Giuseppe Timoteo(복자): 102, 104, *114*, *133*, 167, *c279*
Giacomo(성): 248
Giordano Luigi(참사위원): 21
Giovanni Battista de La Salle(성): 39
Giovanni Bosco(성): 105, 131, 133, 175
Giovanni Nepomuceno(성) di Castagnole Lanze(수도회): 349
Giovannini Armando: *215*
Giovannini Luigi: *105*
Giuseppe Benedetto Cottolengo: ↗ Cottolengo
Giuseppe(성): 179, 204, 307
Grassi Luigi Maria(주교): 75
Guéranger Prospère: 71
Hergenröther Joseph: *66*
Ignazio di Loyola(성): 159, 222
Jaricot Pauline-Marie: *119*
Ketteler Wilhelm v.: *17*
Krieg Cornelio: 84
Lavigerie Charles Martial: *118*
Lefèbvre Gaspare: 71
Leone XIII: *13*, 14, 15, 19, 52, *62*, 67
Luca(성): 289
Maffi Pietro(추기경): 59, 170
Maggiorino Vigolungo: ↗ Vigolungo Maggiorino
Mancini Calcedonio: *71*
Manera Alfredo: *108*
Marcellino Bartolomeo Paolo: 215
Marchetti Selvaggiani Francesco: *122*
Maria Ss.: ↗ 내용 색인
Martini Antonio(몬시뇰): *145*
Marx Karl: *17*
Massè Domenico: *53*
Mazzini Giuseppe: 49
Merlo Costanzo(참사위원): 242
Merlo Teresa (Tecla): *162*,240-246
Minghetti Marco: 49
Molino Giovanni(몬시뇰): 170
Montersino Giovanni Battista(수석사제): *12*
Murri Romolo: *52*

Mussolini Benito: *62*
Muzzarelli Federico: *132*
Muzzin Umberto: *75*
Nicodemo [Natanaele]: 316
Nosetti Aurelio Basilio: 74
Novo Matteo(참사위원): 170
Olocco: ↗ Allocco
Orsini Celina: 325
Paganuzzi Giovanni Battista(백작): 20, 59
Pampirio Lorenzo(몬시뇰): *30*
Paolo(성): ↗ 내용 색인
Pecci Gioacchino Vincenzo: ↗ Leone XIII
Perego Giovanni Battista: *75*
Perino Giovanni Francesco Saverio: 291
Perino Renato: *291*
Peyrolo Amalia: *114*
Pietro(성): 157
Pietro(성) di Cherasco: 349
Pio IX: *53*
Pio X (성): 48, 50, 51, 53, 60, 62, 71, 137, 178, 188
Pizzardo(추기경): 334
Priero Giuseppe(추기경): 170
Primo Maestro: ↗ 내용 색인
Provera Luigina G.: *201*
Ramazzotti Angelo: *118*
Re Giuseppe Francesco(주교): *11*, *12*, *30*, *48*, 64, *121*, *168*, 169, *175*, 334
Rezzara Niccolò: 59
Ricci M. Lucia: *c279*
Richelmy Agostino(추기경): 83, 170
Roatta Giovanni: *119*
Robaldo Cesare: 108
Rocca Giancarlo: *132*, *175*, *217*
Rohrbacher René-François: 66
Rosa Enricosj: *175*
Rosa Giuseppe: *75*, 217
Rossi Giuseppe: 131, 170
Saffirio Enrico: 162
Sarto Giuseppe Melchiorre: ↗ Pio X
Schuster A. Ildefonso(추기경): 71
Segato Angelo Bonifacio: *74*
Serafini Mauro o.s.b.(아빠스): *64*
Sibona Luigi(몬시뇰.): 170
Speciale Antonio: *c240*
Spirito Santo: ↗ 내용 색인
Stoppa Carlo(몬시뇰): *c332*
Sturzo Luigi: *52*, *62*
Swoboda Enrico: 84
Tito(신부): ↗ Armani
Tommaso d'Aquino(성): 91, 192, 204, 323
Toniolo Giuseppe: 14, 15, 17, 59
Trosso Sebastiano: 108
Valetti Pietro: *118*
Varaldi Teobaldo(참사위원): 170
Veneroni Pietro: 71
Vigolungo Agostino: *126*
Vigolungo Maggiorino: *105*, 162
Villari Ermenegildo: 162

내용 색인

가난/청빈 128, 166, 223, 326, 342
– 보잘것없고 교만에 찬 세상 182
– 성성, 면학, 사도직, 청빈 100
– 참된 수도적 가난 128
가능성– 여성의 가능성 109
가르멜 산의 복되신 마리아 〈스카풀라〉 204
가르멜회 회원들– 가르멜회 영성 159
가르치다 98
– "가서 설교하고 가르쳐라" 81, 82
– 그리스도교 사상을 가르치다 199
– 행하도록 가르치다 85
가르침/교의/사상 99, 115
– 교의와 윤리의 가르침 73
– 교황청 교도권의 가르침 19
– 구원하는 교의 87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교의 34, 159, 324
– 전례의 가르침 71
↗학교/수업
가리키던– 감실을 가리키던 손 157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81, 82, 117
가시– 마음속에 박혀 있는 가시 26
가족 9, 63, 124, 128, 156, 169, 308, 309
– 가정적 분위기 338
– 남자 수도회 240
– 모든 가정에 복음서를 140
– 바오로가족 〈수도회〉 33
– 성가정과 함께 살다/성가정을 살다 307
– 성체흠숭에 머무는 여성 수도가족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49
– 수도가족 241, 247, 279
– 아주 좋은 가정 출신 성소 106
– 여성 수도가족 240
– 이냐시오 가족 222
– 초창기 가족 217
가지– 바오로가족의 가지 163
가치
– 그리스도교적 가치 108
– 무한한 가치 352
– 유언의 의미/가치 *c350*
가톨릭 교의 87
가톨릭 정신 117
가톨릭 신자들 54, 55, 60, 62
– 모든 가톨릭 신자 328
– 모든 가톨릭 신자가 모든 성소와 모든 사도직을 위하여 338
각인– 성 바오로의 각인 64
간호– 간호임무〈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307
갈퀴 125
갈팡지팡/동요〈불확실함〉 131, 132
감각 [감수성] 선교 〈열의〉 120
감명 〈특별한 감명〉 71
감미롭게/자애로〈힘차고 감미롭게〉 43, 78
감사 68, 124, 204, 332, 338, 340,

351
– “하느님과 마리아께 감사!” 7
감실 안에 살아 계신 〈스승 예수〉 157
감실 18, 34, 157, 180, 249, 290, 333
– 감실 앞에서 대변하다 34
– 감실 앞에서 전구하다 34
– 감실에서 〈“여기서”〉 152, 153, 157
– 감실로부터 방향을 155
– 감실을 가리키던 손 157
– 바오로가족은 모두 감실에서 태어났다 34
– 성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29
– 예수 그리스도는 감실 안에 실체로 현존하신다 286
↗성체이신 예수님
감싸다– 눈부신 빛에 감싸인 〈마리아〉 201
감쌌던– 〈예수님을〉 감쌌던 광채 157
강력함/강함 245, 331
강연– 성 토마스에 관한 기념강연 91
– 강연회 61, 82, 83, 121, 327
– 사목강연 181
– 사회학 강연 59
강요당함– 하느님께 강요당함 28
강요하다– 하느님의 손길을 강요하지 않았다 44, 45
강조하다– 교리와 복음선포를 강조하다 86
강화– 성바오로수도회의 수도생활 강화 249
개방
– 세상을 향한 개방 65, 114*–116
– 첫 수도원 개설 111
개입
– 실수를 고쳐주기 위해 개입하다 47
– 초자연적 개입 32
“거룩한 민족” 41
거처 330
걱정 172
건강함– 육체적 건강 242
건축 77
건축업자들 167
걷다/나아가다
– 성 바오로는 위대한 여행자 117
–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종의 자극제 28
걸음/행보
– 결정적인 첫 걸음 〈수도생활 조직을 향하여〉 24
– 섭리의 걸음 78
– 염원의 실현을 향한 첫발 101
검토 〈신중〉 52
게으름– 일부 사목자들의 게으름 322
겨울 〈겨울방학〉 125 초대
–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길어내야 한다는 초대 157
– 교회의 초대 15
– 예수님의 초대 〈“모두 나에게 오너라”〉 15
격려/위안/위로 31
– 격려와 희망 345
– 위로이신 천상 스승 331
–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의 위로 16
견진성사
–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견진성사 11
– 견진성사와 선교정신 117
결과 9, 74

– 지나친 자유의 결과 148
결론– 활동의 결론 355
결산 보고서–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결산 보고서 221, 224
결실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출간 결실 109
– 사도직의 결실 182
– 수도회의 결실 〈성공〉 161
결점 45, 158
겸손 *158*, 196, 223, 351
– 겸손과 노동 128
– 겸허한 신앙 193
– 알베리오네 신부의 겸손 1–3, 31, 350
–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16
경고– 불확실한 건강에 대한 경고 112
경과 30
경륜– 구원경륜과 은총의 경륜 283
경신례/공경/예배/중히 여김 99, 128, 187, 329
– 교의, 윤리, 경신례 160, 293
– 모든 경신례 65
– 복음서를 중히 여김 142
– 성 바오로는 경신례 안에 살아 계시다 94
– 신앙, 윤리, 경신례 140
– 예배 중의 설교 306
– 전례는 교의, 윤리, 경신례 306
경영관리 35, 133, 134, 147
– 교구 주간지 「가제타 알바」 관리 111
– 바오로 수도회들 사이의 경영관리 〈독립〉 35, 131
경이로움
– 사랑과 은총, 그리고 성소의 경이로움 223
– 예수 성심 안에서의 경이로움 222
경제/경륜 170, 244
– 경제적 기초 133
– 경제적 문제 164
– 경제적 협력 25, 34
– 물질적 행복 52
– 정치경제학 87
↗경영관리
경향– 사제직을 향한 경향 9
경험 82, 132
– 경험이 풍부한 영적 지도신부 174
– 성체 앞에서 묵상한 경험 56
계급투쟁 52
계단– 〈신학교의 계단〉 126
계명 308
계발하다/배양하다/전념하다
–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98
– 주세페 자카르도의 정신을 양성하는 데 전념했다 104
계시 186, 188
– 이성에서 계시로 188
– 제3의 계시 193
계시하다/드러내다
– 바오로가족의 부를 계시하다 4
– 하느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8*
계약 또는 성공의 비결 158, 163, 242
계층– 계층 간의 관계 63
계획 185, 343
– 계획을 제시했다 47

– 설립계획 23
고뇌/고민– 내적 고뇌/고민 〈연구 활동〉 131, 133
고등학교〈공립〉 78
고소/비난 164
– 미쳤다는 비난 166
고안– 학년별 교리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고안 80
고쳐주시다– 실수를 고쳐주시다 47
고통 132
– 고통에 동참함 35
– "고통을 겪을 것이다…" 26
– 고통의 사도직 284
– 새로운 시련과 고통 108
– 심한 고통 26
고해성사 82, 308
고해신부 174
공경–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 201
공동구속자 〈마리아〉 181, 283
공동 사도 〈마리아〉 181
공로/공덕
– 노동은 공로의 수단 128
– 사도적 삶으로 공덕을… 24
공부/연구 21, 25, 65, 98, 104, 125, 147, 160, 174, 188, 189, 192, *291*
– 공부, 신심, 모든 것이 특수 사명을 향하게 되었다 9, 100
– 공부방 126
– 교리교육에 대한 연구 80
– 교육학 공부 78
– 다양한 영성에 관한 연구 159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연구 64
– 사회학 연구 59
– 성 바오로에 대한 연구 64, 159
– 성경에 관한 연구 137
–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연구 97
– 학문 연구 199–200
– 학업을 계속함 199
공산주의 52
공존– 정의와 사랑의 공존 65
공황에 빠진 채권자 156
과도한 자유 148
과정/흐름
– 바오로가족은 물의 흐름과 같다 5
– 신학과정 195
과학/학문 187, 188, 192, 193, 199, 242
– 가톨릭 학문 〈잡지, 백과사전, 가톨릭 학문에 관한 사전〉 67
– 과학은 고귀한 무기 188
– 과학을 지배하다 188
– 신적 학문 188
– 신학적 과학 194
– 여러 학문을 철학 안에 통일시키다 189, 191, 192
– 옛 학문 192
– 인문학 188, 189, 195
– 자연과학 87, 194
– 증진시켜야 할 과학 188
– 하느님께 인도하다 185;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다 186, 188
과학지상주의 185
관계/보고서
– 개인적인 관계 110
– 계층 간의 관계 63
– 관계 〈서신과 구두〉 164
– 교회 내 관계/교분 59, 121, 313

– 국제관계 63
– 바오로가족 간의 관계/바오로 수도회들 사이의 관계 33–35, 280
– 바오로가족에 대한 보고서 *c355*
– 친밀한 관계 107
관대함
– 많은 관대한 사람 26
– 첫 바오로인들의 관대함 215
관습– 윤리적 관습 99, 187
– 관습을 쇄신하는 것 19
– 순결한 몸가짐 342
– 종교적 관습 140, 179
광채 157
괘도 79
교구 111, 116, 168, 169, 334
– 교구에 대한 애정/사랑 30, 107
– 신학교는 교구의 심장 332
– 알바 교구 61, 177, 178
교도권/가르침 99, 190
– 교황의 가르침 19
교령〈교황청〉 178
교리 78–81, 316, 324
– 교리교육에 대한 연구와 특별한 사도직 80
– 교리에 관한 성좌 관보 79
– 모든 가정에 교리서와 함께 복음서를 140
교리/교리교육 86
– 교리교육 방법 79
– 교리교육 프로그램 80
– 교리교육 활동 81
– 교리교육용 슬라이드 79
– 교리위원회 80
– 교리 적용 138
– 교리적 주석이 달린 복음서 140
– 교리활동 81
– 성경과 교리교육 방식 138
↗종교교육
교리교사 78, 79
– 교리교사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 324
– 교리교육용 슬라이드 79
교만 187
– 보잘것없고 교만에 찬 세상 182
교사 직무– 신학생들의 교사직무 107
교육 107, 149, 217
– 노동, 교육의 수단 133
– 성소를 위한 교육 327
– 자유에 대한 교육 150
– 종교교육 329
– 협력자들의 교육 341
교육자들 338
교육학 88
– 교육학에 대한 연구 78
– 바오로적 교육방식 149
– 살레시오회의 교육방식 105
교의
– 교의, 윤리, 공경 160, 293
– 그리스도교 교의 293
– 서로 결부되어 있는 교의와 윤리
가르침과 더불어 73
– 성 바오로는 교의 안에 살아 계시다 64, 9
– 성찬기도 339
– 성체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16
– 성체로부터 나온 빛 15
– 성체에 대한 신심/성체신심 177,

179
– 성체의 천사들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 287
–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그리스도–성체 19, 95
– 성체적 사도직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90, 305, 308
– 성체적 정신 286
– 전례는 교의, 윤리, 공경 306
– 한때 즐겨 교의를 설교함 73
교재/텍스트
– 교리교재 79
– 학교교재 *88*
– 학년별 교재 80
교환/나눔
– 기도와 도움을 주고받는다 35
– 재물의 나눔 342
교황 20
– 사도직에 관해서는 교황께 순명 57
– 성좌의 지침/교황의 지침들 49, 52, 55
–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350
– 예수님이 밝히신 등대 57
– 위대하신 교황의 마음 15
교황령 53
교황의 〈가르침, 정신, 사도직의 원천〉 115
교황청 대학 〈제노바의 신학교〉 199
교회 3, 4, 15, 24, 72, 99, 102, 182, 293, 306, 321
– 교회가 선교에 새로운 비약을 19
–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 〈성소〉 327
–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일하는 것 95
– 교회 안에서 일하라는 부르심 335
– 교회 안에서 확실한 길 92
– 교회에 관한 가르침 20
– 교회에 봉사하는 것 20, 34
– 교회에 부합하는 방향 351
– 교회와 더불어 교회의 기도를 72
– 교회의 권위 175
– 교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350
– 교회의 자유 19
– 교회의 정신 140
– 교회의 조직화 64
– 교회의 초대 15
– 교회의 토대를 뒤흔들 정도 89
– 교회의 필요/교회가 직면해 있던 절박한 필요성 14, 15, 107
–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 94
– 모든 문제 안에 교회의 현존 65
– 미사에서 모든 선이 286
– 사제들이 교회로 284
– 세계 교회사 66
– 순례하는 지상교회 24
– 승리한 천상교회 24
– 신비체 182
구별– 〈사도직에서〉 구별 135
구세주 321
구원
–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57
– 구원하는 교의 87
– 성 바오로는 언제나 구원이셨다 164
– 〈영원한〉 구원 328, 333, 335
– 영혼들의 구원/인류의 구원 315,

340
– 은인들의 구원 123
– 자기 구원을 위해서 22
구원/건강 57, 245
– 건강이 좋지 않았다/건강이 부족하다/허약한 건강 112, 241, 242
–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57
– 노동은 건강에 좋다 128
– 충분한 건강 241
구원 127, 128, 180, 183
– 구원경륜 283
구원받다– 구원받은 알베리오네 9
구유
–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 180
– 언제나 구유에서 시작하다 43
국가 117, 136, 308
– 다른 나라들을 위한 기도 102
– 바오로 사도직의 물이 도달하는 나라들 6
– 여러 나라의 악과 필요성 101
– 외국 114
국민 연합 *14, 17, 60*
국민당 62
국제〈관계〉 63
국회의원– 첫 '가톨릭 신자인 국회의원'〈아직 '가톨릭 신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님〉 62
권위 245
– 교회 권위기관 47
– 권위에 대한 순명 175
권한 330
귀감/모범 245, 318
– 귀감이 되는 인격 330
– 〈테클라 메를로 수녀의〉 모범적인 삶 246
규율 176
– 교회 규율 51
규정과 자유 146
규칙– 노동의 규칙 〈규범〉 128
균형 잡힌 경영관리 134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주셨다" 322
그레고리오 〈성가〉 74
그르치다– 너는 그르칠 수 있으나 나는 그르치지 않는다 113
그릇됨/오류 〈실수〉– 하느님이 실수와 그릇됨을 고쳐주셨다 47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스승 〈예수〉, 주님
그리스도교/그리스도인 201
그리스도교적 민주주의
– 그리스도교적 민주주의 〈정당〉 52
–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민주주의 52
그리스도교 청년 운동(J.O.C.) 128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한데 모으니…" 33
그리스도인
– 그리스도인 가정 124
– 그리스도인의 사회활동 63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인답게 말해야 한다 87
그리스도화 98, 160
그림 77
그만두다
– 직무를 그만두다 30
– 다른 과업을 위해 자유롭게 하다 30
극기 223
– 외적 극기 38

근대주의/자유주의 49, 51, 89, *175*
근면한– 근면한 가족 124
근본 〈문제〉 131
금고 '작은 신용' 금고 133
금요일 〈매월 첫 금요일〉 184
기다리다
– 〈섭리의〉 때를 기다리다 43
– 종이 울리기를,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다 30
– 첫 수도원의 개설을 기다리다 111
– 하느님의 표지를 기다리다 45
기대하다 196
기도 20, 21, 25, 113, 116, 118, 123, 145, 146, 163, 166, 192, 195, 248, 293, 337, 339, 342
– 기도를 경시하게 되었다 49
– 기도를 주고받는다 35
– 기도의 도움 249
– 기도의 사도직/직무 204, 284, 285
– 네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다 19
– 두 가지 살아 있고 끊임없는 기도 249
– 모든 것을 묵상과 기도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다 68
– 비오 10세의 평화를 위한 기도 48
– 사도직을 기도와 일치시키다 122
–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 10
– 성소를 위한 기도 327
– 신앙의 기도 〈계약〉 158
– 알베리오네 신부가 작성한 기도 102
– 알베리오네 신부의 기도 *120*
– 어머니의 기도 10
– 전례기도 72, 73
– 활동과 기도 63
↗ 성체흠숭
기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281
기록 8*
기록하다/쓰다
– 「가제타 알바」에 많은 글을 썼다 61
– 기록된 하느님 말씀 86
기부금/모금/기금/헌금/봉헌/자선 58, 118, 119, 122, 123, 163, 342
– 기부금으로 살아간다 330
– 새로운 사업과 수도원 건립을 위해서만 기부금을 사용함 128, 133
– 생명의 봉헌 161, 162
– 성소증가에 힘씀 284
기뻐하다– 〈그는…매우 기뻐했다〉 24
기쁨 350
– 기쁨에 동참 35
– 성소의 기쁨 288
기숙사비 〈장학금〉 174
기술
– 가톨릭 기술자 조직 23
– 기술적인 일 41
– 수녀 기술자들 244
– 수도자 기술자 24
기술– 사도직에 맞추어 향상된 기술 216
기술만능주의 185
기억– 기억에서 사라지다 2
기초 350
길/방법
– 건설적인 길 50
–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길

도 확실하지 않다 92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63, 93, 97, 98, 159, 182, 338, 352
– 노동의 길 128
– 많은 성소자에게 길을 220
–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 길을 338
– 섭리의 길 43
– 열성적으로 일하도록 열려 있는 길 40
– 올바른 길 149
– 완덕의 길 128
– 전례적 사도직에 넓은 길을 292
– 좋은 방법 121
– 중도 133
– 천상 스승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신다 288
–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186
– 하느님의 길 219
길어내다– 감실로부터 길어내다 155
길을 잃다 〈탈선〉 51
깊은 확신 149, 176
깨어 있음 44
– 깨어 있는 비오 10세 51
깨어 지키다 172
꿈 26, 151–158, 201
"나 너희와 함께 있노라" *152*, 156
– 바오로가족과 함께 있다 113
" 나 너희와 함께 있다" 16
"나 여기서 비추기를 원하노라" 152, 157
– '여기서' 는 감실에서 나왔다 153
나이– 예수님의 나이 289
낚시– 바늘로만이 아니라, 그물로 고기를 낚는다 197
난관/어려움 61, 151, 156, 219, 248
– 난관 〈미묘한 상황〉 244
–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 216
날
– 성경의 날 138
– 복음서의 날 136, 145
– 성소의 날 327
남용 148
납품업자들 167
내쫓다
– 죄를 범함으로써 스승 예수를 내쫓지 마라 156
– 죄를 피하다 166
냉담자들 328
너 왜 여기 왔는가? 197
네 바퀴 100, 163
노동 128
노동자
– 노동자 예수 128, 180
– 평범한 노동자 42
노력– 개인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 121
노력하다– 의무에 진력하다 44
노쇠하다 130
노예/종속성
– 과학의 노예 187
– 노동자에 〈속했던〉 상태 42
– 악마의 노예 313
노자성체 178
논리– 〈논리 없이는 어떤 방향도 잡을 수 없다〉 92
논문 시리즈 〈총서 출간 시도〉 195

논문들/주제들
– 신학 논문들 195
–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 192
논쟁하다– 사람의 정신세계를 두고 논쟁하다 54
놀람 172
놀리다– 신부라는 명칭으로 놀리다 9
농부 〈농가〉 124
눈길
– 사도의 모후 눈길 아래 93
– 천상 스승의 애정 어린 눈길 288
눈물 〈쓰라린〉 30
다가간다– 각 사람에게 다가간다 34
다양성– 일치 193
단순성 244
– 단순한 삶 330
단죄
– 「성인」이 금서목록에 의해 단죄받다 89
– 아메리카니즘의 단죄 49
달/월
– 매달 첫 금요일 184
– 매달 첫 주간 179
– 월피정 184
닮을 것– 하느님을 닮을 것 95
당신 62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1, 4
당황 172
대답– 스승 예수의 대답 152
대리 〈그리스도화〉 160
대리자
– 교구 지구장 83, 169
–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57, 350
대변동– 심각한 대변동 48
대사 122
대신하다– 모두를 대신하여 감실 앞에서 34
대중 라틴어성경 4
대중 50
– 대중 속에 복음을 14
– 대중을 위한 출판 69
– 특히 대중을 86
대피정/피정 36, 105
대학
– 가톨릭 대학 87
– 밀라노의 가톨릭 대학 58
대항하다 〈인쇄에는 인쇄로〉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1
대회 14, 327
– 가톨릭 단체 대회 14, 20, 60
– 교리경시대회 78
– 국민연합 대회 116
– 사회문제에 관한 여러 대회 59
– 제1차 복음대회 334
덕/덕성/덕망 70, 97, 108, 160, 174, 288
– 좀 더 덕이 있고 31
– 집안일을 돕는 덕 〈예수님의 덕〉 127
데레사 메를로 240–246
도둑 319, 322
도미니코회 회원들 121, 222
– 도미니코회 영성 159
– 도미니코 제3회 121, 204
– 도미니코 제3회원 지도신부 121
– 제3회와 같은 종류의 〈협력자회〉 122
도서관 사서 67

도서관– 신학교 도서관 67
도시/고을
– 대도시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핌 84
–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 87
도움 〈유용〉 71, 170
– 물질적이고 영성적인 도움 338
– 기도의 도움 307
– 바오로가족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음 35
– 성소에 도움 284, 327
– 성소에 도움을 주는 센터 327
– 성소 지원 327
– 은총이라는 신적 도움 193
– 지식이라는 인간적 도움 193
– 천국에서 도울 것 291
– 프리모 마에스트로에게 테클라 메를로는 한결같은 조력자 244
– 필요한 도움 43
– 하느님의 도움 161–173
– 희생, 기도, 봉헌의 도움 163, 249
독립 〈바오로수도가족 사이에〉 35
독서/애독 21, 67, 71, 76, 118, 121, 125, 175
– 교회사 통독 66
– 복음서 봉독 139
– 성인전을 읽음 119
– 세계사 통독 66
– 영적 독서 175
– 빛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가르침 27
독일인 195
– 독일 학자들 50
돈/융자 67, 166, 172
돌봄/관심사
– 영혼의 보살핌/영혼을 돌봄 40, 83, 84
– 첫 번째 관심사는 삶의 성화; 두 번째 관심사는 거룩한 교의를 주는 것 90
돌아옴– 전쟁터에서 돌아옴 108
동료 수사들/형제들 353
동료 174
– 동료 신학생 18
– 학교 동료/친구들 9, 11
동반 12
동요하다– "동요하지 마라" 156
동조/동의 168
동참– 기쁨과 고통에 동참 35
동화시키다– 기도 안에서 〈가치들을〉 동화시키다 146
"두려워 하지 말라" 152, 224
두려움
– 무분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112
– 여러 나라의 공포 101
– 하느님을 경외함 124
뒤흔들다– 모든 진리의 토대를 뒤흔들다 89
들판/밭 125
등대– 예수님이 밝히신 등대 57
등록된– 전 세계에 등록된 협력자 회원 122
따르다– 성 바오로와 마리아를 따르다 354
– 하느님의 뜻에 따르다 6
땅–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1, 183

때
– 섭리의 때 43
– 성체흠숭 시간 146
– 지금 201
– 하느님의 때 30, 109, 335
뜻/의지 157, 185
– 바오로가족은 하느님이 원하셨다 32, 156
– 선의의 사람들 51
– 장상의 뜻 29
– 정신, 의지, 마음 22, 44, 97, 98, 100
– 하느님의 뜻 2, 6, 30, 340
라디오 54, 244, 250, 327
로마 미사전례서 *1, 33, 183, 190*
로마 신자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4
로마로 이전 114
로마 정신 48–57
로사 〈카르도나〉– 하느님의 참된 장미 9
마니피캇 *4, 78*
– 모든 것은 우리를 '마니피캇'으로 인도한다 4
마에스트로 ↗프리모 마에스트로
마음/성심/심장 116
– '죄를 뉘우치라' *152*
– 교구의 박동하는 심장인 〈신학교〉 332
– 그리스도의 마음 159
–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 65; 지성인들 197
– 마음속에 박혀 있는 가시 26
– 성 바오로의 마음 64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득한 성심 180
– 예수 성심 65, 222
– 예수 성심 〈신심〉 179
– 위대한 교황의 마음 15
– 의지, 마음, 육체적 힘 100
– 정신과 마음의 좋은 자질 104
– 정신, 마음 그리고 행위 142
– 정신, 마음, 의지 22
– 정신, 힘, 마음 24
– 지성과 마음에서 319
– 지성과 마음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것〉 20
– 지성, 의지, 마음 98
– 지성, 의지, 마음과 행실〈행업〉 97
– 지성, 의지, 마음, 육체적 힘 44
– 하느님의 부성적 마음 338
마음속에 품다
–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한다 65
– 지성인을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 197
많게 하다/증대하다/배가하다
– 많게 하는 일을 하는 수사 41
– 수사는 사도직을 증대시킨다 42
말씀 199, 338
–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86
– 말씀의 직무 316
말하다/밝히다– 말해야 한다 29
매력– 하느님의 사랑에 완전히 의탁한다는 매력 248
멍에– 프리메이슨의 멍에 49
메시아 312
면목 없음/낮춤 8*, 216

멸시– 우리에게는 멸시를 158
명복을 비는 기도 324, 353
모델
– 복음서는 모든 출판물의 모델 141
– 복음서는 설교의 모델 142
"모두 나에게 오너라" 15
모두를 사랑하라… 26
모든/모든 것/전체
–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242
–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격 100
– 그리스도 전체 〈통합적〉 159
–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224
–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품다 65
– 모두 영원한 기쁨 안에 일치하십시오 351, 355
– 모든 가톨릭 신자가, 모든 성소와 사도직을 위하여 328, 338
– 모든 것 곧 본성, 은총, 성소는 사도직을 위한 것 100
–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다 87
– 모든 것은 배움터가 되었다 56, 90
– 모든 것은 우리를 '마니피캇'으로 인도한다 4
– 모든 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186
–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 4
– 모든 것을 감실에서 155, 157
– 모든 것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제시하다 87
– 모든 것을 묵상과 기도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다 68
–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다 24
–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 186
–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 243
– 모든 경신례 65
– 모든 남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351
– 모든 문제와 사건은 복음의 빛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65
– 모든 민족을 위한 바오로의 영성 64
– 모든 범주의 사람을 위한 출판 65, 86
– 모든 법 65
– 모든 사도직에 있어서 65
– 모든 선행 65
– 모든 좋은 잡지 67
– 모든 필요성을 위한 적응과 이해 65
– 복음을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사고에 침투시키다 87
– 언제나, 오로지,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56
– 이 모든 걸음걸이는 친절하고 사랑에 찬 섭리가 준비시켜 주었다 78
– 이 모든 것을 하느님 자비의 손에 맡기다 45
– 인간은 완전히 붙잡히다 160
– 일에 전념하십시오 30
–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 65
– 전 인격을 계발하다 22
– 전 인격을 발전시키다 26
–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70
– 천상 스승 예수님께 모든 것을 탄원하다 286
– 천상 스승의 모든 것 247

–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직관〉 194
–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 100
모범 〈성 바오로〉 2
– 모범적인 동료 174
모성– 마리아의 모성 182
모습– 스승의 모습 154
모임– 문화 전반에 걸친 강좌 175
모집– 〈성소자〉 모집 36
목소리/음성
– 생생한 목소리로 설교함 86
– 천상 스승의 음성 157
– 하느님의 음성 248
목자 312, 313, 314, 315, 322
– 목자이신 하느님은 영혼을 오류와 죄에서 지켜주신다 319
– 보조 사목자들 322
– 사목자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곁에 있는 수도자들〉 346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사목자들의 협력자 82
– 참된 목자 318, 319
– 천상 스승 친히 우리에게 당신을 목자로 제시하셨다 310
– 하나의 우리와 한 목자 310
↗착한목자
목적 ↗목표
목적 187
– 과학의 목적 185
– 바오로인 성당의 건립 목적 77
– 병행되는 목적 345
– 섭리의 목적 43
– 잘 정해진 목적 146
– 전례의 목적 74
– 존재의 목적 〈"너 왜 여기 왔는가?"〉 197
– 주요 목적 341
목초지– 비옥한 목초지 〈묵상과 성사〉 317
목표 〈사제성소〉 9
목표로 삼다– 〈확장을〉 목표로 삼다 114
무감각한 사람들 55
무관심– 사목자들의 무관심 322
무기– 과학은 고귀한 무기 188
무대
–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2
– 영혼을 두고 다투는 무대 54
무덤– 성 바오로의 무덤 116
무리– 사도들의 새로운 무리 20
무분별
– 무분별한 사람들 55
– 너무 무분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112
무익한– 사회에서 무익한 130
묵상 175, 179, 317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묵상 64
– 모든 것을 묵상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다 68
– 묵상 〈끊임없는 양식〉 67
– 묵상의 주제 64
– 성체 앞에서 묵상한 경험 56
– 전례에 대한 묵상 144
묵상하다 127
묵주기도 31, 173
문
– 수사들에게 문을 열어주다 39
– 예수님은 우리의 문 314, 315

– 인류에게 개방된 문 115
– 철학은 신학의 문 191
문법– 의미를 위해 문법을 희생하다 157
문제
– 근본적인 문제 〈정신의 일치와 경영관리의 독립〉 131
– 복음의 빛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문제 65
– 사회문제 14, 19, 52, 69
– 작은 문제였지만 삶의 문제 333
문학 51, 87
– 문학을 쇄신하다 19
– 세계문학 66
문헌– 성좌의 문헌 329
문화 50
– 모든 생각과 사고 87
문화적 영향
– 대중에게 끼치는 문화적 영향 69
묻다/질문하다
– 마리아께 여쭈어보다 201
– 장래에 관해 물었다 9
물 286
– 물의 흐름과 같은 바오로가족 5, 6
– 은총의 물 287
미래 185
– 생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동안 17
–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9
미사 2, 65, 204, 308, 349
– 두 번의 주일미사 184
– 미사에서 모든 선이 286
– 미사 〈성작과 함께 바치는 기도〉 25
– 미사 중에 복음을 설명하다 140
– 의무 또는 애덕으로 미사를 353
– 장엄미사 19
– 자정 장엄미사 13
– 지속적인 거룩한 〈2400대〉 미사 단체 122, 162, 249, 343
"미세레레"
– 새롭고 통회에 찬 "미세레레" 1
미사경본 74
미지의 사람들 〈은인들〉 166
미치다– 미쳤다는 비난 166
민첩함 244
믿다– 계시를 믿는다면 186
바오로
– 〈공동체/수도원〉 143
– 〈알바에 있는〉 성당 143
– 성바오로수도회 167
– 영적인 빛 23
– 〈회보〉 *c332*
↗성 바오로
바오로 가족 1, 25, 27, 32, 64, 65, 74, 82, 88, 90, 93, 104, 110, 123, 128, 129, 130, 131, 133, 136, 146, 157, 163, 176, 180, 184, 196, 200, 201, 218, 307, 334, 341, 343, 344, *c350*, 351, *c355*
– 가족에게서 거대한 빛이… 157
– 그와 같이 나는 이 훌륭한 바오로가족에 속해 있기를 바란다 3
– 바오로가족은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표지 32, 113, 156
– 바오로가족을 위한 첫 계획 12
– 바오로가족의 계속적인 걸음 29
– 바오로가족의 교리교수 활동 81
– 바오로가족의 부/풍요로움 4

– 바오로가족의 시작 27, 29, 103
– 바오로가족의 커다란 임무와 책임 63
– 바오로가족의 특수사명 13
– 성좌에 봉사하기 위한 바오로가족 115
– 작은 바오로가족 5
– 하느님이 바오로가족과 함께 계시다 113, 156
– 훌륭한 바오로가족 3
– 흐르는 물과 같은 바오로가족 5
↗부/풍요로움
↗사명
바오로가족수도회/바오로수도회들 33, 46, 129, 131–135, 240, 244, 326, 345–348
– 바오로가족수도회 사이에 기도와 도움을 주고받음 35
– 바오로가족수도회 사이의 긴밀한 협력 34
– 바오로가족수도회의 독립 35
– 바오로가족수도회의 분리 35
– 바오로가족수도회 사이의 친족관계 34, 35
– 정신은 하나, 그리스도를 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 34
바오로인
– 바로로인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183
– 바오로인의 성당 77
– 첫 바오로인들 215–224
↗성바오로수도회
바오로인의 네 바퀴 100, 163
바퀴 〈네 바퀴〉 100, 163
바티칸
– 바티칸 출판본 복음서 145
– 복음서에 대한 존경 142
반감
– 반감을 느끼는 선물 28
– 영적 비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반감 8*
반대자
– 반대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수단 15
– 완고한 많은 반대자 60
반대하는 사람들 167
반半장님– 알베리오네 신부는 반장님처럼 인도받고 빛을 받았다 202
받다– 감실로부터 받다 153
발견 52, 185
– 새로운 발견 52
발명 185
발전/계발/개발
– 사도직은 발전을 위해 충분했다 135
– 사도직의 발전 30, 308
– 인격, 인성 개발 22, 146–150
밤
– 빛의 밤 〈1900. 12. 31 – 1901. 1. 1〉 13
–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며 172
방
– 방 안에 칩거 47
– 의회 62
– 침실 126
방문
– 공동체 방문 245
–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289
– 브뤼셀 방문 〈여행〉 128

– 성체방문 1, 56, 146, 173, 224
– 예술 작품 관람 〈박물관 등〉 76
방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영 327
방편 166
방학 〈근면한 방학〉
– 신심, 공부, 노동과 방학 125
– 여름방학 36, 125
– 청소와 휴강/수업이 없을 때 126
↗여가/레크리에이션
방해/장애요소 156, 242
– 은총의 활동을 방해함 151
방향/책임 200
– 그 방향으로 나아감 155
– 교구 주간지 편집 책임 111
– 논리 없이는 어떠한 방향도 잡을 수 없다 92
– 사목 방향 50
– 영적 지도 책임 149, 179
방향을 잡다 〈목표로 삼다〉
– 모든 것을 가톨릭주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87
– 목표로 하는 연구 〈방향을 잡은 연구〉 98
배우다 98
– 모든 것을 묵상과 기도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배웠다 68
백과사전
– 가톨릭 학문에 관한 백과사전 67
– 스승 예수에 관한 백과사전 88
백 배 24
백성/대중/민중 108, 187, 330
– 대중에게 복음서와 성경을 열어놓다 139
–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 195
– 모든 민족에 대한 성 바오로의 열성 64
–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65
– 전례는 대중화되어야 한다 306
백의의 사제회 〈아프리카 선교사들〉 118
백합– 백합과 장미, 제비꽃 정원 39
번민– 영적 번민 113
벌 167
벌다– 양식을 벌다 128
범주– 모든 범주의 사람 65, 86
법/법률학 65, 199
– 교회법 132, 175, 308
– 교회법과 〈민법〉 195
– 법학사 66
법률 63, 308
– 법을 쇄신하다 19
베네딕토회 회원들 222
– 베네딕토 전례센터 293
– 베네딕토회 영성 159
병 242, 244
– 과학지상주의와 기술만능주의의 병 185
– 전쟁터에서 얻은 병 161
– 〈1923년〉 알베리오네 신부의 병 152
– 폐결핵 112
병상– 병상 기간 47
↗건강/구원
병자들 〈병자들의 영성체〉 178
병행– 바오로수도회들의 병행 345
보급 216, 342
– 보급하는 수사 41

– 복음전파/복음서 보급 136, 145
– 성서 보급활동 145
보살핌– 어머니의 보살핌 10
보상– 천상적 보상 313
보속 338
보존– 성소에 상응하고 그 보존에 적합한… 338
보증 〈확증〉 112, 113, 151, 154, 350
–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 156
보충해 주다– 그의 부족을 보충해 주다 32
보편성 64–70
– 보편성의 성인 〈성 바오로〉 64
보호– 마리아의 보호 아래 두다 85
보호하라– 사람들의 최고선을 보호하라 53
보화– 진리, 은총, 자비의 보화 322
복음사가들– 마리아와 복음사가들 289
– 복음사가들의 비서인 바오로인 157
복음서 20, 42, 87, 93, 95, 139, 143, 144, 197, 308
– 교리적인 주가 달린 복음서 140
– 대중 속에 복음을 침투시키다 14
– 대중에게 복음서를 열어놓다 139
– 몇몇 신자가 복음서를 읽음 139
– 모든 가정에 복음서가 140
– 몸에 지니고 다닌 복음서 145
– 문제와 사건은 복음의 빛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65
– 미사 중에 복음을 설명하다 140
– 복음서 〈모든 출판물의 모델〉 141
– 복음대회 334
– 복음주간 334
– 복음서로 바치는 3일기도 334
– 복음서 봉독 339
– 복음서에 대한 공경 142
– 복음서의 날 136, 145
– 복음으로 양육되다 95
– 복음을 교회의 정신에 따라 해석하다 140
– 복음을 총체적으로 살다 93
– 복음전파/복음서 보급 136, 145
– 설교와 복음서 142
– 〈성녀 체칠리아처럼〉 복음서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었다 144
복음화 199
– 비신자들의 복음화 119
본당 61, 78, 82, 105, 140, 324, 327, 334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이 여러 본당에 309
– 본당사목 104
본당신부 110
– 알베리오네 신부의 본당신부 12
본성
– 본성과 은총 28, 43
– 본성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은 진리 186
– 본성, 은총, 성소는 사도직을 위한 것이다 100
– 자연적 인격 146
본질/본질적 128, 240
–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70
봉사/섬김 128, 307
– 가정을 위한 봉사 307
– 바오로가족은 성좌에 봉사하기 위

한 것이다 115
– 사제적 봉사의 사도직 307
– 성직자를 위한 봉사에 대한 출판 69
– 지원자들의 사제직 봉사 284
봉사하다/섬기다/사용하다
–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교회에 봉사하다 20, 34
– 모든 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186
– 스승 예수님은 바오로인들을 사용하신다 157
– 조국을 섬기다 108
봉헌된
– 바오로가족을 성 바오로께 봉헌했다 64
– 하느님께 봉헌된 여성 109
부/풍요로움
– 부의 생산, 분배와 소비의 체계 52
– 부 〈학업수료〉 199
– 빛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풍요로움 27
–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 182
– 은총의 부/은총의 풍요로움 〈하느님의 은총〉 4, 27
– 풍요로움 〈복음전파〉 136
– 풍요로움 〈사건들의 자연적인 결과〉 27
– 풍요로움 〈사목정신〉 82
– 하느님의 활동에 의해 도달된 풍요로움 27
– 협력자라는 부 121
부당한/부합하지 못하는 1, 78
부드러움/감미로움 245, 331
부르심/초대
– 사도들의 부르심과 양성 339
– 주교의 〈초대〉 80
↗성소/성소자
부모 338
– 부모들을 위한 기도 327
부분과 전체 159
부족 32
부합– 신심의 부합〈적합화/적용〉 180
부활– 목자이신 하느님의 부활 319
분별
– 사도적 분별 101
– 하느님께 속한 것과 우리에게 속한 것에서 구별해야 한다 158
분배 – 〈부의 분배 체계〉 52
분리/이별
– 이별 〈일시적인, 죽음〉 351
– 통치, 관리, 활동에서의 분리 35
분열 53
– 성직자 사이에 새로운 분열이 52
분위기 174
불사르다– 인쇄기, 수도원과 신문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했다 172
불신
– 채권자들의 불신 172
– 불신에 빠진 선의의 많은 사람 60
불신자들 54
불완전함/부족/부족함 45, 156, 158
불확실/불확실성 111, 112, 248
–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112
붓 350
비가톨릭신자 139, 328
비교– 바오로 공동체와 다른 수도단체들 사이의 비교 222
비밀/비결

– 간직해야 할 비밀 32
– 성공의 비결 〈계약〉 158, 163, 242
– 위대함의 비결 95
비서
– 복음사가들의 비서 157
– 성 바오로의 비서 157
비신자들 119, 328
비약– 교회가 선교에 〈새로운〉 비약을 19
비유 311
비참 78
비추다 43, 51, 352
– "나는 비추기 위하여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157
– "나 여기서 비추기를 원하노라" 152, 153, 157
– 모든 사도직을 비추다 65
– 빛을 받은 사람들 27
– 사람들은 빛을 받는다 42
– 인간을 비추다 186
– 지식인들을 비추다 188
– 하느님에게서 빛을 받은 알베리오네 신부 9, 202
비품– 교리교수용 비품 79
빛 309
– 그리스도의 빛 191
– 그분에게서 모든 빛을 받아야 153
– 나는 너희의 빛이다 157
– 너희는 빛이다 87
– 눈부신 빛 201
– 더 밝은 빛 〈"꿈"〉 136, 151–155
– 매혹적인 빛 안에서의 비오 10세 50
– 부르심 받은 이들은 세상의 빛 338
– 분명한 최초의 빛이었다 9
– 빛 〈천상 스승〉 331
– 빛의 전달자 157
– 섬광 193
– 성체로부터 온 특별한 빛 15
– 성체이신 예수님 안의 빛 16
– 성체이신 예수님의 빛 82
– 신앙의 빛 194
– 어떤 빛을 받았다 113
– 영광의 빛 193, 194
– 영적인 빛 23
– 이성의 자연적인 빛 194
– 천상 스승을 감쌌던 광채/빛 154, 157
– 초자연적인 빛 245
– 특별한 빛 200
– 하느님은 빛이시다 202
– 하늘에서 충만한 빛이 190, 191
– 한층 더 밝은 빛 24
빵/양식
– 성체인 빵 287
– 양식을 벌어야 하다 128
뼈만 앙상한– 뼈만 앙상한 〈외모〉 2
뿌리– 숨어 있는 뿌리 282
뿌리를 내리게 하다– 정신과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다 20
삐꺽대는 순간 〈어려움〉 243
사건 ↗일 27
사건들– 복음의 빛에 비추어 판단한 사건들 65, 87
사도
– 마리아와 사도들 289
– 사도 〈노동자요 설교가〉 128
– 사도들과 마리아 182

– 사도들 〈사도의모후수녀회 곁에 있는 수도자들〉 346
– 사도들을 위한 특별한 은총 306
– 사도들의 부르심과 양성 339
– 사도들의 새로운 무리 20
– 사도들, 파견된 자들 115
– 사도, 사제–저술가 216
– 사도 〈성 바오로〉 64, 313
– 사도적 생활 24
– 사도적 인격 146
– 새로운 사도들 19
– 성 바오로 사도 2, 196
– 예수님과 사도들 223
– 오늘의 사도가 되어야 15
사도의 모후 85, 93, 335, 354
– 사도의 모후께 대한 신심 181, 327
– 사도의 모후께 바치는 주간기도 120
– 사도의 모후께 봉헌된 성당 75, 250
사도의모후수녀회 *1*, *c326*–340, 346
– 사도의모후수녀회의 이상은 모두가… 모든 성소와 사도직을 위하여 328
사도직 24, 57, 64, 65, 122, 147, 183, 352
– 같은 사도직으로 일치된 사제와 수사 41
– 교구출판은 사도직의 길을 열어주었다 30
– 교리교육의 사도직 80, 324
– 구분된 사도직 135
– 그리스도교 삶과 사도직 344
– 기도의 사도직 204, 285
– 모든 것 곧 본성, 은총, 성소는 사도직을 위한 것이다 100
– 모든 사도직에 있어서 65
– 모든 사도직을 비추고 지탱하고 65
– 모든 사도직을 위하여 328, 338
– 바오로적 사도직 84, 107, 240
– 바오로적 사도직에 완전히 매료됨 248
– 바오로적 사도직에서 사목적 특징 84
– 사도적 생활 24
– 사도적 일 129
– 사도직 활동/ 사도직인 노동 115, 128, 133
– 사도직, 네 바퀴 가운데 하나 100
– 사도직, 모든 사람에게 침투할 만한 보급 216
– 사도직, 제물 287
– 사도직과 마리아 182
– 사도직에 관한 한 본당사제에게 협력 324
– 사도직에 관해서는 교황께 순명 57
– 사도직에 기여/ 사도직의 공덕 24, 341
– 사도직에 대한 사랑 243
– 사도직에 대한 인식 121
– 사도직에 맞추어 향상된 기술 216
– 사도직에 안정성을 24
– 사도직에 지속성을 24
– 사도직에 초자연성을 24
– 사도직에 헌신 218
– 사도직은 중노동 38
– 사도직을 위한 투입 107
– 사도직을 위한 특별한 은총 306
– 사도직의 내용 87, 88

– 사도직의 발전 308
– 사도직의 본질 128
– 사도직의 새로운 수단들 19
– 사도직[의 수입]으로 살아 간다 330
– 사도직의 이상 108
– 사도직 정신을 주려고 23
– 사도직 직무 355
– 사도직의 풍성함 22
– 사도직이 되는 성체적 신심 305
– 사제–저술가의 사도직 216
– 사제적 그리고 전례적 사도직 247, 279
– 사제적 봉사의 사도직 307
– 사제적 사도직 280, 285
– 섬세한 사도직 331
– 성 바오로의 사도직 94
– 성소사목의 사도직 327
– 세 가지 필요성과 세 가지 사도직 304–308
– 수도생활과 사도직 344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성체 사도직 305, 308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전례 사도직 306
– 신앙, 윤리, 은총의 생명을 목표로 삼는 성체 사도직 308
– 알베리오네 신부의 미래 사도직 13
– 여성의 사도직 280
– 유일한 사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65, 130
– 유일한 사도직의 새로운 활동 130
– 전례 사도직 247, 292
– 전례적–성체성사적 사도직 290
– 출판 사도직, 사회 사도직 및 사목 사도직 분야에서의 여성 109
– 출판 사도직 협력자회 122
– 특수 사도직에 대한 인식과 사랑 240
– 특수 사도직에 파견하기 244
– 하나의 사도직에 참여하는 〈수사들〉 40
사도행전 *64*
사랑 4, 290
– 가엾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 321
– 교구에 대한 사랑 107
– 사도직에 대한 사랑 240
– 사람들에 대한 사랑 220, 243
– 수도회에 대한 사랑 243
– 스승 예수께 대한 사랑 292
– 예수님 사랑의 증명 320
– 진리에 대한 사랑 92
– 첫 네 명의 바오로인의 초창기 가족에 대한 사랑 217
– 하느님께 대한 사랑 215, 220
–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 100
– 하느님 사랑에 완전히 의탁함 248
사랑/애덕 167, 223, 309
– 사랑의 두 가지 계명 344
– 사랑의 밀접한 유대 35
– 수사 지망 성소자를 〈받아들이는〉 애덕 39
– 애덕으로 〈명복을 비는 기도〉 353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159, 324
– 정의와 사랑 65
– 진리와 애덕 291
–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믿음, 희망, 사랑을 355
사랑하라– 마리아를 사랑하라 354

사로잡다– 지성인들을 사로잡다 197
사말– 사말에 대한 생각 149
사명/선교 112, 120, 157, 350
– 사명에 응답 200
– 사제의 진정한 사명 15
– 선교의 새로운 비약 19
– 선교활동 308
– 선한목자예수수녀회의 사명 309–325
– 수도회의 사명에 충실함 331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사명 196, *c279*–291
– 여러 나라에 물을 분배함 6
– 유일한 사명 157
– 특별한 사명 7, 13
사목
– 바오로적 사도직의 사목적 특징 84
– 사목방향 50
– 사목 사도직 분야에서의 여성 109
– 「사목신학 개요」 77, 83
– 사목실습 기간 347
– 사목강연 181
– 사목정신 82–86
– 사목직무 82
– 옛날 사목방법 49
사목성– 더욱 활발한 사목성 309
사목신학 개요 83
사목자/일꾼– 철학을 계시에 이르게 하는 일꾼 189
사업/일/ 이니셔티브/창안 245
– 기부금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함 128, 133
– 성좌의 이니셔티브 337
– 일에 착수하다 47
– 창안 정신 146
사인/서명 〈요셉 야고보 알베리오네〉 354
사적 해석– 복음과 성경의 사적 해석 139
사전– 가톨릭 학문에 관한 사전 67
사제 2, 10, 12, 41, 80, 109, 119, 131, 160, 162, 178, 291, 313, 319, 321, 328, 333, 335, 338, 346
– 저술가 41, 216
– 사제 또 다른 그리스도 284
– 사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계승자 188
– 사제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소를 받는다 315
– 사제와 수사는 같은 사도직으로 일치되었다 41
– 사제의 설교 42
– 사제의 참된 사명 15
– 사제이신 예수님 159, 310
– 성체흠숭 사제회 204
– 수도사제 40
– "신부"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9
– 영원한 사제 〈예수 그리스도〉 307
– 옛 율법의 사제들 318
– 전례와 흠숭을 위한 사제들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곁에 있는〉 346
– 젊은 사제들 83, 85, 181
사제직 40, 307, 327, 338, 347
– 사제 지망자 174
–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280
– 사제직 가까이에 있는 평신도들 39
– 사제직의 저작자 〈주님〉 338

– 수도성소와 사제성소 329
– 수사에게 사제직에 비길 만한 직무를 40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사제적 사도직 247, 279, 285
– 임금의 사제단 41
– 지원자들의 사제직 봉사 284
– 하느님만이 사제직으로 부르신다 314
사제직에 비길 만한– 수사에게 사제직에 비길 만한 직무를 40
사진 327
사탄 156
↗악마
사회/단체/사회적
– 그리스도교 사회활동 63
– 레오 13세의 가르침 19
– 사회 문제에 관한 여러 대회 59
– 사회 사도직 109
– 사회 사도직 분야에서의 여성 109
– 사회문제 19, 52, 69
– 사회의 선익 308
– 사회적 상황 52
– 사회적 의무 〈노동〉 128
– 사회정신 58–63
– 사회학 강연회 59
– 사회학 연구 59
– 사회학 분야에서 탈선함 89
– 사회활동 59, 329
–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체 24
사회주의 49, 52, 62
사회주의자 156, 172
사회학 59, 88, 175, 199
– 사회학 수업 181
삯꾼 310, 312, 313
살다
–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활동하다 95
–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70, 183
– 복음을 살다 93, 142
– 예수 그리스도를 살다 34
– "왜 살고 있는가?" 185
살레시오회 회원
– 살레시오가족의 큰 나무 222
– 수도회들 〈살레시오수도회와 살레시오수녀회〉 345
– 살레시오회 105
– 살레시오회 영성 159
– 살레시오회의 포교용 출판물들 118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94
살아 있는 등불– 성체이신 예수님 앞에 살아 있는 등불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87
삼일기도 327
상급– 〈천상 스승〉 331
– 영원한 상급에 동참함 35
– 하느님의 상급 24
상응
– 사명에 응답 200
– 성소에 상응하고 보존에 적합함 338
상이성– 성바오로수도회와 다른 신학교의 상이성 176
생각/사상 20, 21, 128
–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활동하려는 생각 95
– 모든 인간적 생각 87

– 목표에 대한 생각은 많은 위험에서 그를 구해주었다 9
– 사말에 대한 생각 149
– 사상의 전달 54
– 사제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상 310
– 생각을 바꿈 7
– 생각이 분명해지다 21
– 성소로 향한 생각 9
– 여러분 생각의 대상 70
– 〈적합한〉 생각 95
– 전 인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22
– 천상 스승의 생각 87
–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 생각 〈협력자회와 바오로가족〉 25
– 토마스의 근본 사상 91
– 확고한 생각 〈로마로 간다는 〉 116
생계– 생계수단 133
생기를 불어넣음– 문화에 그리스도교적 생기를 불어넣음 87
생명력–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사명〉 282
생명수 286
생산
– 부의 생산 체계 52
– 전력, 전열, 전광의 생산 5
생활/삶/생명/목숨 159, 176
– 개인생활을 개선하다 121
– 관상생활 247, 279
–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70, 128
– 그리스도교적 삶/그리스도인의 삶 122, 344
–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삶 94
– 기도에 전념하는 삶 247, 279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 도〉 63, 93, 97, 98, 159, 182, 338, 352
– 내적 삶의 사도직 284
– 더욱 강렬한 영적 삶 309
– 바오로인의 삶 38
– 바오로인의 수도생활 342
– 사도적 삶 279
– 사도적 생활의 공덕 24
– 삶과 빛의 실제적인 계획 154
– 삶을 위한 충분한 사도직 135
– 삶을 통해 사람들과 결속되어 있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 324
– 삶의 계획 183
– 삶의 성화 〈바오로가족이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것〉 90
– 생명을 위한 예술 76
– 생명의 봉헌 161, 162
– 서원하기 전에 살아보는 삶 37
– 성 바오로의 삶 94
– 성인전 175
– 수도생활 41, 240, 243, 308
– 수도생활과 사도적 삶 344
– 영원한 생명 24, 194
– 예수님의 공생활 180
– 예수님의 근면한 삶 127
– 예수님의 사생활 289
– 옛 생활방식 49
– 위대한 선교사들의 전기 119
– 은총의 생명 308
– 진리를 위한 생명 *291*
– 착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310
– 최전방 생활 〈전쟁의…〉 108

– 희생된 예수님의 생명 320
생활유지 133
서간/편지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4
– 성 바오로의 서간들 *64*, 94
– 수사에서 온 알베리오네 신부의 편지 221–224
서문– 「사목신학 개요」 서문 83
서원 326
– 사도직에 관해서는 교황께 순명이라는 제4서원 57
서적/책 71, 8, 121, 327
– 복음서 141
– 「사목신학 개요」 77, 83
–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109
– 성령의 책 〈전례〉 306
– 「은총의 성모님」 소책자 *201*
– 의식서 72
– 이중의 책〈테클라 메를로〉 246
– 창조의 위대한 책 185
서점원– 〈가톨릭 조직〉 23
서클/모임/회
– 덕망 있고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164
– 소년 예수의 서클 126, 204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회 204
서품〈사제〉 117
선, 재물
– 미사에서 모든 선이 286
– 사람들과 조국의 최고 선 53
– 수도회의 선 341
– 선을 위한 예술 76
– 재물의 나눔 342
선교사들
– 아프리카 선교사들 〈백의의 사제회〉 118
– 위대한 선교사들의 전기 119
선교회/전교회 117, 118, 119
– 밀라노 해외 선교회 118
– 선교를 위한 출판 69
선물 180, 204
–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 243
–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셨다 28
– 천상의 선물 120
– 협력자라는 선물과 부 121–123
선생/스승/교사
– 스승이요 사도의 모후이신 우리 어머니 마리아 354
– 카르도나 선생 9, 10
선생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 324
"선언문"– 완성해야 할 바오로가족에 관한 "선언문" *c345*–348
선전포고 48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42
선한목자예수수녀회 *1*, 46, 82, 244, *c309*–325, 336, 346, *347*
– 사제들과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은 예수님에게서 성소를 받는다 315
– 참된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 318, 319
– 하느님만이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의 수도생활로 부르신다 314
선한목자예수수녀회 *c309*–325
선함 242, 245

– 하느님의 선 4, 32
선호/총애
– 천상 스승의 애정 어린 눈길 288
– 하느님의 총애 〈제자인 수사 성소〉 39
설계도 77
설교 31, 82, 105, 117, 119, 128, 143, 175, 179, 316, 318
– 구두 설교 〈생생한 목소리〉 86, 306
– 그리스도교 사상의 설교 342
– 설교와 복음 142
– 설교의 선호 주제들 73
– 현대적 수단을 이용한 설교 42
설교하다 105
– "가서 설교하고 가르쳐라" 81, 82
– 교의, 윤리, 경신례를 설교하다 73
– 설교와 글로 엮어진 성체흠숭 143
– 설교하고 노동하다 128
– 예배를 설교하다 〈모든 것의 종합〉 306
설명– 미사 중에 복음에 대한 설명 140
설명한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한다 109
섭리 43, 58, 78, 112, 131, 133
– 그는 결코 섭리의 손길을 강요하지 않았다 45
– 하느님의 섭리 134, 192, 331
성省
– 성직 수도회 349, 353
– 수도자성 329
– '신학교와 교육기관성' 329
성가정– 성가정을 이루어 살다 307
성경 51, 99, 138, 143, 145
– 대중에게 주어지지 않은 성경 139
– 성경 연구 137
– 성경에 대한 활동 250
성공 〈성공의 비결〉 158
성광– 성광과 같은 신학교 333
성당/성당건립 74, 77, 126, 128, 290, 333
– 바오로인의 성당 75, 77, 250
– 성당 건립을 위한 기부금 133
– 세 개의 주요 성당 75–77
– 적합한 성당 73
성령 215, 223
– 전례는 성령의 책 306
성무일도서 71
성물 77
성바오로 2, 64, 70, 157, 159, 173, 186, 196, 310, 313, 335
– 1920년에 성 바오로께 바치는 구일 기도 248
– 교의, 윤리적 가르침, 경신례, 교회 조직 안에 살아 계시다 94
– 교의신학과 윤리신학에서의 성 바오로의 업적 64
– 교회에 대한 성 바오로의 각인 64
– 교회의 조직가 64
– 귀감/모범/표양 2, 344
– 노동자 128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4
– 모든 민족에 대한 성 바오로의 열성 64
– 바오로가족의 아버지요 보호자 2, 354
– 사도 64
– 성 바오로 성당 75, 250

– 성 바오로께 대한 신심 64, 180, 327
– 성 바오로께 대한 존경 64
– 성 바오로에 대한 연구 159
– 성 바오로의 규칙 〈노동〉 128
– 성 바오로의 무덤 116
– 성 바오로의 보편성 64
– 성 바오로의 비서 157
– 성 바오로의 사도직 94
– 성 바오로의 삶 94
– 성 바오로의 서간 64, 94
– 성 바오로의 성성 64
– 성 바오로의 예수님과의 친밀함 64
– 성 바오로의 인품 64
– 성 바오로의 전구 1
– 성 바오로의 정신 64, 70, 93, 94, 95
– 성 바오로의 첫 자녀들 215
– 성바오로수도회 167
– 스승 2, 354
– 언제나 구원이셨다 164
– 여행자 117
– 예수님의 제자 159
–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가 되셨을 것이다〉 17
– 창립자 2
–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치유 64, *152*
성바오로딸수도회 *1*, *64*, 109, 162, *c240*–246, 345
– 성바오로딸수도회 모원 *75*
성바오로수도회 *1*, *64*, 122, 162, 197, 221, 336, 342, 345, 347
– 바오로가족 수도회의 양육자 35
– 성바오로수도회 모원 *75*
– 성바오로수도회와 스승예수의제자 수녀회 284
– 성바오로수도회의 수도생활 강화 249
– 성바오로수도회의 승인 249
– 성바오로수도회의 탄생 48
– 신학교와 성바오로수도회의 상이성 176
– 초창기 성바오로수도회 215–224
성사 286, 308, 313, 317
– 성사의 활용 149
– 성체 56
성삼위 183
– 성삼위께 대한 신심 179
성성 3, 160, 324, 328, 338
– 교의의 성스러움 〈바오로가족에서 두 번째로 돌보아야 할 것〉 90
– 〈꿈에서〉 들으신 말씀은 거룩하다 154
– 그리스도의 성성 159
– 부르심 받은 이들이 거룩하기를 바란다 338
– 삶의 성화 〈바오로가족이 첫 번째로 돌보아야 할 것 90
– 성 바오로의 성성 64
– 성성 〈자석〉 340
– 성성과 통합성 100
– 성성에 대한 원의 220
– 수사의 특별한 성성 39
– 주님의 거룩하심 216
– 지성의 성화 92
– 진리 없이는 그 어떠한 성화도 없다 92
성소/성소자 7, 9, 128, 167, 220,

284, 290, 315, 326–340, 347
– 가난한 성소자들 327
–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소 327
– 남성 성소〈바오로인〉 110
– 많은 성소자에게 길을 열어주다 220
– 모든 가톨릭 신자가 모든 성소와 모든 사도직을 위하여 338
– 모든 성소 337
– 모든 성소를 위하여 328
– 모든 성소의 창시자 하느님 338
– 바오로적 성소 103
– 본성, 은총, 성소는 사도직을 위한 것이다 100
– 사제성소 7, 9
– 새로운 성소 110
– 선교사 성소 119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의 성소 314, 321
– 성소 〈하느님의 표지〉 113
– 성소는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혼을 지향한다 338
– 성소를 위한 교황청 단체 329
– 성소를 위한 기도 10
– 성소를 찾는 일/성소자 발굴 249, 338
– 성소에 대하여 고찰하다 332
– 성소에 도움 284
– 성소에 상응하고 이를 보존함 338
– 성소의 경이로움 223
– 성소의 기쁨 288
– 성소의 날 327
– 성소의 주제 *c332*
– 성소자 발굴, 양성 및 보조 327
– 성소자들의 양성 332, 338
– 성소자를 보내다 123
– 성인/어른 성소자 36, 335, 336
– 소홀히 하고, 방해받거나 배신당한 성소 338
– 수사 지망 성소자 〈하느님의 총애〉 39
– 수사 성소 39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는 성소자를 청하고 돕는다 307
– 여성 성소 109
– 부르심은 삶의 모든 순간에 335
– 젊은이의 성소 36
– 참된 수도생활 성소/참된 수도성소 240, 243
– 특별한 성소 7
성소의 결정/성소의 확신 10, 37
성소자의 집 335
– 영화사 옆에… 성소자의 집 개원 *347*
성소 전시회 *c332*, 334, 337
성소 촉진 36
성숙 82, 110
– 그리스도교적 성숙 *160*
– 진지하고 평온한 성숙 47
성숙시키다– 기도 안에서 〈가치를〉 성숙시키다 146
성심
– 밀라노의 가톨릭 성심대학교 *58*
–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179
"성 요셉 선종회" 204
성작 25
성장/진보 243, 340
– 성바오로딸수도회 회원 증가 245

– 예수님의 성장 289
– 인류의 진보 88
↗발전
성장하다
– 지혜, 나이 그리고 은총 안에서 성장한다 160
– 지혜와 은총과 덕에 있어 성장 97
성전 99
성좌 122, *c279*, 330
– 교황청의 프로그램 188
– 바오로가족은 성좌에 봉사하기 위한 것 115
– 성좌/사도좌 관보 55, 67, 79
– 성좌의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337
– 성좌의 지침과 문헌들 49, 52, 55, 329
– 성좌의 지침에 저항 52
성직자 55, 107, 109, 110, 168, 340
– 성직자를 위한 출판 69
– 성직자 사이의 두 가지 조류 49
– 젊은 성직자 51
성찰 〈분별〉 165
성체 20, *157*, 159, 180
– 거룩한 성체 286
– 성체 · 제물 〈예수 그리스도〉 307
– 성체로부터 온 특별한 빛 15
– 성체이신 예수님 16, 82
↗성체, 감실
성체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올리브 나무 95
성체이신 예수님의 절친한 벗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 녀〉 287
성체흠숭/성체조배 136, 143, 164, 173, 184, 196, 249, 327, 338, 346
– 성체흠숭 사제회 204
– 성체흠숭 시간에 146
– 성체흠숭과 바오로 사도직 308
– 성체흠숭에 전념하는 삶 247, 279
– 장엄미사 후 성체흠숭 19
– 장엄하고 지속적인 성체흠숭 13
– 철야 성체흠숭회 *13*
– 흠숭하고, 감사하며, 통회하고, 청원하기 위하여 68
↗방문〈성체〉
성화 333, 340
– 사제들과 서원자들의 성화 249
– 성화의 수단 343
– 영혼의 성화 308
– 회원의 성화 326
세 가지 사도직–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프로그램 304–308
세 배의 결실 167
세계대전 48
세기 107
– 금세기 101
– 새로운 세기 15, 17, 20
– 세세대대로 4
– 이 세기가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되도록 기도함 19
– 전세기와 금세기 13
세기적인 희년 〈1900–1901〉 *13*
세례를 베풀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 82
세계/세상 87, 115, 127, 156, 182
–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시길 63
– 보잘것없고 교만에 찬 세상 182
– 세상은 우리의 것 224
– 세상을 향한 개방 114–116

– 전 세계 65
– 전 세계의 협력자들 122
센터
– 그리스도교 사회 센터 *17*
– 베네딕토 전례센터 293
– '천상 은총의 어머니' 센터 *201*
소금
– 부르심 받은 이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338
– 소금, 빛, 도시 87–92
소년들/어린이들 104, 118, 335
–소년들〈지원자〉 172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327
'소년 예수' 〈서클〉 204
소리– 하느님의 종소리 335
소비– 부의 소비 체계 52
소유– 하느님의 소유〈바오로가족〉 156
소유자/주인
– 양떼의 소유자 312, 314
– 영혼의 소유자 313
– 양 우리의 주인 314
속량 〈구원〉 313
속함– 예수 그리스도는 바오로가족에 속하시며 가족도 그분께 속함 156
손
– 감실을 가리키던 손 157
– 하느님의 손/손길/수중 8*, 44, 79, 220, 242
– 하느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김 248
– 하느님 자비의 손 45
쇄신 83, 176
– 교리교수적 쇄신 107
– 사목적 쇄신 49
– 혁신, 쇄신 67
수녀 109, 347
수단 146
–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 250
– 가장 신속하고 폭넓은 수단 342
– 금세기에 요구되는 수단 101
– 모든 수단 338
– 모든 수단을 통하여 328
– 반대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수단 15
– 사도직 수단 128
– 사도직의 새로운 수단 19
– 〈사도직의〉 전통적인 수단 327
– 〈사도직의〉 현대적 수단 3, 327
– 새로운 수단 20, 54
– 생계수단 133
– 악의 새로운 수단 14
– 영혼을 돌보는 수단 83
–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 〈과학〉 185
– 현대적 수단을 이용한 설교 42, 306
–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단 83
수덕신학 89
수도신분/수도자 신분– 수도신분의 창시자 〈주님〉 338
수도서원– 서원하기에 앞서 신중한 결정 37
수도원/공동체/집
– 로마 양성의 집 114
– 〈바오로회〉 수도원/공동체 106, 107, 172, 222, 245
– 수도원을 위한 기부금 133
– 신학교, 공동의 집 333
– 제일 먼저 지은 집 26

– 첫 〈바오로〉 수도원 111
수도자
– 더욱 사랑받는 남녀 수도자들 340
– 수도자성 329
– 지상의 천사들인 수도자들 4
수도적/종교적
– 수도가족〈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47, 279
– 수도공동체 생활 23
– 수도생활 314, 344
– 수도성소와 사제
– 수도신분 338
– 수도자인 저술가, 기술자, 보급자들 24
– 수도적 가난 128
– 수도적 분위기 36, 338
수도회/단체/질서/순서 32, 40, 151, 161
– 다른 수도회에서 대피정함 36
– 도미니코회 121
– 병설 재속회들 *1*
– 본회〈성바오로수도회〉 48
– 살레시오회 105, 345
– 수도회들 131
– 수도회에 대한 사랑 243
– 여자 수도회들과 병행하는 남자 수도회들 347
– 여자 수도회들 〈바오로인들〉 345
– 위로의 수도회 118
– 질서잡힌 관리 134
– 출판 순서 69
– 창립할 수도회 102
수사
– 사제와 수사는 같은 사도직으로 하나 되어 있다 41
– 수사에게 사제직에 비길 만한 직무를 40
– 증가시키고 보급하는 기술적인 일을 하는 수사 41
수용한 제안들 83
수정하다– 계획을 수정하다 47
수확– 수확할 것은 많다 338
수효– 성바오로딸수도회 회원 증가 245
– 사도의모후수녀회 *1*, *c326*–340, 346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1*, 46, 82, 244, *c309*–325, 336, 346, *347*
– 평범한 수녀들이 아니라… 309
↗바오로가족 수도회
순간
– 더 큰 은총의 순간들 7
– 역사적 순간 201
순례하는 교회– 지상교회 24
순명 82, 326, 342
– 사도직에 관해서는 교황에게 순명 〈제4서원〉 57
– 이중의 순명 29
– 교회 권위에 대한 순명 175
숨 돌림 – 더 큰 지출을 위해 숨을 돌림 〈휴식, 중단〉 133
스며들게 하다– 복음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식에 스며들게 하다 87
스승 〈예수〉 25, 152, 153, 154
– 길 진리 명이신 천상 스승 97, 98, 159, 352
– 빛, 위로, 상급이신 천상 스승 331
– 성체 안에 계신 천상 스승 74

– 성체이신 천상 스승 196
– 스승 예수께 대한 신심 327
– 스승 예수께 영예와 사랑을 292
– 스승 예수에 관한 백과사전 88
– 스승, 그리스도 94
– 천상 스승 68, 87, 132, 151, 157, 194, 196, 247, 279, 286, 288
– 천상 스승에 대한 신심 180
– 천상 스승의 성당/스승 예수 성당 75, 250
– 천상 스승의 승리 308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 74, 244, *c279*–293, 304–308, 346, *347*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는 성소자를 청하고 돕는다 307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기원, 초기 역사 *c247*–250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사명 196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알베리오네 신부 문서보관소 *c304*
스카풀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가르멜 산의 마리아, 고통의 성모 마리아 스카풀라 204
스탠드 글라스 77
스피커– 예수님의 스피커 157
습관/익숙해짐– 희생에 익숙해짐 38
승리– 천상 스승의 승리〈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사도직) 308
승리– 성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악에 대한 승리 16
승인/선언/확인 199
– 교회의 승인 219
– 성바오로수도회의 승인 249
– 하느님의 승인 219
시각/직관
– 예수 그리스도의 통합적 시각 160
– 하느님을 직관하도록 준비함 186
시대/시간 133
– 기도시간 146
– 내 삶은 시간과 더불어 막을 내림 355
– 당시 〈역사적 시간〉 244
– 비오 10세는 시대를 포착할 줄 아는 분 62
– 자유시간 〈독서를 하면서 보냄〉 66
– 현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을 위한 자유 150
–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단들 83
시련– 새로운 시련과 고통 108
시작– 바오로가족의 시작 27, 29, 103
시작하다– 창립을 시작하다 30
신랑– 성체이신 신랑 287
신뢰 167, 172, 330
– 더 큰 신뢰 199
– 더 큰 평온과 신뢰 29
– 동료 신학생들의 신뢰 18
–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 60
– 오직 하느님께만 신뢰 249
– 주교의 신뢰 73
– 하느님 섭리에 대한 신뢰 248
– 하느님께 대한 신뢰 134
– 하느님께 의탁하다 165
– 하늘에서 다시 만난다는 신뢰 351
– 확고한 신뢰 248
신문 172
신부
– 신부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9

–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9
↗사제
신비
– 성체성사의 신비 247, 279
– 스승 예수의 신비 159
– 신적 신비 293
– 예수님의 근면한 삶의 신비 127
신비로운 〈개입〉 163, 166
신비체 182
신성 159
신심 64, 65, 75, 94, 97, 104, 125, 160, 177–184, 243, 293
–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 75, 180, 327, 331, 352
– 바오로가족 안에는 별난 신심이 없다 94
– 사도의 모후께 대한 신심 75, 181, 327, 331
– 사도직인 성체적 신심 305
– 성 마리아께 대한 신심 179
– 성 바오로께 대한 신심 64, 75, 180, 327, 331
– 성 요셉께 대한 신심 179
– 성삼위께 대한 신심 179
– 성소로 향한 신심 9
– 성체께 대한 신심 177, 179
– 세 가지 주요 신심 75
– 수호천사께 대한 신심 179
– 연옥영혼들에 대한 신심 179
–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신심 180
–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179
– 충만한 신심 160
신앙 99, 112, 187, 193, 196, 215, 219, 223, 288, 290, 306, 308, 331
– 단순하고 굳건한 신앙 220
– 믿음의 기도〈계약〉 158
– 신앙, 윤리, 전례 140
– 신앙과 인간의 지혜 190
– 신앙에 입각한 이성 88
– 신앙은 성체적 사도직에 의해 양육됨 308
– 신앙의 빛 194
– 이성과 신앙 198
– 전교회 118, 119
–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믿음 희망 사랑을 355
신용/신용금고– '작은 신용금고' 133
신학 51, 87, 101, 175, 187, 191, 193, 195, 199
– 「사목신학 개요」 77, 83
– 신학과정 59, 192, 204
– 철학과 신학과정 *12*, *13*
– 크리그의 「사목신학」 84
– 프란치스코 키에사의 「신학 과정」 195
신학교 67, 72, 104, 105, 125, 126, 161, 174, 177, 179, 181, 184, 329, *c332*, 340, 349
– 공동의 집인 신학교 333
– 교구의 박동하는 심장인 신학교 332
– 성광과 같은 신학교 333
– 성바오로수도회와 신학교의 차이점 176
– '신학교와 교육기관성' 329
– 제노바의 신학교 199

신학대전 〈신학과 철학 대사전〉 192
신학생 〈철학과 신학과의 신학생들〉 13, 18, 19, 21, 78, 83, 85, 91, 102, 107, 108, 111, 126, 127, 137, 145, 161, 162, 188, 204, 241
신학자 64
실천
– 그리스도교적 삶의 실천 293
– 정신과 실천 174
실현 101
실현해야 할 것 185–204
심약함– 덜 심약했다면 31
십자가 319
십자가에 못박힘/십자가에 달림 180, 182
십자가 처형– 목자이신 하느님의 십자가 처형 319
아들– 사람의 아들 321
아메리카니즘– 단죄를 받은 아메리카니즘 49
아무것도 아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 16
↗겸손
아버지
– 스승이요 아버지이신 성 바오로 2, 354
– 하느님 아버지 3, 188, 310, 314
아우구스티노수도회– 아우구스티노회 영성 159
아저씨/삼촌 〈야고보〉 169, 171
– 아저씨/친척 아저씨 174
아카데미– 성 토마스에 관한 아카데미 91
악
– 심각한 악 52
– 악에 대한 승리 16
– 악의 새로운 수단 14
– 여러 나라의 악 101
악마 313
↗사탄
안전성/확고함
– 사도직의 안전성 24
– 성소의 안전성 110
알다/지식
– 복음과 인간의 지식 87
– 인간적 도움 193
– 지식을 심화시키다 188
알베리오네 신부 문서보관소(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알베리오네 신부 문서보관소) *c304*
앎/인식/지식 185
– 마리아의 직무를 알게 해준다 201
– 상호인식〈착한 목자와 선한목자예수수녀회와 양들〉 316
– 스승 예수께 대한 깊은 앎 98
– 〈여러 창립자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39
–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65
– 주님께서 내게 알려 주신 사항 221
앞으로 나아가다 202
야생의 올리브 나무 95
야전 병원 108
약속– 〈천국에서 돕겠다는 약속〉 3, 291
양 310, 314
양 떼 312, 314, 318
양성/형성 21, 107, 147, 176, 244
– 교리교사 양성 78, 79

–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98
– 마리아는 사도들의 양성자 182
– 바오로인의 양성 103
– 사도들의 부르심과 양성 339
– 사람들의 양성 36
– 성소/성소자의 양성 327, 332, 338
– 양성의 교육학적 체계 149
– 자유를 향한 양성 150
– 자카르도의 양성 104
양식/양분/키우다
– 복음에서 양분을 취하다 95
– 신심을 키워가다 97
– 지적, 영적 양식 67
양심 문제 53
양육– 성체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양육 16
양육자– 성바오로수도회는 양육자 35
양육하다– 스승 예수께서 바오로가족을 양육하신다 156
영혼/정신/인간/사람 42, 54, 146, 216, 286, 287, 310, 313, 315, 316, 319, 324
– 관대한 사람들 17, 26, 39
– 덕망 있고 경건한 사람들 164
– 사람들에 대한 경험 82
– 사람들에 대한 사랑 243
– 사람들의 선 53
– 사람들의 유능한 스승들 98
– 성체성사적 정신 286
– 성체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영혼 290
– 순례하는 지상교회에 속한 사람들 24
– 연옥영혼에 대한 〈신심〉 179
– 영혼들의 성화 308
– 영혼의 보살핌 83, 84
– 영혼의 상태 316
– 인간 영혼을 지향하기를 338
– 인간 영혼을 최고의 완덕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24
– 인류의 구원 340
– 천상 승리의 교회에 속한 영혼들 24
–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믿음 희망 사랑을 355
– 희생할 수 있는 사람 281
어른/성인
–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을 선호할 필요 36
– 어른 성소자들 335, 336
어른스러움 〈성숙〉 160
어린양 310–324
–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 322
– 길 잃은 양 188
어린이
–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 180
– 어린이를 위한 출판 69
–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340
– 어린이의 영성체 178
어머니
– 〈마리아〉 182, 35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 324
– 알베리오네 신부 어머니의 기도 10
– 천상 은총의 어머니 201
업무/일 111
– 로마를 점령함 53

– 일을 바꾸는 것이 곧 휴식이다 129
– 휴식은 일을 바꾸는 것 125
여가/레크리에이션 126
– 놀이도 성소를 향해 방향지어졌다 9
– 여가는 〈일을 바꾸는 것〉 125, 129
여건– 미묘한 상황 107
여기서 〈감실로부터〉 *157*
여기서 비추기를 원하노라 152
여러 갈래의 물길– 〈바오로가족의 이미지〉 6
여성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109
– 여성의 사도직 280
– 출판 사도직, 사회 사도직 및 사목 사도직 분야에서의 여성 109
여성 협력자들– 사목자들의 여성협력자들〈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 82
여행
– 브뤼셀 〈방문〉 128
– 〈공동체 방문〉 245
역사 1, 2, 51, 88
– 교회사에 대한 수업 101
– 세계 교회사 66
– 세계 문학사 66
– 역사에 대한 공부 101
– 이중의 역사 1
– 카리스마의 역사 *c350*
– 하느님 자비의 역사 1
역할
– 목자의 역할 310
– 전례의식 73
역행–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 89
연결된– 사제와 수사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41
열다
– 사도직의 길을 열어주었다 30
– 성성으로 이끌어줄 문을 열어주다 39
열망, 열망하다– 복음을 총체적으로 살 것을 열망하다 20, 65, 93
– 다른 빛에 대한 열망 191
– 열망의 사도직 284
열성/열의 174, 218, 322
– 사제의 열성/열의 40, 109, 284, 308
–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280
– 선교의 열의 *120*
– 성 바오로의 열성 64
열성자들 328
열정
– 성경 사도직을 위한 열정 145
– 첫 네 명의 바오로인의 열정 217
염원 101
– 염원〈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이 여러 본당에 있기를〉 309
영감
– 성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길어낸 영감 29
– 하느님의 영감 345
영감을 주는– 모든 출판물의 영감을 주는 복음서 141
영광 8*
– 사도들을 위한 하늘 영광 182
– 영광의 빛 193, 194
– 하느님의 영광 42, 326, 338, 340,

344
– 하느님의 영광을 지향하다 338
영국인 195
영성
– 신학교의 영성 174
– 바오로 영성은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된다 159
– 베네딕토회 영성, 프란치스코회 영성, 예수회 영성, 가르멜회 영성, 살레시오회 영성, 도미니코회 영성, 아우구스티노회 영성 159
영성체 308
– 매일의 영성체 176, 184
– 몇몇 사람들의 영성체 139
– 병자들의 영성체 178
– 어린이들의 영성체 178
– 영성체로써 여러 가지 선이 스며든다 286
– 잦은 영성체 178
– 첫영성체 11
영예
– 스승 예수께 영예를 292
– 영예로운 종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 287
– 하느님께 모든 영예를 158
영원
– 내 삶은 영원으로 넘어간다 355
– 모두 영원히 다시 만나기 바란다 351
– 영원을 통해 사람들과 결속되어 있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 324
– 영원한 생명 194
– 영원한 행복 6
– 현시대와 영원을 위한 자유 150
↗하늘, 천국
영원한 기쁨 〈천국〉 355
영적
– 교리교사의 영적 양성 78
– 영적 일 129
– 영적 협력 25
영혼/정신/인간/사람 42, 54, 146, 216, 286, 287, 310, 313, 315, 316, 319, 324
– 영혼들의 성화 308
– 영혼을 돌보는 수단 83
– 영혼의 보살핌 83, 84
– 영혼의 상태 316
영화 54, 250, 327
– 영화에 대한 불신 54
– 영화에 적합한 수녀들 244
옆에– 바오로수도회 옆에 345
예견– 파산 예견 166
예고– 마리아께 주어진 〈이중의〉 예고 182
예비성소자의 집 335, 336, 347
예수 그리스도 3, 4, 15, 57, 64, 95, 120, 144, 157, 182, 183, 186, 188, 191, 194, 196, 289, 313
– 가톨릭 대학을 위한 활동 58
– 감실 안에 실제로 현존하심 286
– 공생활에서는 스승 180
– 과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 186
–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70, 95
– 그리스도 전체/통합적인 그리스도 159, 160
– 그리스도교 사회활동 63
–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갈

라 2,20〉 160
– 그리스도의 제자들 98
– 그리스도–하느님 198
– 기술적인 일 41
– 길 진리 생명 63, 93, 97, 98, 159, 338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182
–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 352
– 내적 활동 20, 309
– 네 줄기의 활동 163
– 노동은 건강에 좋다 128
– 노동은 공로의 수단 128
– 노동자 127, 180
– 노동자 예수 128
– 동정녀 어머니의 꽃 284
– 또 다른 그리스도–사제 284
– 예수, 마리아, 요셉 307
– 마리아가 주신 천상 스승 예수님 284
– 마리아는 은총으로 충만하신 분 201
– 많은 노동 129
– 모퉁잇돌 176
– 목자이신 예수님 310–324
– 바오로인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183
– 보다 큰 은총의 순간들 7
– 본성, 은총, 성소는 사도직을 위한 것 100
– 본성과 은총 28, 43
– 사도직 활동 128, 129, 133
– 사도직을 위한 은총 249
– 사제 159, 284, 310
– 사제이신 예수님 283
– 생계수단인 노동 133
– 성체 13, 19, 29, 95
– 성체이신 예수님 16, 82, *157*, 159, 284, 287, 290, 327
– 성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길어낸 영감 29
– 성체–제물 307
– "소년 예수" 〈서클〉 204
– 스승 25, 94, 152, 153, 154
– 십자가에 달리신 분 180
–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319, 320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182
– 영원한 사제 307
– 영원한 진리 196
– 영적 일 129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 인격 100
–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332, 340
–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34
–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65
–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1
–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128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34
–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350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93
–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이 160
–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모두 나에게 오너라" 15
– 예수 성심 65, 159, 180, 222
– 예수 성심 〈신심〉 179
– 예수님과 사도들 223

– 예수님과 함께 희생함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287
– 예수님과의 일치 286
–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부르고 양성하셨다 339
–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시다 315
– 예수님을 두 팔로 꼭 껴안다 224
– 예수님의 사생활 289
– 예수님의 은총 289
– 윤리적 일 129
–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 224
– 은총의 경륜 283
– 은총의 경이로움 223
– 은총의 물 287
–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 201
– 은총의 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79
– 은총의 활동/은총의 작용 78, 151
– 은총이라는 신적 도움 193
– 이 세상을 위한 가장 위대한 부 182
– 인간을 찾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188
– 인간–하느님 160
– 일을 주다 23
– 중노동 127
– 지적 일 129
– 진리, 은총, 자비의 보화 322
– 천상 스승 74, 97, 98, 132, 151, 157, 159, 194, 286
–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림〉 350
– 치유자(의사) 예수 그리스도 159
– 통합적 160
– 특별한 은총 306
–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신 그리스도 186
– 하느님의 아들 188
– 하느님의 은총 309, 355
– 힘겨운 노동 128
– ↗스승 예수
예수, 마리아, 요셉, 바오로 309
예수회 〈영성〉 159
예수회 회원들 222
예술 51, 88
– 생명을 위한, 진리를 위한, 선을 위한 예술 76
– 전례예술 76
– 종교예술 76
예술가 350
예언자 311
예외– 복음을 읽는 것은 신자들의 예외적 행위였다 139
오늘– 오늘의 사도가 되어야 15
오라토리오〈남성〉 78
오류/실수 45, 216, 319
– 하느님이 실수를 고쳐주셨다 47
오월 〈5월 한 달〉 241
오해 244
온순함 243
완덕/완전함 128, 160
– 사람을 최고의 복음적 완덕으로 이끌어주다 24
– 수도생활의 완덕 352
– 완덕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39
– 완덕의 삶 327
완수하다– 사명을 완수하다 157
왕 〈예수 그리스도〉 63
외부– 외부인들 32

용기 319, 350
용서 1, 351
(양)우리 314, 319, 322
– 예수님은 우리의 문 315
– 유일한 우리 310
– 유일한 우리에 대한 이상 322
– 하늘의 우리 321
우선/우위성/첫째
– 교리교육 활동을 우선시키다 81
– 바오로가족의 첫째 관심사 90
– 출판 사도직, 사목의 우위성 87
우정 342
웅변– 웅변학교 86
원기를 되찾음– 〈방안에 칩거하여 원기를 되찾고 나왔다〉 47
원수/적
– 목자이신 하느님의 원수 320
– 양들의 원수 320
– 우리가 제각기 따로 있다는 것을 적이 발견하면 17
원장/장상
– 교회장상 29, 59, 174, 342
– 명예총원장 〈알베리오네 신부〉 *c355*
– 수도회 장상 36
– 신학교 장상 179
– 원장으로 선출된 테클라 메를로 243
원천
– 맑은 샘 〈묵상과 성사〉 317
– 성경의 원천 99
– 원천인 〈교황〉에게서 길어내다 115
– 은총의 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79
원칙/원리
– 세 성당 건립의 예술적 원칙 77
– 자유주의 원리 52
– 활동의 원칙 128
"원하노라"– "원하노라"고 하실 때의 힘있는 음성 157
위대함– 〈위대함의 비결〉 95
위로 〈위로의 수도회〉 118
위생 88
위원회
– 가톨릭 위원회 *60*
– 교구 교리위원회 80
위험 164, 172, 321
– 실패의 위험 112
– 위험스럽게 살다 164
– 전쟁터에서의 위험 161
위협– 정신과 마음의 위협 319
유년기
– 바오로가족의 유년기 27
– 어린이 전교회 118, 119
유대
– 사랑의 유대 35
– 혈연의 유대 35
유물주의 52
유산 348
유언
– 수도자들에게 남기는 유언 351
– 영적 유언 *c351*
– 유언의 의미/가치 *c350*
유일한
– 유일한 사도직 130
– 유일한 사명 157
– 유일한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 34

유혹– 노동은 유혹에서 지켜준다 128
윤리
– 교의, 윤리, 경신례 160, 293
– 기도와 결부되어 있는 윤리 가르침 73
– 신앙, 윤리, 경신례 140, 308
– 윤리신학에서 성 바오로의 업적 64
– 윤리적 일 129
– 전례는 교의, 윤리, 경신례 306
융자 〈빌리다〉 166, 172
은덕 332
은인 167, 169
– 미지의 은인들 166
– 바오로가족의 은인들 123
– 새로운 은인들 166
은총 4, 97, 160, 182, 196, 313, 319, 321
"은총의 부" 27
음미하다– 기도를 음미하다 72
음악
– 성음악 74
– 특히 음악사 66
응하다 〈동조하다〉 122
의도/목적– 정신과 목적의 일치 341
의무 44
– 교회 권위에 대한 순명의 의무 175
– 교회를 위해 봉사할 의무감 20
– 명복을 비는 의무 353
–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 15
– 사회적 의무 〈노동〉 128
– 의무를 일깨워주는 일 9
의미– 〈의미를 위해 문법을 희생시키다〉 157
의식– 〈의식서〉 72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55
의심 45
의탁– 하느님께 의탁 248
의학 87
이끌어주다– 특별한 성성으로 이끌어주다 39
이리 310, 319, 322
이미지– 〈 착한 목자의〉 이미지 310
이백 〈 꿈의 숫자〉 26
이상
– 사도의모후수녀회의 이상(모든 성소와 모든 사도직, 모두를 위하여) 328
– 사도직의 이상 108
– 하나의 우리에 대한 이상 322
이성
– 신앙에 입각한 이성 88, 188
– 이성으로부터 신앙으로 188–189, 198
– 이성을 잘 사용하다 186
– 이성의 빛 194
↗지성/지혜
이야기하다– 종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교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87
이유/동기 〈목적〉– 로마에 있는 이유 115
이익– 영적 유익 〈결실〉 92
이중의 역사 1
이탈
– 과거에서 떠남 248
– 자신에게서 이탈 120
이해 26

–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는 초대의 이해 15
– 이해의 정신 65
인간/사람 45, 59, 120, 140, 149, 160, 162, 185, 187, 188, 350
– 더 부적당하고 무능한 사람 350
–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1, 183
– 모든 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186
– 모든 범주의 사람 65, 86
– 모든 시대 사람들의 질문 197
– 바오로가족 회원 103
– 빛을 받은 사람들 27
– 사람들에게서 분리 248
– 새로운 세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15, 20
– 선의의 사람들 51
– 수도회의 외부인들 32
– 인간 예수 그리스도 160
– 인간–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160
– 자유를 선용하도록 인간을 양성하다 150
– 전 인격 100
– 하나의 사명을 위해 사람들을 112
– 희생제물로 봉헌한 사람들 161
인격/인품
– 사도적 인격 146
– 성 바오로의 인품 64
– 알베리오네 신부의 인품 *c350*
– 인성 개발 22, 146–150
– 자연적 인격 146
– 초자연적 인격 146
인과관계 185
인내 26, 351
인도 〈지적 방향〉 92
인도하다
–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맡기다 44, 45, 281
– 지식인들을 인도하다 188
– 하느님의 인도를 받은 알베리오네 신부 202
인성/인류 57, 115, 180, 201
– 그리스도의 인성 159
– 마리아는 인류에게 천상 스승을 준비해 주셨다 307
인쇄/인쇄소 172, 218
– 인쇄소 구입 48
– 인쇄업이라는 직업 217
인쇄기 157, 171
– 기계를 사용하여 사도직을 하는 것 128
– 첫 인쇄기 *48*
인쇄하는 것 157
인쇄학교 *102*
인식/양심
– 사도직에 대한 인식 121
– 성소에 대한 인식 338, 339
– 양심 문제 53
– 충분한 의식을 가지고 결정함 37
– 죄에 대한 인식 158
일/노동/활동 47, 124, 125, 128, 129, 133, 134, 196, 243
일/행위/활동/업적/회/단체 101, 122, 123, 135, 330, 342, 343
– 가톨릭 단체 대회 *14*, *20*, 60
– 과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

186
– 교리교사 양성을 위한 활동 79
– 교리교사 활동 78
– 교리교육 활동 81
– 교육 수단인 노동 133
– 교의신학과 윤리신학에서의 성 바오로의 업적 64
– 교회를 위한 일 24
– 구원 활동 128
– 사회활동 59
– 선행 65
– 성경에 관한 활동계획 250
– 성경 보급 활동 145
– 성소를 위한 교황청 단체 329
– 어린이 전교회 118, 119
– 업적을 완성하다 348
– 열성적인 일 40
–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188
–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281
– 전교회 119
– 지성〈정신〉, 마음과 행위 97, 143
– 지속적인 거룩한 미사 단체 122, *162*, 249, 343
– 착수한 일 30
– 창조사업 185
– 철야 성체 흠숭회 *13*
일으킨 분– 사도들을 일으키신 분 〈마리아〉 182
일치/단체/연맹/연합
– 결집된 힘 24
– 국민연합 *14*, 60, 61, 116
– 다양성 안의 일치 193
– 단결하시오 17
– 바오로가족 수도회의 일치 33
– 사도직에 최상의 일치를 부여하다 24
– 사람들의 연합체 344
– 예수님과의 일치 286
– 정신과 목적의 일치 341
– 정신의 일치 131, 132
– 주제의 일관성〈건축상〉 77
– 출판 사도직 협력자회 〈연합〉 122
– 프라이부르크 연맹 *17*
일하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55
– 회헌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 130
일하다 200
잃어버림/상실
– 잃어버린 양 321
– 지성의 상실 91
"임금의 사제단" 41
임무/사명
– 바오로가족의 큰 임무 63
– 새로운 사명 55
↗직무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어야 했다 217
입장 53
입회수락/허락 107
잉태 예고 289
자매들
– 믿는 이들의 자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324
– 바오로가족의 자매들 353
– 이성과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198
자문할 것 〈묵상할 것〉 "너 왜 여기에 왔느냐"고 자문할 것 〈묵상할 것〉

197
자본주의 *52*
자비
– 주님의 자비 216
– 진리, 은총, 자비의 보화 322
– 하느님 자비 45
– 하느님 자비의 역사 1
자석– 성성은 자석이다 340
자유
– 교회의 자유 19
– 규정들과 자유 146
– 자유를 향한 양성 150
– 지나친 자유 148
자유로워짐– 교구의 직무에서 자유로워짐 30
자유주의 49
– 자유주의 원리 52
자질– 정신과 마음의 자질 104
작별인사 *c350*
"작은 신용금고" 133
잡지
– 가톨릭 학문에 대한 잡지 67
– 잡지에서 토론을 76
장미– 백합, 장미, 제비꽃 정원 39
장학금(기부금**)** 174
잦은– 〈잦은 영성체〉 178
재검토 〈증명〉 151
재난 〈1914년의 전쟁〉 111
저널리스트– 성 바오로께서 오늘 살아 계시다면 저널리스트가 되셨을 것이다 *17*
저널리즘 51
저녁기도 140
저서들– 알베리오네 신부의 저서들 *120*
저술가 〈가톨릭 조직〉 23
– 글을 쓰는 사제 41
– 수도자인 저술가 24
– 저술가들을 양성하다 244
저항– 성좌의 지침에 대한 저항 52
적합– 하느님과 교회에 적합 351
「적합하지 않음」 53
– 비오 10세가 '정치참여 금령'을 완화시킴 62
적용/적응
– 배운 것을 적용하다 146
– 신심에 적용 180
– 적응 정신 65
전교회
– 전교회 119
– 전교회 연보 118
전구하다– 감실 앞에서 전구하다 34
전기/성인전/생애〈책〉 119, 175, 222
전달/전달자
– 빛의 전달자 157
– 사랑의 전달 54
전달하다 〈참여하다〉 83
– 가르침을 전달하다 99
전례 74, 290, 293, 346
– 베네딕토 전례센터 293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사도직 247, 279, 290, 306
– 전례교육/가르침 71, 72
– 전례, 교의, 윤리와 경신례 306
– 전례기도 73
– 전례는 대중화되어야 한다 306
– 전례 사도직 292
– 전례, 성령의 책 306

– 전례의 목적 74
– 전례 의식 73
– 전례정신 71–74
– 주보 74
전시 327
전쟁
– 1914–1918년의 세계대전 48, 108, 111, 161, 216
– 1939–1945년의 전쟁 216
전체성
–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전체를 제시한다 159
– 수도조직에서 헌신은 전면적이 된다 24
–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 100
↗모든/모든 것/전체
전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다 34
젊은이들 103, 105, 111, 126, 336, 347
– 젊은 시절 333
– 젊은이들을 택하다 36
– 젊은이를 위한 출판 69
– 첫 젊은이들 *48*
접목되다– 성체이신 그리스도께 접목되다 95
접촉– 사회적 접촉 82, 110
정 〈감사의 정〉 332
정결/순수함 204
– 가르침은 더 순수해질 것 24
– 몸가짐의 순결 342
정결 204, 326, 342
정기간행물 121, 327
정리/통합하다– 학문을 정리하고 통합하다 192
정반대의 사건 〈반대자들〉 167
정복됨
–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된 인간 160
–정신, 마음, 의지 22
정신/영 104, 115, 133, 147, 174
– 가톨릭 정신 117
– 마리아의 정신 307
– 바오로 정신/바오로적 정신 2, 70, 93–100, 122, 217
– 사도직 정신 23
– 사목정신 82–86, 309
– 사회정신 58–63
– 성 바오로의 정신 93, 94, 95
– 성소를 위한 정신 326
– 수도회의 정신에 대한 충실 331
– 영과 진리 97
– 유일한 정신 〈바오로적〉 34, 64
– 적응과 이해 정신 65
– 전례정신 71–74
– 정신과 목적의 일치 341
– 정신과 실천 174–176
– 정신의 일치 131
– 창의적 정신 146
– 특별한 정신 13
정신/지성 197
– 교회 정신 140
– 정신, 마음, 실천 142
– 정신, 마음, 의지 22
– 정신, 힘, 마음 24
– 정신과 마음에 〈확고하게 뿌리 내림〉 20
– 정신과 마음에서 319

– 정신과 마음의 자질 104
– 지성〈정신〉, 의지, 마음 98
– 지성〈정신〉, 의지, 마음과 행실〈행업〉 97; 육체적 힘 44
– 지성의 성화 92
정욕 156
정원– 성덕의 정원 39
정의와 사랑 65
정치 62
– 정치경제학 87
– 정치문제 53
제4서원 〈사도직에 관해서는 교황께 순명〉 57
제대– 본당신부는 그가 제대에 오르기까지 그를 동반해주었다 12
제물 〈성체적 사도직의 일부〉 287
제비꽃– 백합, 장미, 제비꽃 정원 39
제의– 사제가 제의를 벗고 2
제의방 담당자 72
제자
–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 98
– 바오로, 그리스도의 제자 159
– 사제와 제자는 같은 사도직으로 하나됨 41
–〈천상 스승의〉 제자 39, 40, 42
조각 77
조국
– 마리아의 보호 181
– 조국의 새로운 필요성 108
– 조국의 최고 선 53
조난/파선 156
조류– 성직자 사이의 조류 49
조언/충고/권고 27, 165, 170
– 복음적 권고 24, 308
조직 17, 54, 131
– 가톨릭 신자 조직 7
– 가톨릭 조직 23
– 교리교사 조직 형태 78
– 교회의 조직화 64
–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해야 하는 조직 20
– 사회 조직 59
– 성 바오로는 교회 조직 안에 살아계시다 94
– 성 요셉 코토렌고의 조직 131
– 성 요한 보스코의 조직 131
– 수도자들의 조직/수도삶의 조직 7, 24
– 조직에는 조직으로 대항하다 14
– 현대적 조직 49
조직하다〈준비하다〉**–** 성 토마스에 관한 학회를 준비하다 91
조판/식자 218
존경– 성 바오로에 대한 존경 64
존재
– 존재론적인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185
– 존재의 목적 *197*
종
– 영예로운 종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87
– 종 〈알베리오네 신부〉 3, 47
종
– 종이 울리기를 기다림/종의 순서 〈하느님의 때〉 30
– 하느님의 종소리 335
종교/신앙 97

– 종교, 교의, 윤리와 경신례 160
– 종교사 66
– 종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87
죄 1, 3, 47, 166, 319, 321
– 죄를 범함으로써 나를 내쫓지 마라 156
– 죄에 대한 인식 158
– 죄의 고통/죄를 뉘우침 152, 158
– 죄의 해악 187
– 죄짓지 마라! 156
– 태만의 죄 1
"죄를 뉘우치라" *152*, 152
죄인 321
주간– 매월 첫 주간 179
주간지 〈교구 주간지 「가제타 알바」〉 111
주교 30, 80, 112, 121, 168, 175, 177, 332, 333
– 주교님의 생신 334
– 주교의 동의 184
– 주교의 신뢰 73
– 주교의 예절담당자 72
주교좌 성당 〈알바〉 78, 140
– 주교좌 성당에서의 성체흠숭 13
주님〈하느님〉 2, 4, 10, 25, 28, 32, 33, 39, 47, 102, 112, 120, 124, 136, 161, 162, 204, 216, 221, 241, 242
– 사제직과 수도 직분과 모든 성소의 창시자 338
–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다 15
– 주님의 뜻과 기대 222
주님 공현 대축일 118
주다/제공하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182
주보 74
주석– 성경적 교리적인 주석 140
주인– 양떼의 주인 312
주일 140, 175, 183
– 두 번의 주일 미사 184
주장– 성좌의 주장 337
죽은 이들– 죽은 이들을 위한 영웅적 행동 353
죽음 161, 165, 320, 349
– 그리스도의 죽음 320
– 목자이신 하느님의 죽음 319
– 양들의 죽음 〈죄로 인한 죽음〉 319
– 죽은 후 123
– 죽음을 통해 사람들과 결속됨〈선한 목자예수수녀회 수녀〉 324
준비
–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준비하다 15
– 바오로가족의 준비 27
– 분위기를 사목적으로 준비함 109
– 섭리의 길을 준비하시다 43
– 오랜 준비 58
– 창립을 위한 준비 103–110
↗양성
준성사 286
중개자–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 〈마리아〉 182, 201, 283
중노동– 〈사도직〉 38
중대성– 사명의 중대성 350
즐겁게 하다– 〈수사는 사도직을 즐겁게 한다〉 42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 고통의 성모 마리아 204

– 공동구속자 181
– 공동 사도 181
– 마리아, 예수님과 요셉 307
– 마리아께 서약한 〈성당 건립〉 75
– 마리아와 같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 284
– 마리아와 사도들 182, 289
– 마리아와 사도직 182
– 마리아의 보호 181
– 마리아의 성체적 정신 286
– 마리아의 전구 1
– 마리아의 정신 307
– 사도들의 스승 289
– 사도의 모후 85, 181, 354
– 사도이신 마리아 284, 307
– 선종의 성모회 204
– 성 마리아께 대한 신심 179
– 스승 354
– 스승의 어머니 마리아 307
– 신적 모성 182
– 알베리오네 신부가 마리아께 드린 질문 201
– 양성자 284
– 어머니 354
– 우리 어머니 182
– 우리에게 천상 스승 예수님을 주셨다 284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서클〉 204
–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 182, 201, 283
– 은총이 충만하신 분 201
– 착한 의견의 어머니 333
– 천상 은총의 어머니 201
– "하느님과 마리아께 감사!" 7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께 서약–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께 서약한 〈사도의 모후 성당 건립〉 75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1, 183
지도 신부/책임자
– 신학교의 영적 지도신부 104, 107, 111, 161, 179
– 알바의 도미니코 제3회원 지도신부 121, 204
– 영적 지도신부 29, 30, 47, 154, 174
– 영적 지도신부의 권고 281
지리학 88
지불 133
– 기숙사비를 지불하다 174
– 처음으로 구입한 기계대금을 지불하다 171
지성/지혜 100, 104
– 사도직에 대한 인식과 사랑 240
– 이성 186
– 첫 바오로인들의 지성 215
지성인들/지식인들 191, 193, 197
– 지성인들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197
– 지성인들을 통하여 그물로 고기를 낚는다 197
– 지식인들을 비추고 인도하다 188
– 지식인들을 위한 출판 69
– 지식인들을 이성으로부터 계시로 들어 높이다 188
– 지성인들이 있는 곳까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 188

지속성
– 끊임없는 희생 38
– 사도직의 지속성 24
지원자 174, 246
– 성바오로수도회의 첫 회원들 215–224
– 젊은 지원자들 37
– 지원자들의 사제직 봉사 284
지적
– 교리교사의 지적 양성 78
– 〈바오로가족 수도회 사이에〉 지적 협력 34
– 지적인 일 129
– 지적 협력 25
지질학 88
지출 104, 165
지침 〈방향〉
– 교황/성좌의 지침들 49, 52, 55, 329
– 〈사목과 출판의〉 지침 73
– 시대의 방향 133
– 지침을 주다 23
– 하느님과 교회에 부합하는 방향 351
– 〈협력자들에게 제시된〉 지침 343
지탱하다– 모든 사도직을 지탱하다 65
지향
– 같은 기도 지향 123
– 기꺼이 들어주시는 기도 지향 25
– 바른 지향 165
– 알베리오네 신부의 지향 161, 173
지혜 97
– 예수님의 지혜 289
– 인간의 지혜 〈신적 신앙에 예속된〉 190
– 천상적 지혜 160
– 하느님의 지혜 4, 32
직무/사목 82, 85, 111, 181, 333, 355
– 감실 앞에서의 직무 287
– 도서관 사서 직무 67
– 말씀의 직무 316
– 본당사목 104
– 사목 경험 82
– 사목/직무 82, 188
– 사제의 사목 직무 319
– 성직 직무 199
– 영적 지도신부 직무 107
– 예수님의 사도적 직무 311
– 직무에서의 분리 248
직업 〈인쇄업이라는〉 직업 217
진리 159, 319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63, 93, 97, 98, 159, 182, 338, 352
– 본성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은 진리 186
– 영과 진리 97
–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196
– 진리가 없는 곳에는 그 어떠한 성화도 없다 92
– 진리를 위한 예술 76
– 진리와 애덕 *291*
– 진리의 보화 322
– 진리의 토대를 뒤흔들다 89
–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70
진보하다 147
질문

– 본질적인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185
– 사람들의 질문 197
짐– 〈초창기 형제들이 가장 무거운 짐을 져주었다〉 220
착한 목자– 나는 착한 목자다 310
↗목자
찬미/성가
– 그레고리오 성가 74
– 성가 71
–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영원한 찬미 196
참여
– 사제의 결실에 참여 285
– 사제적 열의에 참여 40
– 〈수사〉들이 하나의 사도직에 참여함 40
참여하지 않음– 주일 저녁기도에 참여하지 않음 140
창립–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120*
창립자– 〈성 바오로를 창립자로 여겨야 한다〉 2
창조 185, 313
– 창조의 주님 335
찾다/발견하다
–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다 188
– 인간을 찾다 188
찾아가다– 지식인들을 찾아가다 188
채권자 156, 167
채찍 248
책임 〈과제〉 111, 179
– 교구 출판의 책임 30
– 〈바오로 가족의 책임〉 63
처신/태도 9
천국 321, 323
– 천국에서 나는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291
↗하늘, 영원, 상급
천사 183
– 성체성사의 천사들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87
– 수호천사 신심 179
– 지상의 천사들인 수도자들 4
– 천사 가브리엘 182
천상 스승 ↗예수, 스승 〈예수〉
천상 화관 41
천육백 주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평화〈종교자유〉 1600주년 102
철학 51, 87, 91, 101, 175, 187, 189, 192, 193, 195, 199
– 여러 학문의 철학 189
– 철학과 신학과정 *12*
– 철학과 신학과정의 신학생들 13
– 철학과정 204
– 철학사 66
– 철학은 계시의 일꾼 189
– 철학은 신학으로 인도한다 191, 193
첨부/보충– 윤리적 의무에 사도직을 첨부/보충하는 것 121
첫 바오로인들 215–224
첫 영성체 11
첫 주간(매월) 179
청년기 36–38
청소 126
체계/시스템
– 경제적 체계 52

– 교육학적 시스템 149
– 현대적 사목체계 49
초등학교 125
초자연성 244
– 사도직의 초자연성 24
– 초자연적 개입 32
– 초자연적 인격 146
초창기 역사–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의 초창기 역사 *c247–250*
초창기 회원들 57
"최상의 삶" 185
최전방/전쟁터 108, 161
최후심판 8*
추구
– 봉헌의 추구 284
– 성소 발굴/성소자들의 발굴 327, 338
추진력– 앞으로 나아가게 함 28
축복 291
– 본당신부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계획을 축복해 주었다 12
– 성삼위의 이름으로 강복함 354
– 이해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291
– 주님의 축복과 함께 *c355*
– 하느님의 끊임없는 축복 163
출판/인쇄 54, 65, 70, 99, 109, 143, 145, 157, 250, 327, 342
– 고서와 신간 67
– 교구출판 30
– 바오로적 정신으로 출판함 70
– 복음서, 모든 출판물의 모델 141
– 여성과 출판 사도직 109
– 인쇄에는 인쇄로 대항하다 14
– 첫 인쇄기 *48*
– 출판 〈저널리즘〉 51
– 출판물을 쇄신하다 19
– 출판사도직 협력자회 122
– 출판에 있어서의 순서 69
– 출판의 내용 87, 88
출판물– 포교용 출판물 118
↗출판
충만함 159, 160
충실/충성
– 본보기가 될 만큼 충실함 219
– 사명과 수도회 정신에 충실함 331
– 성좌의 지침에 충실함 49
– 예수님의 충실 288
– 첫 바오로인들의 열성 217
– 충성심이 조국의 필요성에 눈뜨게 해줌 108
– 충실하도록 부르심 받은 모든 이 328
취하다/길어내다
– 감실에서 길어내다 157
–성 바오로에게서 정신을 취하다 64
치유–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치유 64, *152*
치유자(박사) 〈예수 그리스도〉 159, 180
친구
– 그리스도교 예술의 벗들 76
– 친구 보렐로 22
친밀함/긴밀함
– 긴밀한 신뢰 248
– 성 바오로, 예수님과의 친밀함 64
– 주님과의 친밀함 120
친족 관계– 바오로가족은 친족 관계 34

침착/평온 〈"안심하십시오"〉 154
칩거– 방 안에 칩거 47
탄생/출현
– 라디오와 텔레비전 출현 54
– 바오로가족 탄생 *1*, 27, 34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탄생 244
– 수도회 탄생 48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탄생 244, 279
탈선
– 문화적 탈선 89
– 퇴회와 탈선 26
탐구하다– 심오한 신비를 탐구하다 159
태만
– 노동은 태만에서 지켜준다 128
↗부당한/부합하지 못함
테마/주제
– 교의와 윤리 주제들 175
– 예술적 테마 77
텔레비전 54, 327
토론/논고– 문화적 토론 53, 76
토마스아퀴나스– 새로운 아퀴나스 192
토마스 학회– 토마스의 근본사상 91
통계학 88
통고/포고 172
통교– 하느님과의 통교 146
통솔 63
– 통솔 양식 〈성 요한 보스코와 성 요셉 코토렌고〉 131
– 통솔의 분리 〈바오로 수도가족 사이에〉 35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63
통합/온전/완전
– 복음을 총체적으로 살 것 93
– 여러 학문/과학의 통합 189, 191–198
– 통합적 영성 159
–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160
통회하다– 흠숭하고, 감사하며, 통회하고, 청원하기 위하여 68
퇴회와 탈선 26
투입 방법– 사도직을 위한 투입 방법 107
특별 총회
– 바오로가족의 머리는 스승 예수시다 156
– 성바오로수도회의 특별총회 *c355*
특수성– 바오로가족 안에는 많은 특수성이 없다 94
파견 〈"가서…"〉 117
파견된 자들 〈사도들〉 115
파괴– 교회를 파괴하려 함 89
파산– 〈파산할 것이라는 예견〉 166
파시스트 민족당 *62*
파시스트들 156
파시즘 62, 172
파탄– 양들의 파탄 322
판매원들– 가톨릭 판매원들 23
펜 157
– 기계, 〈인쇄기〉로 하는 사도직 128, 157
– 사도직의 본질 128
평신도
– 수사에게 사제직에 비길 만한 직무를 주다 40
– 평신도와 사회활동 329

평온– 더 큰 평온과 신뢰를 위하여 29
평화 43, 166
–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1, 183
– 비오 10세의 평화를 위한 기도 48
– 사람들에게 평화 1, 183, 344
–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평화 선언 102
– 평화의 하느님 70
폐결핵 112
포옹 〈이성–신앙〉 198
표지
– 바오로가족은 하느님이 원하셨다는 표지 32
– 하느님의 표지 45, 113
풍성한 은총의 부 4
풍요로움– 사도직의 풍요로움 22
풍요롭게 하다– 바오로가족을 풍요롭게 하다 176, 184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연합〉 *17*
프란치스코회 회원들 222
– 프란치스코회 영성 159
프랑스인 195
프로그램/계획
– 교리교육 프로그램 80
– 교황청의 프로그램 188
– 삶과 빛의 계획 154
– 삶의 계획 183
프로파간디스타〈보급자〉
– 수도자인 프로파간디스타 24
– 프로파간디스타인 수녀 244
프리마 마에스트라 240–246
프리메이슨 62
– 프리메이슨의 명에 49
프리모 마에스트로 64, *152*, 173, *c240*, 241, 244, 245, *c279*, 304
피
– 예수님의 귀중한 피 313
– 혈연의 유대 35
피정
– 월피정 184
– 영신수련 327
필름제작 327
필요/필요성 65, 101, 120, 165
– 공적, 사적인 모든 필요성 65
– 교회가 직면한 절박한 필요성 107
– 교회의 필요 14
– 새로운 요청 49
– 세 가지 필요성과 세 가지 사도직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304–308
–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182
– 시급하고 절실한 필요 166
– 실제적인 필요 〈학업을 마칠 필요성〉 199
– 인류가 당면한 필요성 201
–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필요성 108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한데 모으니…〉 33
하느님
–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 243
–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 이르는 길 186
– 평화의 하느님 70
– 하느님과의 계약 163
– 하느님께 대한 경외 124
– 하느님께 부합 351

–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비전 〈낙관〉 194
– 하느님은 계시자 186
– 하느님은 빛이시다 202
– 하느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42
–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 하느님의 때 30, 335
– 하느님의 뜻 30
– 하느님의 부성적 마음 338
– 하느님의 손길/손/수중 8*, 44, 79, 242, 248
– 하느님의 영광 1, 183, 326, 328
– 하느님의 음성 248
– 하느님의 축복 163
– 하느님의 표지 45
– 하느님의 활동 27
– 하느님의 활동방법 43
하느님과 마리아께 감사 7
하느님의 모범 195
하느님의 자비 ↗자비
하느님의 집 290
하늘/천상 3, 123, 190, 191, 196, 201
– 사도들을 위한 영광 182
– 승리한 천상교회 24
– 천상의 갚음 313
– 하늘의 우리 321
– 하늘의 화관 41
학교/수업 9, 63, 74, 76, 111, 125, 192, 241
– 교회사에 관한 수업 101
– 그리스도교교육수도회 78
– 모든 것이 배움터였다 〈가르침, 경험〉 56, 90
– 사회학 수업 181
– 역사에 관한 공부 101
– 웅변학교 86
– 전례수업 72
– 종교수업 78
– 종교예술 학교 76
– 학교 〈인간의 정신 세계를 두고 다투는 무대〉 54
– 학교를 쇄신하다 19
학문/주제 98
– 사회학, 신학, 수덕신학 주제 89
– 학문 연구 199
학위 195, 199
학자들– 독일 학자들 50
한데 모으다– 섭리의 길을 〈준비하고〉 한데 모으다 43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224
할 수 없다– 묵주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31
항해– 항해사 66
해결책
– 비오 10세의 해결책 51
– 예기치 않은 해결책 166
– 윤리적 사회적 해결책 52
해방– 평범한 노동자 상태에서 벗어남 42
해석
– 꿈 해석 156
– 복음 해석 140
– 성경의 사적 해석 139
– 회헌 해석 130
해외/외국 81, 114
– 다른 나라를 위한 기도 102
– 문화적 외국풍 숭배 50

–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의 외국어판 출간 109
행동/작용/활동 65
– 가톨릭 액션 〈운동〉 59 ,82, 308
– 경제활동 52
– 선교활동 308
– 성소를 위한 활동 327
– 성체이신 예수님의 활동 82
– 은총의 작용/활동 78, 151
– 자기 행동 151
– 자연스럽게 작용 43
– 하느님의 활동, 활동 방식 27, 43
– 현대적 행동 49
– 활동과 기도 63
– 활동의 과대 평가 49
↗활동
행보– 바오로가족의 행보 29
행위
– 죽은 이들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행위 〈기도〉 353
– (하느님의) 가장 순수한 행위 128
향상시키다/높이다
– 수사들은 사제의 활동을 들어높인다 42
– 지식인들을 향상시키는 일 188
허리띠– 정결을 위한 성 토마스의 허리띠 204
헌신/전념 38
– 사도직에 헌신함 218
– 시작한 일에 전념함 30
– 전면적 헌신 24
혁명
– 기술혁명 52
– 프랑스 혁명 52
현명한 판단력 242
현명함
–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현명함 245
– 비관적 상황에서의 현명함 111
– 첫 바오로인들의 현명함 217
현존
– 교회의 현존 65
– 스승 예수님의 현존 156
–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 286
협력/가담 17, 21, 58
– 본당사제에게 협력함 324
– 사제와 협력하는 여성 109
– 사회활동과 조직을 위한 협력 59
– 선교사 협력 *119*
– 영적, 지적, 윤리적, 경제적 밀접한 협력 〈바오로가족수도회 사이에〉 34
– 지적, 영적, 경제적 협력 25
↗조직, 협력
협력자들/협력자회 25, 121–123, *133*, 169, 172, 241, *c341*–344, 353
– 아직 극소수에 불과한 협력자들 25
– 제3회와 같은 종류의 협력자회 122
– 출판 사도직 협력자회 122
협박 172
– 위기에 처해 있던 가족 157
형식– 바오로가족 안에는 필요 이상의 형식이 없다 94
형이상학
– 교육방법 149
– 하느님 〈섭리의〉의 일반적인 방법 43
– 〈형이상학 없이는 넓은 시야도 없

다〉 92
형제들 353
– 그리스도교교육수도회 78
– 성바오로수도회의 형제들 221
– 알베리오네 신부의 형제들 9, 125
호소– "수확할 것은 많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 338
혼돈– 관념의 혼돈 91
혼란 51, 185, 187
– 사회적 혼란 52
– 심각한 논란 51
화관– 사도의 모후께 바치는 주간기도 〈화관〉 *120*
확신/설득/안전 350
– 깊은 확신 149
– 언제나, 오로지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로마정신'이라는 확신 56
확인/확증 113, 154
– 예수님의 말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224
– 영적 지도신부가 확인해준 영감 29
확장 117
환상 113, 195, 219
환시 〈꿈〉 151–155
활동
– 바오로가족수도회들 사이의 분리된 활동 35
– 사도직 활동 115
– 〈창조적인〉 새로운 활동 130
↗ 행동
활동하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활동하려는… 95
활발함– 활발한 영성 174
활용할 것〈은총과 기회를〉 활용할 것 147
회복시키다 63
회원들
– 모든 회원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 15
– 성바오로수도회 첫 회원들 215–224
– 〈수도회〉 회원들 32, 3514
회칙 19, 52, 67, 91
회헌
– 바오로가족의 회헌 130
* 21조 37
* 154조 97
* 177조 98
* 178조 37
* 224조 99
– 사도의모후수녀회 회헌 *c326*–331
– 성바오로수도회 회헌 *42*, 96
후계자들– 〈알베리오네 신부의〉 후계자 348
후보자 62
휴식
– 겨울방학 125
– 일을 바꾸는 것 129
↗ 여가/레크리에이션
흠숭의 마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들〉 287
희망 101, 290
– 격려와 희망 345
– 인간적 희망 166
–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믿음, 희망, 사랑을 355
희생 125, 219, 319
– 끊임없는 희생 38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 163
– 희생에 익숙해짐 38
– 희생의 날 327
희생자 321
–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281
–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한 사람 161
–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생 〈스승예수 의제자수녀회 수녀〉 287
힘 124, 128
– 결집된 힘 24
– 정신, 의지, 마음, 육체적 힘 24, 44, 100
– '여기서'라는 말이 감실에서 힘있게 울려 나왔다 153
– "원하노라"고 하실 때의 힘있는 음성 157
힘차게 〈그리고 감미롭게/훌륭히〉 43, 78

발행일 | 2012년 12월 8일
옮긴이 | 이 창 욱
펴낸곳 | 바오로딸